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새로운 두 분의 사도가
지지받다

새로운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이 지지받다

새로운 성전
일곱 곳이 발표되다



제일회장단

러셀 엠 벨스 회장(중앙)은 제188차 연차 대회에서 제17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다.
제일회장단 보좌로는 맬린 에이치 옥스 회장(왼쪽)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오른쪽)이 부름받았다.

토요일 오전 모임

- 6 성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9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엠 러셀 벨로드 회장
- 12 제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 장로
- 15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래리 제이 에코 호크 장로
- 17 선지자의 마음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21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린 지 로빈스 장로
- 24 하나님의 선지자
닐 엘 앤더슨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 28 교회 역원 지지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 29 2017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케빈 알 저건슨
- 30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34 하루만 더
테일러 지 고도이 장로
- 36 구원 사업에서 청년의 역할
보니 엘 오스카슨
- 39 우리를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줄
구원 의식
타니엘라 비 와콜로 장로
- 42 가정에서의 가르침—즐겁고
성스러운 책임
데븐 지 듀란트
- 46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 인봉과 치유
데일 지 렌랜드 장로

신권 총회

- 50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
더클러스 디 흄즈
- 54 소개 말씀
러셀 엠 벨슨 회장
- 55 장로 정원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58 보라! 당당한 군대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 61 영감받은 성역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5 신권의 권능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 68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러셀 엠 벨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75 성령을 여러분의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래리 와이 윌슨 장로
- 78 마음을 같이하여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 81 순수한 사랑: 모든 참된 제자의 징표
마시모 데 페오 장로
- 83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
- 86 그분의 영광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89 작고 단순한 일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 93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러셀 엠 벨슨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97 주님 부활하셨네
게릿 더블유 공 장로
- 98 선지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합니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100 성역
러셀 엠 벨슨 회장
- 101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복돋아 주며”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104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풀
진 비 방업
- 107 보라 이 사람이로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111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제럴드 코세 감독
- 114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쿠엔틴 엘 쿡 장로
- 118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러셀 엠 벨슨 회장
- 7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역원
- 119 2017년 통계 보고서
- 120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21 교회 소식
- 137 와서 나를 따르라—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제188차 연차 대회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오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머빈 비 아놀드 장로
 폐회 기도: 더블유 마크 배셋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앤드루 언스워스, 클레이 크리스챤슨.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63장.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맥 윌버그 편곡. “선지자와 구주의 음성”, 찬송가, 1장, 머피 편곡.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55장.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어린이 노래책, 36장, 머피 편곡. “승리한 나의 구속주”, 75장, 윌버그 편곡.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오후 모임

사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마크 에이 브래그 장로
 폐회 기도: 피터 에프 웨르 장로
 음악: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종교 교육원 연합 합창단. 지휘: 마셜 맥도널드, 리처드 데커,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 보니 굿리프. “선지자의 음성”, 찬송가, 12장, 매튜스 및 굿리프 편곡.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62장, 맥도널드 및 파커 편곡.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메들리, 맥도널드 편곡: “As Zion’s Youth in Latter Days,” *Hymns*, no. 256. “최막대”, 찬송가, 170장,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윌버그 편곡.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저녁 신권 총회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엠 조셉 브로
 폐회 기도: 케이 브렛 내트레스 장로
 음악: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신권 합창단. 지휘: 랜달 캠프튼, 폴 부셀버그, 데이비드 로자노 토레스, 오르간 반주: 브라이언 마티아스, 앤드루 언스워스.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부셀버그 편곡, Sharpe Music Press 인쇄. “사랑 충만한 하늘 아버지여”, 찬송가, 83장, 부셀버그 편곡, Sharpe Music Press 인쇄.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Rise Up, O Men of God,” *Hymns*, no. 324.

2018년 4월 1일 일요일 오전 모임

사회: 러셀 엠 벨슨 회장
 개회 기도: 에스 마크 파머 장로
 폐회 기도: 호아킨 이 코스타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챤슨 및 리처드 엘리엇. “이 즐겁고 기쁜 날에”, 찬송가, 38장. “주님 부활하셨네”, 찬송가, 122장. 윌버그 편곡. “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21장, 호프하인즈 편곡.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주님 다시 부활했네”, 찬송가, 123장. 윌버그 편곡,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

2018년 4월 1일 일요일 오후 모임

사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웨더포드 티 클레이튼 장로
 폐회 기도: 발레리 브이 코르돈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 브라이언 마티아스. “Brightly Beams Our Father’s Mercy,” *Hymns*, no. 335, arr. Murphy. “사랑해 목자의 마음”, 찬송가, 144장, 윌버그 편곡.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윌버그 편곡.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엘리엇 편곡, 잭맨 출판.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온라인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한다. 연차 대회 말씀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차 대회 후 6주 내에 배부 센터에서 영어 동영상과 오디오 녹음집을 구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연차 대회 자료는 disability.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지

앞표지 사진: 레슬리 닐슨
 뒤표지 사진: 코디 벨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사진: 코디 벨, 자네 빙엄, 메이슨 코벌리, 랜디 콜리어, 웨스턴 콜튼, 알레산드라 디아고스티니, 에슬리 라슨, 브라이언 니콜슨, 레슬리 닐슨, 맷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데이브 와드, 마크 와인버그.



2018년 5월호, 제55권 제5호

리아호나 14751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런드, 게렛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부편집자: 켈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보니 에이치 코든, 리그랜드 얼 커티스 이세, 에드워드 듀브, 쉐런 윙뱅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더글러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율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프란시카 울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아 드니스,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튼, 로리 폴러, 게렛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어먼 켄스, 살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키, 잭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나, 민디 셀루, 차켈 워들레이, 머리아 윌슨

편집 인턴: 리아 바턴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코브넨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벤틀러, 시 킴벌 보트, 토마스 차일드, 데이비드 그린, 콜린 윙클러, 에릭 피 존슨, 수안 로프그렌, 스킵 엠 무어, 에밀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게이 니콜 윌러호스트

디자인 인턴: 시오네 이누키하야나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우온

제작 관리자: 제인 엘 피터스

제작팀: 아이라 글렌 에데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케이 날슨, 테렉 리처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드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24호, 제55권, 제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8년 5월 1일(일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에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투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모든 권리 보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y 2018 Vol. 42 No. 5,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연사 색인

게리 이 스티븐슨, 17
게렛 더블유 공, 97
닐 엘 앤더슨, 24
델린 에이치 옥스, 28, 65, 89
더글러스 디 홀츠, 50
데브 지 듀랄트, 4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30
데일 지 렌런드, 46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55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107
래리 와이 윌슨, 75
러셀 엠 넬슨, 54, 68, 93, 100, 118
레리 제이 에코 호크, 15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78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58
린 지 로빈슨, 21
마시모 데 페오, 81
보니 엘 오스카슨, 36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 12
엠 러셀 벨라드, 9
올리세스 소아레스, 98
제럴드 코세, 111
제프리 알 홀런드, 101
진 비 방영, 104
쿠엔틴 엘 쿡, 114
클라우디오 디 지빅, 83
타니엘라 비 외와로, 39
테일러 지 고도이, 34
헨리 비 아이어링, 6, 61, 86

주제 색인

가르침, 17, 42, 50
가정 복음 교육, 100, 101
가정, 42, 111
가족 역사, 36, 46, 114
가족, 42, 65
겉손, 30, 86
경건 공부, 12, 42, 83
계시, 75, 93
교만, 30
교회 부름, 65, 93
교회 조직, 17, 58, 101
구원의 계획, 34, 81
기도, 42, 75, 78, 83, 86, 93
기쁨, 34
단합, 58, 78, 114
멜기세덱 신권, 55, 58, 65
모성, 12
물문경, 12
방문 교육, 100, 101
봉사, 9, 36, 54, 55, 61, 64, 68, 78, 81, 101, 104
부성, 65
부활, 89, 97, 107
부활절, 93, 97, 107
사랑, 54, 78, 81, 86, 100, 101, 104
사망, 107
상호부조회, 100, 104
선교 사업, 114
선지자, 9, 17, 24, 30, 97, 98
선지자를 따름, 17, 24, 58, 98
성공, 21
성신, 75, 86, 93, 98
성약, 39, 83, 97, 111, 118
성역, 54, 55, 58, 61, 68, 78, 86, 100, 101, 104, 111
성전 사업, 36, 46, 114, 118
성전, 97
성찬, 9, 21, 39, 83
성화, 6, 17, 24, 93
속죄, 12, 15, 34, 39, 50, 81, 93, 97, 107
순종, 24, 83, 86, 89
신권 정원화, 54, 55, 58, 61, 104
신권, 65, 68, 100

신성한 본질, 12, 30
신앙, 9, 24, 50, 86, 98, 118
십이사도 정원회, 17, 93
아론 신권, 50
안식일, 9
역경, 107
연차 대회, 118
예수 그리스도, 9, 12, 15, 21, 24, 30, 34, 39, 75, 78, 81, 83, 86, 89, 93, 97, 98, 104, 107, 111
윤유함, 30
용서, 15, 21, 81
은혜, 21
의로움, 114
의식, 39, 46, 50, 97, 114, 118
인내, 83
자녀들, 12, 42
자애, 61
제일회장단, 17, 93
제자 정신, 36, 81, 104, 107, 111, 118
조셉 스미스, 12, 39, 86, 93, 97
준비, 114
책임, 36, 114
청남, 36
청년 참조, 36, 100
청소년, 104
치유, 46
하나님 아버지, 12, 78, 81
함당성, 65, 75
회개, 21, 24, 50, 75, 83, 89, 107
희생, 34



제188차 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이 번 연차 대회는 여러 이유로 역사적인 대회였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가 재조직되었고, 새로운 성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마 가장 큰 기대를 모은 것은 우리 각자가 러셀 엠 넬슨 회장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대 회장으로 지지할 수 있었던 기회였을 것이다.

성회

우리가 일어서서 새로운 선지자와 교회의 회장을 지지했을 때, 손을 든 사람의 수를 기록한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성약으로 하늘에 기록되었다.

연차 대회 동안, 우리는 이 교회가 구주의 교회이며, 그분의 종에 의해 구주가 이끄시는 교회라는 증거를 보았다.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우리 각자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목격했다. 선지자는 우리와 구주의 사이에 서 있지 않고, 그는 우리 곁에 함께 서서 구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 준다. 우리는 “넬슨 회장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개인적인

증거”를 받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 영혼의 닦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기회를 가졌다.

- 2018년 5월호 *리아호나의* 16쪽 분량의 특별 부록을 통해 넬슨 회장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새로운 지도자 지지

넬슨 회장을 지지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일흔 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지지했다.

- 새로운 지역 칠십인을 포함하여 새로 지지받은 지도자의 목록은 6~8쪽, 28~29쪽을 참고한다.
- 새로 부름받은 이들의 약력은 121쪽부터 실려 있다.

정원회의 변화와 성역

연차 대회에서 발표된 변화와 관련하여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말씀했다. 이는 선지자들의 감리로 이루어졌으나, “이 교회를 처음부터 인도해 온 [하나님께 온] 계시의 본보기[입니다.]”

- 정원회를 재조직하는 것에 관한 넬슨 회장,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의 지침을 54쪽부터 읽는다.
- 성역에 관한 넬슨 회장, 홀런드 장로, 진비 빙엄 자매의 가르침은 100쪽부터 실려 있다.
- 이 변화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교수 자료가 132~133쪽의 교회 소식에 실려 있다.

새로운 성전

넬슨 회장은 일곱 곳의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며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리는 휘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주께 나아가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느끼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권유합니다.”

- 일곱 곳의 새로운 성전이 어디에 건축될지는 133쪽에 나와 있다.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진행함
제일회장단 제2보좌



성회

형 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벨슨 회장님께서 저에게 성회 행사를 진행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1880년 10월 10일, 존 테일러가 브리검 영의 뒤를 이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은 이래로, 이러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교회 전체의 공식적인 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원회와 그룹별로 지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일어서서 호명받는 분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어서 달라고 부탁받을 때에만 지지해야 합니다.

템플스퀘어의 태버나클과 어셈블리 홀에 지명받아 있는 총관리 역원들은 그곳에 모인 분들의 지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각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 지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반대를 표하신 개인들은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회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어서 달라고 부탁받을

때에만 지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제일회장단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매리온 벨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일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일회장단 일원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델린 해리스 옥스를 교회의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일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일회장단 일원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맬린 해리스 옥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멜빈 러셀 벨라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일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일회장단 일원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윌터 공, 그리고 율리세스 소아레스를 지지할 것을 제일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일회장단 일원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일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일회장단 일원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일회장단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 장로님과 소아레스 장로님은 자리에 올라오셔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분들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 장로님과 소아레스 장로님을 포함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매리온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제일회장단에 의해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십이사도 정원회에 제의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칠십인 총관리 역원들, 그리고 감리 감독단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매리온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제일회장단에 의해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모든 칠십인 총관리 역원들과 감리 감독단에 제의합니다.



칠십인 총관리 역원 및 감리 감독단 일원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지역 칠십인, 성임받은 축복사, 대제사 및 장로들은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에서 참석하고 계시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러셀 매리온 벨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상호부조회 회원들, 즉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매리온 벨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 즉 성임받은 모든 제사, 교사, 그리고 집사 여러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매리온 벨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청년들, 즉 만 12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은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매리온 벨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모여 있든, 앞서 일어서신 모든 분을 포함하여 전체 회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러셀 매리온 벨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최소한의 참된 신앙을 행사할 때, 인생은 신앙, 기쁨, 행복, 소망,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성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의식의 기원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기리던 성경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¹ 우리는 이 고대의 의식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시대에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² 여러분이 가장 성스러운 이 행사에 참여하며 느낀 것을 개인 일지에 기록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요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그리워하면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감리하도록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을 새로운 선지자로 부르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교회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손을 들어 벨슨 회장님을 지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 벨슨 회장님이 몬슨 회장님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받는 벨슨 회장님의 음성에서 귀 기울이겠다고 손을 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교회 회장]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³

저는 우리의 새로운 선지자이신 벨슨 회장님을 60년이 넘도록 알고 지냈으며 그분과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33년간 봉사했습니다. 저는 벨슨 회장님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지상에 있는 거룩한 신권의 모든 열쇠를 관리하는 우리의 감리 사도이자 선지자가 되도록 준비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각자가 벨슨 회장님과 그분의 두 보좌를 완전히 지지하고 그분들의 인도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신 공 장로님과 소아레스 장로님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주말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⁴ 이 일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러한 종들은 완전하지 않은 남녀들로서 그분들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성과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훌륭한 아들과 딸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최선을 다하려고 힘써 노력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돕고 지지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는 신앙,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되고 진실한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겨자 농장을 지날 때 BYU 예루살렘 센터의 책임자가 제게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가 겨자 농장에서 씨를 가져와 보여 주었습니다. 그 씨는 놀랄 만큼 작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⁵

우리에게 겨자씨만 한 신앙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가족과 교회 회원은 물론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닌 이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봉사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을 수행할 때 낙담과 의심이라는 산을 옮기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최소한의 참된 신앙, 곧 겨자씨만 한 신앙을 행사할 때 인생은 신앙, 기쁨, 행복, 소망,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자신에게 전한 다음과 같은 권고를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는

내게 닥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노바스코샤의 탄광에서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혹은 온 로키산맥이 나를 뒤덮을지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낙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주님께 매달려 신앙을 행사하고 큰 용기를 가지고 산의 꼭대기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⁶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⁷ 이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들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성찬, 다른 사람에게 하는 봉사, 그리고 우리 구주라는 비할 데 없는 선물이 그 몇 가지 예입니다.

안식일의 힘은 교회와 가정에서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따스함을 맛보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스마트 기기와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얼굴을 비추는 화면과, 고요하고 세미한 영의 음성을 차단하는 이어폰과 더불어 생활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이러한 전자 기기와의 연결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⁸ 주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현대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식에서 성찬을 드는 축복은 결코 판에 박힌 일상이 되거나 우리가 그저 하는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삶에서 더 많은 평화와 기쁨,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성찬식 시간은 일주일에 단지 70분에 불과합니다.

성찬을 취하며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분께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분의 속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봉사하는 특권은 서로 봉사함으로써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모범을 따를 또다른 기회입니다.

어떠한 봉사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 부름에서, 또는 지역 사회 봉사 단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공식적인 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 회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이 원한다면, 거주 지역에서 공직 출마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의 고하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늘날 꼭 필요하며, 우리가 속한 학교와 도시, 그리고 국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훌륭한 남녀에게 투표하는 것이 회원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비공식적으로 또는 특별히 지명받지 않은 채 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 그런 기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며,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율법교사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⁹

봉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는 경전 속

가르침처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즉, 봉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¹⁰

베드로가 예수님을 묘사한 다음 여섯 단어는 구주의 지상 성역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일 것입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¹¹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¹²

니파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 구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¹³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그분의 이름이 일컬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며, 확인받고, 성임되며, 엔다우먼트를 받고, 인봉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며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 기도에서 “항상 그를 기억하”도록 합니다.¹⁴

내일 부활절 일요일을 준비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지고하신 분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자, 우리의 충실한 변호자이시며, 우리의 축복받은 구속주이자, 선한 목자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요, 참된 친구이십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 마음 쓸 사항, 수행할 임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으로서 항상 우리 활동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즉 충실하라. 내가 너를

임명한 그 직분을 수행하라.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¹⁵

이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현세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고무하고, 강화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을 방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의 간증이 가슴속에 뿌리내리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¹⁶

우리가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알고, 복음에 관한 그들의 질문과 관심사에 기꺼이 분명하고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이 연차 대회에서 사도와 선지자, 총관리 역원 및 교회의 본부 역원 자매들로부터 영감으로 가르침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

주

1. See *Encyclopedia of Mormonism* (1992), “Solemn Assemblies,” 3:1390–91.
2. 교리와 성약 88:70 참조.
3. 교리와 성약 21:4~5.
4. 요한복음 20:21; 강조체 추가.
5. 마태복음 17:20.
6. 조지 에이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35쪽.
7. 빌립보서 4:13.
8. 시편 46:10.
9. 누가복음 10:25~37 참조.
10. 마태복음 20:28.
11. 사도행전 10:38.
12. 요한복음 14:6.
13. 니파이후서 25:26.
14. 교리와 성약 20:77, 79.
15. 교리와 성약 81:5; 강조체 추가.
16. 야고보서 1:27 참조.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최 근 저는 어린 시절에 다녔던 돌로 지은 오래된 교회에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수십 년 전에 참석했던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이끌려 교실 뒤로 들어선 저는, 배려심 많은 교사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해의 주제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¹ 저는 인내심과 사랑이 많았던 저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옛날, 노래 부르는 시간에 긴 의자 끝에 앉은 천방지축 꼬마였던 저를 바라보며, 그분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애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누가 이 아이를 여기로 보냈을까?”²

저는 우리들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는]” 성신에게 마음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³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간결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왕의 가문, 즉 하늘 왕의 자손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가계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쓰여 있든, 어떤 민족을 여러분이

대표하든, 여러분의 영의 가계는 하나의 계통으로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⁴

브리검 영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 우리의 아버지를 보면, 그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 왔던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두 팔로 맞이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에게 입맞출 것입니다.”⁵

신성한 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전쟁

모세는 주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며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 후, 모세의 정체성을 왜곡하려는 교묘하고 악랄한 의도로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하여 이르되,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 모세가 사탄을 보고 이르되,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요.”⁶

신성한 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이 전쟁은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끝없이 무기고를 확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파괴하려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시련과 이해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⁷ 또 그분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선언합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⁸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면,⁹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곤경과 고난을 이겨 낼 힘을 얻습니다.¹⁰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주님의 사도 한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가르쳐 주십시오.”¹¹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지식”

이 강력한 진리는, 십 대였을 때 큰 자동차 사고를 낸 제 친구 쟈¹²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쟈의 고통이 더욱 극심했던 이유는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쟈이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가 어머니를 잃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일어서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라고 암송했던 켄은¹³,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켄이 말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지나갔지만 정서적, 영적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켄더 내기 위해서 켄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감추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무신경해졌습니다. 일 년이 흐른 후, 마침내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느 영감 받은 상담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구를 날마다 열 번씩 쓰고 말하라고 켄에게 권했습니다.

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말을 쓰는 것은 쉬웠지만 소리 내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 말하면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두길 원하신다는 걸 믿지 않았거든요. 몸을 웅크리고 울곤 했어요.”

여러 달 후, 켄은 마침내 그 과제를 매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영혼을 모두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 그러자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구주께서 그녀의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경은 주님의 속죄 안에서 얻는 위안과 용기를 가져왔습니다.¹⁴

켄은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고통과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느꼈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은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함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¹⁵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관해 더 알고자 노력할 때 강력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¹⁶

구주를 배우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도록 해 줍니다. “그 [아버지의] 형상이[신]”¹⁷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¹⁸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그분은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냅니다.¹⁹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입에서 고뇌의 외침이 나오면 ... 순간에 그리스도는 그분이 늘 찾았던 그분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바’, 즉 ‘아빠’라고 외치셨습니다.”²⁰

예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아버지를 찾으신 것처럼, 어린 조셉 스미스는 1820년에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하나님께 구하라”²¹는 말씀을 읽은 조셉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다. ...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조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²²

우리가 구주와 선지자 조셉의 모범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켄이 그러했듯이,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²³를 키우려 힘쓰는 동안 종종 중압감을 느끼는 어머니들, 특히 젊은 어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중심적인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괴로운 순간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을 쫓아다니다가 부엌에서 나는 탄 냄새를 맡고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가 번제물이 돼 버린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힘겨운 날들을 성결하게 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²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평온한 확신을 주십니다.²⁵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조이 디 존스 자매님의 소망을 실현하시는 여러분께 우리는 경의를 표합니다.²⁶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권유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물몬경보다 더 분명하고 힘있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²⁷ 물몬경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며”²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 내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으로 가득하시며”²⁹,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함]”을 배우십시오.³⁰ 여러분이 상처 입고, 길을 잃고, 겁에 질리고, 화가 나고, 슬프고, 배고플 때, 혹은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에 절망적으로 버려진 기분이 들 때³¹, 물몬경을 펼쳐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그러지 않으셨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³²

우리의 아버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영을 통해, 우리가 진정 누구이며, 하나님의 눈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할 것입니다.³³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고, 경전을 탐구하고, 순종하며 노력하여 그분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약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위대함—나의 간증

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자³⁴ “전능한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³⁵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우시며, 인내로써 우리의 불의를 훈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 …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려고]” 노력할 때 기뻐하십니다.³⁶ 저는 언제나 “고아의 아버지”이시며³⁷ 동반자 없는 사람에게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그분의 온전함과 유덕함과 “위대한 성품”을 증거합니다.³⁸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⁴⁰ 알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고귀한 생득권”을³⁹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

주

- 2018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lds.org/manual/primary 참조.
-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참조.
- 로마서 8:16.
- 보이드 케이 패커, “청녀 청남에게”,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69쪽.
- Brigham Young, “Remarks,” *Deseret News*, Oct. 1, 1856, 235.
- 모세서 1:12~13, 강조체 추가.
- 창세기 1:26.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 조셀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아는 것은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 (from the King Follett sermon, Apr. 7, 1844; in *History of the Church*, 6:305)
- 앨마서 36:3, 27 참조.
- Russell M. Nelson, in Tad R. Callister, “Our Identity and Our Destiny”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Aug. 14, 2012), speeches.byu.edu.
- 가명
- “청녀 주제”,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2009), 3쪽, PersonalProgress.lds.org.
- 니파이후서 2장: 6~9장; 모사이야서 2~5장: 14~16장; 앨마서 7장: 34장; 39~42장; 힐라맨서 14장; 제3니파이 11장; 모로나이 7장 참조.
- 선지자 조셀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셀 스미스*[2007], 40쪽)
- 러셀 엠 넬슨, “물몬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61쪽.
- 히브리서 1:3.
- 요한복음 5:19.
- 제프리 알 홀런드, “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73쪽.
- 제프리 알 홀런드, “아버지의 손길”, 성도의 벗,

1999년 7월호, 19쪽, 번역 수정.

- 야고보서 1:5.
- 조셀 스미스—역사 1:15~17.
- 러셀 엠 넬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7쪽.
-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4절 참조.
- 이사야 41:10.
- Joy D. Jones, in Marianne Holman Prescott, “2018 Primary Theme ‘I Am a Child of God’ Teaches Children Their Divine Identity,” *Church News* section of LDS.org, Jan. 5, 2018, news.lds.org.
- 러셀 엠 넬슨, “물몬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61쪽.
- 힐라맨서 12:2; 또한 니파이후서 26:24 참조.
- Lectures on Faith* (1985), 42.
- 니파이후서 26:33.
- 저는 대평원을 횡단한 어느 나이 많은 개척자의 이 감동적인 간증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많은 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우리 부대의 생존자 중 어느 누구라도 교회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배도를 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절대적인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닥친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in David O. McKay, “Pioneer Women,”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48, 8)
- George Q. Cannon, “Remarks,” *Deseret Evening News*, Mar. 7, 1891, 4.
- 교리와 성약 18:10 참조.
- 사도행전 5:30; 22:14; “전능하신 조상의 하나님”, 찬송가, 51장 참조.
- 모세서 1:3; 요한계시록 15:3; 21:22~23; 제3니파이 4:32; 교리와 성약 109:77; 121:4 참조.
- 앨마서 22:18.
- 시편 68:5; 또한 야고보서 1:27 참조.
- Lectures on Faith* (1985), 42.
- “Carry On,” *Hymns*, no. 255.
- 요한복음 17:3.



래리 제이 에코 호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모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구주와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웃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¹

내일은 부활절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다음과 같은 업적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² 그분께서 부활하셨듯이 마침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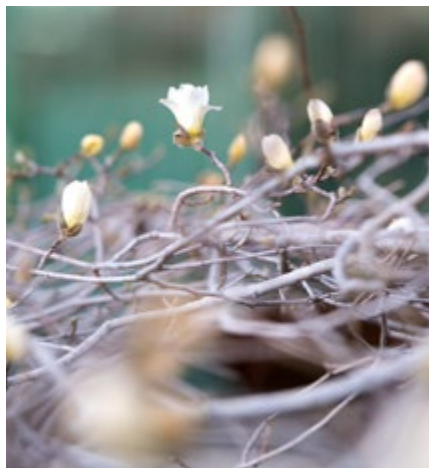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속죄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지은 죄와 그릇된 행실에
대해 용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의식을 받고, 성약을 지키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영생과 승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중요하고도 값진 은사인 용서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2년 12월의 어느 날 밤, 저는 아내
테리와 아이다호주 포카텔로에 있던 저희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을 깬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누님이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미가 죽었다.”

술에 취한 20세 남성 운전자가 시속
135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정지등을 무시한
채 콜로라도주 덴버의 외곽 지역을 무모하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막내 동생
토미가 운전하던 차를 처참히 들이받았고,
동생과 그의 아내 조앤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 파티를
마치고 어린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황급히 덴버행 비행기를
타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함께 사랑하는 토미와 조앤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무분별한 범죄
행위 때문에 그들은 사망했습니다. 저희
가슴은 무너져내렸고, 제 마음속에는 그
젊은 범죄자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는 미국 법무부에서 법조인으로
근무했었고 향후 아메리칸 인디언의 토지
및 천연자원 보호를 강력히 옹호하고자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차량 과실
치사 혐의를 받은 그 젊은이의 법정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부모님과 큰누님
케이티가 비통함과 슬픔에 잠긴 채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음주 운전자의 부모님도
그 곳에 있었는데, 공판이 끝난 후 의자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누님은 그들이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근처에 앉아 계셨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과
누님이 일어나 그 운전자의 부모님에게
다가가 위안과 용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들은 악수를 나누었고, 여자들은 손을
부어잡았습니다. 깊은 슬픔으로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두 가족은 모두 각자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케이티는 드러나지
않는 힘과 용기로 그 길을 헤쳐 나갔으며,
저희 가족에게 용서란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베푼 용서로 인해 저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치유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용서하는 마음을 지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직 평강의 왕만이 고통스런 제
짐을 털어 낼 도움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토미와 조앤이 늘 그립겠지만, 용서 덕분에 저는 이제 한없는 기쁨 가운데 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족으로서 다시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법 행위를 용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이 스스로 범한 형사상의 범죄 행위 및 민사상의 범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 또한 압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일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³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모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구주와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리 삶에는 명백하고도 결코 잊히지 않는 방식으로 구주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⁴

주님 스스로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⁵

우리의 구속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죄인이 용서받기 원한다면 그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⁶

형제 자매 여러분, 혹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 정도의 원통하고 분한 감정은 충분히 가질 만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용서하고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든 분들에게 온전히 용서하고 내면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오늘 당장은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용서하기를 소망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면, 제가 동생의 죽음 이후에

마침내 그랬듯이 용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⁷

저는 오늘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고 따르도록 간청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던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⁸

용서의 영을 지니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저희 부모님과 누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구주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약속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⁹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면, 구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이며, 그분의 권세와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약속드립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는 강화해 주는 권세로 만물을 치유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24:1~6.
2. 요한복음 3:16.
3. 마태복음 6:14~15.
4. 골로새서 3:12~13, 강조체 추가.
5. 교리와 성약 64:9~10.
6. See James E. Talmage, *The Articles of Faith*, 12th ed. (1924), 110.
7. 교리와 성약 58:42.
8. 누가복음 23:34.
9. 요한복음 14:27.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의회

선지자의 마음

주님의 선지자가 그 자리에 계시고, 주님의 사업이 그분께서 제시하신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모임에서 성신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경륜의 시대의 열일곱 번째 선지자가 성회에서 지지받는, 참으로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인도를 구하던 중, 최근에 부름받으신 제일회장단과 얼마 전에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두 보좌 중 한 분이 대략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이 우리의 새로운 선지자인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부름이 갖는 중대한 의미와, 연차 대회에서 있을 성회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이어서 “그간 10년이 흘렀고, 많은 이들, 특히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런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번이 처음”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최초로 기억하는 선지자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열네 살이었습니다. 부고를 듣고 느꼈던 상실감과 제 어머니의 눈에 어렸던 눈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느꼈던 슬픔이 기억납니다. 평소 기도하는 중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곤 했습니다. 맥케이 회장님 이후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제 마음과 머리가 똑같은 감정과 확신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부모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듯, 저는 맥케이 회장님의 후임자였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에 대한 사랑과 유대감과 간증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 즉 해롤드 비 리, 스펜서 더블유 김볼, 에스라 테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유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현재의 러셀 엠 넬슨 회장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선지자들을 고양된 마음으로 손을 들어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역대 회장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살아 있는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그를 지지할 때 오는 기쁨과 희망은 우리의 슬픔을 완화시킵니다. 새로운 선지자를 지지하는 것은 회복이 가져온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지난 90여 일간 있었던 이 거룩한 과정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첫째, 선지자의 임종과 제일회장단의 해체, 둘째, 새로운 제일회장단의 구성을 기다리는 시간, 셋째, 새로운 선지자의 부름, 그리고 넷째는 새로운 선지자와 제일회장단을 성회에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임종

2018년 1월 2일,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휘장 너머로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계실 겁니다. 몬슨 회장님이 서거하신 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이 쓰신 다음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구주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개인을 향한 그분의 관심은 그분의 생애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¹

스펜서 터블유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별 하나가 지평선 너머로 가면 다른 별이 나타나며, 죽음은 생명을 불러옵니다.

주님의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다 하더라도, 친절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에 지속성과 영속성을 부여하신 덕분에 단 한 순간도 지도력의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 이전에도 ... 이미 그러했듯, 백성들은 경건하게 무덤 문을 닫고, 눈물을 거두고, 미래를 바라봅니다.”²

사도 통치 기간

선지자가 서거한 후 제일회장단이 새로 조직되기까지의 기간을 “사도 통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는 정원회 회장의 인도 아래

교회의 지도력을 관리하는 열쇠를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머리가 있으며, 만일 교회의 제일회장단이 사망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 다시 제일회장단이 조직될 때까지 교회의 그 다음 머리는 십이사도에게 있습니다.”³

가장 최근의 사도 통치 기간은 몬슨 회장님이 서거하셨던 1월 2일부터 12일 후인 1월 14일까지였습니다. 그 안식일 아침에 십이사도 정원회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위층 방에서 기도와 금식의 영으로 모였으며, 이를 감리하고 이끄신 분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자 선임 사도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었습니다.

새로운 선지자의 부름

이 거룩하고 기억에 남을 모임에서, 반원형으로 놓인 열세 개의 의자에 선임사도 순으로 앉은 사도들은 만장일치의 전통에 따라 먼저 제일회장단의 조직을 지지하고, 그다음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했습니다. 지지가 끝난 후 십이사도 정원회는 함께 원으로 둘러서서 그들의 손을 넬슨 회장님의 머리에 얹고, 그분을 성임하고 성별했으며, 그 기도는 차기 서열 사도가 맡으셨습니다.

곧이어 넬슨 회장님은 델린 해리스 옥스 회장님과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 회장님을 그분의 보좌로 부르셨고,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에 옥스 회장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로버트 러셀 뵈라드 회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이 형제님들은 유사한 지지 절차를 거쳐 넬슨 회장님에 의해 각각의 부름에 성별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거룩한 경험이었으며 영이 강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였던 주님의 뜻이 강력하게 나타났음을 여러분께 전적으로 증명합니다.

넬슨 회장님의 성임과 제일회장단의 재조직과 함께 사도 통치 기간이 끝났으며, 새로 조직된 제일회장단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을 다스림에 있어 놀라게도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회

교리와 성약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일은 질서 있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신앙의 기도로써 행해져야 [하며],⁴ “세 사람의 감리 대제사가 ...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제일회장단 정원회를 구성”⁵하라는 경전의 지시에 따라, 오늘 아침 이 거룩한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은 오늘

우리가 참여한 것과 같은 과거의 성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성스러운 행사인, 하늘의 절차에 따라 행하는 성회에 함께하는 증인이자 참여자입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영이 쏟아지는 축복을 받고자 많은 금식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이 행사를 하는 이곳에 바로 그 영이 넘치도록 가득합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성회는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성도들이 모이는 성스럽고, 진지하며, 경건한 모임입니다.”⁶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대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자리에 계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이 그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나아가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거룩하게 제정된 이 절차를 통해 또 한 명의 선지자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몬슨 회장이 지상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었다면 넬슨 회장님도 그러하십니다. 주님께서 넬슨 회장님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구체적으로 친히 가르치셔서 이 시기에 우리를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 우리의 선지자이며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제17대 교회 회장인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던 그분과 2년여의 시간 동안 정원회에서 함께 일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여행하다 보면 그분의 체력에 놀라게 됩니다. 그분과 속도를 맞추려면 정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회장님은 일생 동안 총 133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아시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모든 사람은 그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진실한 사랑과 관심은 모든 사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넬슨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주로 교회의 직분 때문이지만, 저는 그분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으시기 전까지 전문가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듯, 넬슨 회장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심장외과 의사였고, 젊은 시절 인공 심폐장치를 개발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한 분입니다. 넬슨 회장은 1951년 심장 폐우회술을 사용하여 최초의 심장절개수술을 가능하게 한 연구팀에서 일하셨습니다. 넬슨 회장은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이

선지자로 부름받으시기 얼마 전에 그분의 심장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34년 전 넬슨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으셨을 때 심장을 보강하고 고치는 전문의라는 그분의 직업은 끝났지만, 지혜와 봉사와 사랑의 말씀과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고양하고 치유하는 사도로서의 성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저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떠올릴 때면 넬슨 회장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특징을 넬슨 회장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보여 주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발현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저는 놀라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넬슨 회장님이 과거에 의사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 수술의 선구자로서의 넬슨 회장님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장에 들어간 저는 여러 해 전에 넬슨 회장님이 의학박사이자 외과외사로서 하신 일을 기리기 위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전문가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넬슨 회장님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셨는지에 대해 존경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각각의 연사들이 넬슨 회장님의 다양한 업적에 관해 묘사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저에게 더 특별했던 것은 제 옆자리에 앉은 분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몰랐지만 넬슨 회장님을 넬슨 박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55년 당시에 넬슨 박사님은 의과대학의 흉부외과 수련 과정을 담당하는 학과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넬슨 회장님의 옛 제자였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분이 묘사한 넬슨 회장님의 수업 방식이었는데, 그는 당시 그 수업 방식이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외과 수련의들의 수업은 대부분 수술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수련의들은 교수의 감독하에 수술을 참관하고, 또 직접 수술에 참여했습니다. 그분은 수술실이라는 환경이 교수에 따라서는 혼란스럽고, 경쟁적이고, 고압적이며, 심지어 이기적인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환경이 힘들었고, 때로는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과 수련의들은 의과 과정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다음 그분은 넬슨 회장님의 수술실에서 느낀 독특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차분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넬슨 박사님은 수련의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술 절차를 시연하고 나면, 각 수련의들에게 최고 수준의 기량을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넬슨 박사님의 수술실에서 최상의 수술 결과가 나오고, 최고의 외과외사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으면서 직접 관찰하고, 축복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분의 “수련의” 중 한 명으로 훈련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긍정적이고, 존중하며, 고양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가르치고 잘못된 수정하도록 하는 일에 독보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전형이며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부합하게 할 수 있음을 그분에게서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지지하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학생, 아버지, 교수, 남편, 의사, 신권 지도자, 할아버지, 그리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영화롭게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성취해 오셨고, 앞으로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참여한 이 성회의 절차에 뒤이어, 저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살아 있는 대변자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을 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Henry B. Eyring, in Marianne Holman Prescott, "Apostles Share Thoughts about President Thomas S. Monson on Social Media," *Church News* section of LDS.org, Jan. 12, 2018, news.lds.org.
2. Spencer W. Kimball,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118.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223~224쪽.
4. 교리와 성약 28:13.
5. 교리와 성약 107:22.
6. 데이비드 비 헤이트, "성회",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14쪽.



린 지 로빈스 장로
철십인 회장단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우리는 걸림돌과 결점투성이의 삶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살 다 보면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려면 수천 번, 아니 백만 번 정도의 실수는 각오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수천 번, 아니 백만 번 정도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도 실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겪어 나가는 것이다.”¹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 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천 번의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한 것이다.”² 찰스 에프 케터링은 실패를 “성취를 향하는 길에 있는 방향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³ 우리의 실수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로운 교훈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니파이는 불굴의 신앙이 있었기에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놋쇠판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열 번의 시도 끝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니파이와 모세가 주님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면, 왜 주님이 처음부터 나서서 그들이 한 번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성공하려고 애쓰는 그들이나 우리가 온갖 고생을 하며 실패를 겪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 중요한 답변이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 첫째,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될” 것임을 아십니다.⁴
- 둘째, 우리가 “쓴 것을 맛보”고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⁵

- 셋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⁶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만 그분의 일을 성취하고 그분처럼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⁷
- 넷째, 우리가 “반대되는 것”과⁸ “고난의 풀무 불”을⁹ 통해서만 단련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연마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걸림돌과 결점투성이의 삶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1970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저는 저명한 제이 발리프 교수님이 가르치는 물리학 개론을 수강했습니다. 교수님은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실시했는데, 만약 시험 점수로 C를 받은 어떤 학생이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한다면, 발리프 교수는 동일한 시험 범위에 대해 새로운 문제로 그 학생에게 재시험을 치게 해 주셨습니다. 재시험에서 B를 받았는데 성적을 더 올리고 싶어 한다면, 교수는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계속해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회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적이 점점 좋아졌고 결국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실패를 비극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계속 노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물리학 개론을 듣고 47년이 지난 얼마 전에 저는 이 훌륭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올릴 기회를 무제한으로 주셨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 편이 되고 싶었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지식이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해합니다. 하물며 부족한 마음 상태나 죄까지 이겨 내도록

우리에게 거듭 기회를 주시는 구주의 은혜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성공을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시험을 치를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분처럼 되려면, 육으로 난 인간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수없이 필요합니다. 욕구를 조절하고, 인내와 용서를 배우고, 계으름을 이겨 내고, 의무를 다하는 것 등이 그런 예입니다. 실수가 인간적 본성이라면, 그런 인간적 본성을 신성으로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쳐야 할까요? 수천 번일까요? 아마 백만 번이 맞을 것입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에는 여기저기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패를 겪는다는 사실을 아시는 구주께서는 우리가 지상의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많은 기회를 주시려고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허용하시는 그런 반대는 종종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희망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난관에 직면할 때 계속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곁에는 늘 구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주의 은혜란 “남자와 여자가 …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행한 이후에 영생 및 승영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 신성한 도움 또는 힘”입니다.¹⁰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득한 눈은 우리의 여정 내내 함께하며 영감을 주고, 짐을 가볍게 하고, 힘을 주고, 구해 주고, 보호하고, 치유하며,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비틀거리는 “자기 백성을” 돕습니다.¹¹

회개는 늘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겪어 나가게 해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회개라는 대체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음이며, 이에 관해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평생 배워야 하는 교과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¹²

회개라는 평생의 교과 과정에서, 성찬은 주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을 취한다면, 우리가 성약의 길에서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 전진할 때 주님께서 매주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심정은 [우리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¹³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실까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얼마나 같까요? 한번은 베드로가 구주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니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니까.”¹⁴

아마도 베드로는 너무 많이 용서하는 어리석음을 강조하기에는 일곱 번이 충분한 숫자였고, 자비심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실상 베드로에게 세지도 말라고, 즉 용서에는 한계를 두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¹⁵

분명히, 구주께서는 한계를 490번으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찬을 취할 수 있는 한계가 490번이어서, 491번째부터는 하늘에서 감시자가 나타나 “미안하지만, 당신의 회개 카드는 방금 만료되었으니, 이제는 당신 혼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무한한 속죄, 한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참으로 또한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하리라.”¹⁶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 죄에 대한 허가증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모로나이서에 이런 구절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용서를 얻었느니라.”¹⁷

“진정으로”라는 말에는 실제적인 노력과 실제적인 변화가 포함됩니다. 경전 안내서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 그리고 삶의 전반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가져오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¹⁸ 여기서 핵심 낱말은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 후에는 영적인 성장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실패를 겪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겪어 나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 명백한 진리는 너무 당연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이 주신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¹⁹

우리가 구주와 같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를 바라기에²⁰,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에 관해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²¹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이나 성장 도표를 보면 우리의 신체적 성장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서는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발전을 인식하고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²²

하늘 부모님과 구주의 사랑 충만한 친절과 인내, 오래 참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하늘 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 인용문은 에이브러햄 링컨과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말했다.
2. Thomas Edison, in Zorian Rotenberg, “To Succeed, You Must Fail, and Fail More,” Nov. 13, 2013, insightsquared.com.
3. Charles F. Kettering, in Thomas Alvin Boyd, *Charles F. Kettering: A Biography* (1957), 40. 또한 시 에스 루이스가 이 인용문의 저자로 언급되는 경우도 많다.
4. 교리와 성약 122:7. 심지어 구주께서도 “반오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8) 이런 성구는 우리의 환경이나 불운한 상황에서 오는 환난 및 고통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배우기만 한다면 실수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5. 모세서 6:55.
6. 사무엘상 17:47; 또한 니파이전서 3:29 참조.
7. 야곱서 4:7 참조.
8. 니파이후서 2:11 참조.
9. 이사야 48:10; 니파이전서 20:10.
10. 경전 안내서, “은혜”; 강조체 추가.
11. 앨마서 7:12.
12. Russell M. Nelson, in Dallin H. Oaks and Neil L. Andersen, “Repentance” (address given at the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June 26, 2015), 11.
13. 교리와 성약 101:9.
14. 마태복음 18:21.
15. 마태복음 18:22.
16. 모사이야서 26:30; 강조체 추가.
17. 모로나이서 6:8; 강조체 추가
18. 경전 안내서, “회개하다, 회개”, scriptures.lds.org.
19. Boyd K. Packer, Kingsland Georgia Stake conference, Aug. 1997.
20. 제3니파이 27:27 참조.
21. 고린도후서 12:9; 또한 이더서 12:27 참조.
22. 니파이후서 31:20.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는 여러분과 구주 사이에 서지 않습니다. 그보다, 여러분 곁에 함께 서서 구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 줍니다.

게릿 공 장로님과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 두터운 형제애로 하나 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셀 엠 벨슨 회장님을 주님의 선지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했을 때, 우리는 신성하게 선포된 성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회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늘에서 고대해 온 행사이기에 더 엄숙합니다. 당신의 사업을 지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아이어링 회장님을 통해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성약의 백성인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하지 않고 계신 수백만 명의 회원 여러분, 벨슨 회장님을 지지하는 동안 이곳에 주님의 영이 임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바와 같이 충만한 영적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인도를 받는 집회는 이 컨퍼런스 센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에 있는 집회소에서, 중남미와 유럽의 가정에서, 태평양과 여러 섬의 마당에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느 지역에 계시든, 심지어 스마트폰을 통해 듣는 것이 유일한 참여 방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 각 감독님이 그 수를 세지는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분명히 그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약으로서 주목하며 생명책에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택하신다

선지자를 택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선거 운동이나 논쟁, 자신을 내세우려는 가식적인 행동, 불화, 불신, 혼동, 소란도 없습니다. 저희가 성전 위층 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벨슨 회장님을 등글게 예워쥘 때,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으며, 주님께서 그분을 승인하신다는 절대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 또한 확실히 증거합니다.

벨슨 회장님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봉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다음 말씀은 벨슨 회장님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¹ 3년 전만 해도 당시 90세였던 벨슨 장로님은 선임 순서상 네 번째 서열이었으며, 세 명의 선임 사도 중 두 명은 벨슨 장로님보다 나이가 더 어렸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선택하십니다. 현재 93세이신 벨슨 회장님은 매우 건강하십니다. 저희는 회장님께서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스키장에 가시는 일을 이제 자제하시도록 그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로서 지지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시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그분들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 덕분입니다.²

왜 우리는 선지자를 따르는가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이 보내시는



프랑스 카르카손



벨슨 회장과 그의 118번째 증손주.

종들에 관해 한 가지 중요한 진리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³

주님의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구주에 대해 가르치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러셀 엠 벨슨 회장을 따라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분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분은 22세에 의사가 된, 존경받는 심장외과 전문의였으며, 심장 절개술의 발전에 공헌한 저명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판단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은 90여 년의 세월 동안 삶과 죽음에 관해 배우며, 지구촌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며 이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명의 자녀와 57명의 손주, 118명의 증손주를 두었기에 원숙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마지막 숫자는 자주 바뀝니다. 지난 수요일 증손주가 또 한 명 태어났습니다.)

벨슨 회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신앙과 용기로 인생의 역경에 대처하신 것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딸 에밀리가 37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다섯 명의 어린

자녀들을 남겨 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벨슨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이고 의사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⁴

망대 위의 파수꾼

우리는 이런 고귀한 자질을 모두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벨슨 회장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왜 선지자를 따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부르셨고, 그분을 망대 위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카르카손이라는 웅장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중세 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벽 위로 높이 솟은 망대는 파수꾼들이 밤낮으로 그 위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적군의 침입을 살피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고의 음성을 높였을 때, 카르카손 주민들은 자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시다.

선지자는 망대 위의 파수꾼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이다.”⁵

선지자를 따를 필요성에 대해 종종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지우시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지 …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⁶

더 큰 개인적 간증

우리가 베드로나 모세 시대에 살았다더라면 그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처럼 우리는 벨슨 회장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⁷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이 “[주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⁸ 말씀이라는 신앙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맹목적인 신앙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전 모임에서 자기 뜻과 선택에 따라 손을 들어,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주님의 선지자를 지지하고 그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벨슨 회장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개인적인 증거를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제 아내 캐시는 거의 30년간 개인적으로 벨슨 회장님을 알고 지냈으며 그분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의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별을 받자마자 아내는 지난 34년간 벨슨 회장님이 하신 모든 연차 대회 말씀을 읽으며 그분이 받은 선지자 부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겸손하고 합당하게 이와 같은 더 큰 확신을 구할 때 그것을 얻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기꺼이 따르는 것일까요? 부지런히 영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선지자의 음성은 격변의 시대에 필요한 영적 안전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넘쳐 나는 오락거리는 모두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고 자기 표준을 채택하라며 우리의 관심에 호소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끝없이 줄지어 선 듯한 정보와 견해의 행렬은 “풍조에 밀려”¹⁰ “요동하[며]”¹¹ “속이고자 기다리는” 자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전상의 경고를 상기시켜 줍니다.¹²

우리 영혼의 닳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보내시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얼어붙듯 추운 날에 위안을 주는 따뜻한 담요를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성, 토론, 논쟁, 논리, 설명을 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국면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건실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인도할 지적인 힘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이따금 아무런 설명 없이 오기도 합니다.¹³ 예를 들어, 학계에서

불륜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오래전부터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¹⁴ 우리는 지성뿐만 아니라, 성신의 은사도 소중히 여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선지자의 음성은 변화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친절한 음성으로 요청하기도 할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는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는 경고의 음성이 오늘날의 여론을 역행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성난 불신자들은 언제나 선지자가 말씀을 시작하는 순간에 조롱의 불덩이를 퍼붓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권고를 겸손하게 따를 때 안전과 평안의 축복이 더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혹 여러분의 관점이 주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가르침과 즉시 조화를 이루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서 배움을 얻고 겸손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명확한 영적 이해를 얻게 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한 선지자는 구주라는 비할 데 없는 선물은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된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¹⁵ 사실, 우리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지나치게 분석하며 어떤 것이 선지자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개인적인 의견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2년 전인 1982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말씀할 때는 언제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라는 의문을 결코 갖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저의 [철학은] 선지자의 말씀에 물음표 찍기를 그만두고 대신에 느낌표를 넣는

것입니다.”¹⁶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영적인 사람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세운 방법입니다. 36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주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을 키움

제 삶에서,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저의 뜻을 신중하게 그분의 영감 어린 가르침에 맞출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항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¹⁷ 우리가 그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의 관점은 흐려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결연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따를 때 구주를 믿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¹⁸

선지자는 여러분과 구주 사이에 서지 않습니다. 그보다, 여러분 곁에 함께 서서 구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

줍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책임이자 그가 우리에게 안겨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실한 간증과 지식입니다. 고대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선지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¹⁹

언젠가 우리는 지상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는 시대에 지상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날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인내로 그분의 말씀을 공부했고,

그분을 위해 기도했으며, 변함없이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을 따랐고, 또한 사랑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라는 것과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지상에서 그분의 기쁨 부음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에레미야 1:5.
2. 니파이후서 2:8 참조.
3. 마태복음 10:40.
4. Personal memory; also see Spencer J. Condie, *Russell M. Nelson: Father, Surgeon, Apostle* (2003), 235.
5. 에스겔 33:7.
6. 에스겔 33:8.
7. 출애굽기 4:12.
8. 교리와 성약 21:5.
9. 교리와 성약 107:22.
10. 에베소서 4:14.
11. 야고보서 1:6.
12. 에베소서 4:14.
13.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1988년 인터뷰에서 ... 저는 신성한 계시와 관한 이유를 대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관한 제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질문, 즉 ‘주님께서 왜 이렇게, 또는 왜 저렇게 명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경전을 읽는다면, 수많은 명령 중 이유를 알려 주신 명령은 백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밝히시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계시와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계명에 대해서도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 계시와 대해 이유들을 냈지만, 그 이유들은 보란 듯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 저는 오래전에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믿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 이유들은 믿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그 이유들은 모두 지나친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 계시와 대한 이유를 찾으려 애쓰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하지 맙시다. 그 이유들은 대부분 사람이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시란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지지하는 것이며 그곳에 안전이 있습니다.’”(Life’s Lessons Learned [2011], 68 - 69)
14. 출애굽기 20:14.
15. 모사이야서 15:7.
16. Russell M. Nelson, in Lane Johnson, “Russell M. Nelson: A Study in Obedience,” *Tambuli*, Jan. 1983, 26.
17.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관한 선택은 훌륭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유익을 얻을 것이나 아니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믿는 것 또한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기반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더욱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장차 영감어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돕기로 결정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그가 맨처음 부탁했을 때입니다. 그 후 그가 계속해서 부탁할 때마다 거절한 사람들은 영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의 요구가 더욱 바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고 말았습니다.”(“Finding Safety in Course”, *Ensign*, May 1997, 25)
18. 제3니파이 20:24.
19. 마태복음 16:16; 또한 요한복음 6:69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교회 역원 지지

전 통적으로 4월 연차 대회 이 모임에서 발표되었던 통계 보고서는 이제 이 모임이 끝난 직후 LDS.org에, 그리고 교회 잡지의 연차 대회 특별호에 게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제가 지지를 묻기 위해 교회 지도자, 총관리 역원 및 지역 칠십인의 변동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후에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인 케빈 알 저건슨 형제가 감사부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부름을 받음에 따라, 게릿 더블유 공 장로님과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을 칠십인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에 더하여, 크레이그 시 크리스틴슨 장로님과 린 지 로빈스 장로님,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님을 8월 1일자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해임합니다.

이 형제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들을 지역 칠십인 직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스티븐 알 뱅거터, 매튜 엘 카펜터, 마티아스 헬드, 데이비드 피 호머, 카일 에스 맥케이, 알 스코트 루니아, 후안 파블로 비야르.

이분들의 기꺼운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동안 본부 청년 회장단으로 수고해 주신 보니 엘 오스카슨, 캐럴 엠 맥콩키, 닐 에프 매리엇 자매님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봉사해 오신 본부 청년 이사회 임원들도 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님들의 훌륭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님을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코든 자매님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 비 쿡 장로님과 로버트 시 게이 장로님을 현 시간부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터렌스 엠 빈슨 장로님과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님과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님도 2018년 8월 1일부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하시게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분들을 새로운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티븐 알 뱅거터, 매튜 엘 카펜터, 잭 엔 제라드, 마티아스 헬드, 데이비드 피 호머, 카일 에스 맥케이, 후안 파블로 비야르, 다카시 와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분들을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리처드 케이 아하지, 알베르토 에이 알바레스, 두에인 디 벨, 글렌 버지스, 빅토르 알 칼데론, 아리엘 이 차파로, 다니엘 코르도바, 존 엔 크레이그, 마이클 체슬라, 윌리엄 에이치 데이비스, 리처드 제이 드브리스, 카일리 지 도밍게스, 션 더글라스, 마이클 에이 던, 케네스 제이 퍼마지, 에드거 플로레스, 실비오 플로레스, 사울로 지 프랑코, 카를로스 에이 헤나로, 마크 에이 길모어, 세르지오 에이 고메스, 로베르트 곤살레스, 비르힐리오 곤살레스, 스펜서 알 그리핀, 매튜 에스 하딩, 데이비드 제이 해리스, 케빈 제이 해쉬웨이, 리처드 홀자펠, 유스타쉬 일롱가, 오케추쿠 아이 이모, 피터 엠 존슨, 마이클 디 존슨, 풍그웨 에스 콘콜로, 조지 케네스 지 리, 아레테미오 시 마리곤, 에드거 에이 만틸라, 링컨 피 마틴스, 클레멘트 엠 마츠와고사타, 칼 알 마우러, 대니얼 에스 메어 2세, 글렌 디 멜라, 아이잭 케이 모리스, 유타카 나가토모, 알리스터 비 오저스, 알 제프리 파커, 빅터 피 패트릭, 데니스 이 피네다, 헨리크 에스 스피를리시오, 제프리 에이치 싱어, 마이클 엘 스타힐리, 자룻 수비안토로, 제프리 케이 웨철, 마이클 에스 윌스테드, 헬mut 윈드라, 데이비드 엘 라이트.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님을 본부 청년 회장으로, 미셸 린 크레이그를 제1보좌로, 레베카 린 크레이븐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리사 르네 하크니스를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역원, 지역

2017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케빈 알 저건슨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형 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십일조 지출 평의회는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신뢰할 만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교회 부서에서 독립된 교회 감사부는 교회가 받은 현금과 사용한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실시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7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현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회원들에게 권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피하며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라는 원리에 따라 재정을 운영합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케빈 알 저건슨
관리 책임자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넬슨 회장님, 역원 지지가 끝났습니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자신의 스테이크 회장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지한 분들을 포함하여, 이제 116명의 총관리 역원이 있습니다. 거의 40퍼센트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들로, 그분들의 출신 국가는 독일, 브라질, 멕시코,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캐나다, 대한민국,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짐바브웨, 우루과이, 페루, 남아프리카, 미국령 사모아, 영국, 푸에르토리코, 호주, 베네주엘라, 케냐, 필리핀, 포르투갈, 피지, 중국, 일본, 칠레, 콜롬비아, 그리고 프랑스 등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받으신 칠십인 총관리 역원 분들과 새로운 본부 청년 회장단 여러분 및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하크니스 자매님은 앞으로 나와 단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함은 구속주의 본질적인 성품이며, 그 특징은 의로움에 신속히 반응하는 영적 특성이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강한 자제력입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신성한 기회에 크게 기뻐하며,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으신 공 장로님과 소아레스 장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실하신 이 두 분의 성역은 전 세계의 개인과 가족을 축복할 것이며, 저는 그분들과 함께 섬기고 배울 것을 고대합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닳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구주의 신성한 성품¹의 중요한 측면에 관해 함께 배우는 동안 성신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와 같은 특징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그 후에 구체적인 성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예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시 1. 부자 청년과 앰올레크

신약전서에서 우리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²라고 예수께 질문했던 부자 청년에 대해 배웁니다. 구주께서는 우선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런 후 주님은 이 청년에게 그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³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을 물문경에 묘사된 앰올레크의 경험과 비교해 보십시오. 앰올레크는 근면하고 부유한 사람으로 친척과 친구가 많았습니다.⁴ 그는 자신이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일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알려 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⁵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인 앰올레크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에 주의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마음이 굳어 있었으나, 앰올레크는 천사의 음성에 순종하여 선지자 엘마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먹였습니다. 엘마가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앰올레크는 영적으로 깨어났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앰올레크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 그의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한때 그의 친구였던 자들과 또한 그의 부친과 그의 친족들에게 버림을 받았”⁶습니다.

부자 청년과 앰올레크 사이의 서로 다른 반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시 2. 페이호랜

물몬경에 묘사된 위태로운 전쟁의 시기에, 니파이 군대의 대장인 모로나리와 그 땅의 통치자이자 대판사인 페이호랜 사이에 서신 왕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군대가 곤경에 처했을 때 모로나리는 페이호랜에게 “책망할 말”⁷을 전하려 서한을 보냈고 페이호랜과 다른 지도자들의 무심함과 게으름과 태만을 비난하며 배신자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⁸

페이호랜은 모로나리와 그의 부당한 비난에 쉽게 분개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민의 마음으로 응했고, 모로나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부를 향한 모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페이호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모로나이어, 내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대의 큰 고난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그대의 고난은 나의 영혼을 비통하게 하는도다. …

그대의 편지에서 그대는 나를 비난하였으나, 내가 이를 패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노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대의 고결한 마음을 기뻐하노라.”⁹

모로나리의 비난에 대한 페이호랜의 침착한 반응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시 3. 러셀 엠 넬슨 회장님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

6개월 전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물몬경에 담긴 진리를 공부하고, 숙고하고, 적용하라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권고에 자신이 어떻게 응하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저는 물몬경이란 무엇인가, 물몬경이 확인해주는 것, 물몬경이 부인하는 것, 물몬경이 성취할 것, 물몬경이 명확히 한 것, 물몬경이 밝힌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물몬경을 보는 일은 통찰과 영감을 얻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¹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 또한 자신의 생활에 몬슨 회장님의 요청이 중요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50여 년간 매일 물몬경을 읽어 왔습니다. 그래서 몬슨 회장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그러셨겠지만 저는 선지자의 격려와 약속이 제게 더 많이 노력하라는 권유처럼 느껴졌습니다. …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¹¹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의 이 두 지도자들이 몬슨 회장님의 권유에 보인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반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앰올레크, 페이호랜, 넬슨 회장님과 아이어링 회장님이 보여 주신 강한 영적 반응은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 고귀한 네 분 중의 삶에 나타난 영적인 성숙함은 서로 연관된 많은 성품과 경험들을 통해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은 우리 모두가 더 온전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필수적인 특징을 강조하셨습니다.

온유함

다음 경전 구절에서 구주께서 당신에 대해 설명하시며 언급하신 성품에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¹²

구주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고르실 수 있었을 모든 성품과 덕목 중에서 온유함을 택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29년에 받은 계시에서도 비슷한 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¹³

온유함은 구속주의 본질적인 성품이며, 그 특징은 의로움에 신속히 반응하는 영적 특성이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강한 자제력입니다. 이 특성은 앰올레크, 페이호랜, 넬슨 회장님과 아이어링 회장님이 각각 보이신 반응을 우리가 더 온전히 이해하도록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넬슨 회장님과 아이어링 회장님은 몰몬경을 읽고 공부하라는 문슨 회장님의 격려에 의롭고도 즉각적으로 응했습니다. 두 분이 모두 교회의 중요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서 봉사하고 계셨고, 수십 년 동안 경전을 연구해 왔지만, 그들의 대응에는 주저함이나 자만이 없었습니다.

앰올레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안락한 환경과 익숙한 인간관계를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페이호랜은 정부에 대한 모반으로 인한 어려움을 모로나이에게 설명할 때, 올바른 관점과 강한 자제력을 축복받아서 반발하기보다는 스스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종종 잘못 이해되곤 합니다.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며, 소심한 것이 아니라 용감한 것이고, 과하지 않고 자제력이 있으며,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겸손하며, 허세가 없고 품위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거나 가식적이거나 오만하지 않으며, 타인의 성취를 선뜻 인정합니다.

겸손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그분의 인도와 도움에 대한 끊임없는 필요를 나타낸다면, 온유함을 결정짓는 특징은 특별한 영적인 수용성, 즉 성신에게서 배우고, 또 능력이나 경험이 많지 않아 보이거나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거나 중요한 직책에 있지 않거나 어떤 면에서건 많이 기여할 것이 없는 듯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배우는 특성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오만함을 극복하고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따르라는 자기 중의 권유를 받아들였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¹⁴ 온유함은 명성, 지위, 권력, 부와 아첨으로 오만하게 되어 눈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합니다.

온유함—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자 영적인 은사

온유함은 소망을 가지고, 도덕적 선택의지를 의롭게 사용하며, 우리의 죄 사함을 늘 간직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계발되는 성품입니다.¹⁵ 또한 온유함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입니다.¹⁶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¹⁷

우리가 구주께 나아오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분처럼 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힘을 얻어 훈련된 자제력을 보이고, 안정적이고 차분한 처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그저 우리가 따라야 할 행동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습니다.]”¹⁸ 그러나,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습니다.]”¹⁹ 그의 지식과 능력이 그를 거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이라는 성품과 영적 은사를 축복받았고, 이로 인해 그의 삶에 교만이 탈해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도구로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온유함의 모범이신 주님

온유함의 가장 크고 위대한 모범은 구주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물 아래로 [내려가]”²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려]”²¹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위대한 구속주께서는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다정하게 씻어 주셨습니다.²² 이러한 온유함은 종이자 지도자이셨던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예수께서는 깃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실 때 의로운 반응과 기꺼운 순종의 궁극적인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²³

이 영원토록 중대하고도 지극히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나타난 구주의 온유함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보다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한결같은 기꺼운 순종과 강한 자제력은 우리 모두에게 경외심을 갖게 하며 교훈을 줍니다. 무장한 성전 경비대와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 체포하기 위해 겿세마네에 이르자, 베드로는 자기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²⁴ 그러자 구주께서는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²⁵ 주님께서 자신이 붙들려 십자가 형을 당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었을 하늘의 권능을 사용하여 오히려 그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하셨음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비난받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²⁶ 배반당하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²⁷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재판관”²⁸께서는 임시로 부임한 한 정치인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²⁹ 구주의 온유함은 그의 절제된 반응, 강한 자제력,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의 무한한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려는 의지에서 드러납니다.

약속과 간증

물론 온유함을 모든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비롯하는 기초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그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 또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님이라.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느니라.”³⁰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³¹ 온유함은 신성한 성품의 핵심적인 측면이며, 우리는 구주의 속죄 덕분에, 또한 속죄를 통해 우리의 생활에 온유함을 얻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여 살아 계신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간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와 약속에 대한 저의 확고한 간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베드로후서 1:4 참조.
2. 마태복음 19:16.
3. 마태복음 19:21~22.
4. 엘마서 10:4 참조.
5. 엘마서 10:5~6 참조.
6. 엘마서 15:16.
7. 엘마서 60:2.
8. 엘마서 60:5~33 참조.
9. 엘마서 61:2, 9.
10. 러셀 엠 넬슨, “물론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61쪽.
11. 헨리 비 아이어링, “신을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00쪽.
12. 마태복음 11:29; 강조체 추가.
13. 교리와 성약 19:23; 강조체 추가.
14. 열왕기하 5:1~17 참조.
15. 모사이야서 4:12, 26; 모로나이서 8:25~26 참조.
16. 교리와 성약 46:8 참조.
17. 교리와 성약 46:8~9, 26 참조.
18. 사도행전 7:22.
19. 민수기 12:3.
20. 교리와 성약 88:6.
21. 요한1서 1:9; 강조체 추가.
22. 요한복음 13:4~5 참조.
23. 누가복음 22:40~42.
24. 요한복음 18:10 참조.
25. 누가복음 22:51 참조.
26. 마태복음 27:2, 11~26 참조.
27. 마태복음 26:53.
28. 모로나이서 10:34.
29. 마태복음 27:14.
30. 모로나이서 7:42~44.
31. 마태복음 5:5.



테일러 지 고도이 장로
철십인

하루만 더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야 할 “오늘”이 있으며, 우리의 날을 성공적으로 만들 열쇠는 바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친구 부부는 브리검이라는 예쁜 아기를 얻었습니다. 태어난 후에 브리검은 헌터 신드롬이라는 희귀한 병 진단을 받았는데, 애석하게도 이는 그가 얼마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성전 경내를 방문한 브리검은 특별한 구절을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그가 두 번 반복했던 그 말은 “하루만 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브리검의 묘지에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하루만 더”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하곤 합니다. 제게 살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며,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얼마나 참을성 있고 공손하게 생활할 것인가? 내 몸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경전을 탐구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하루 남았다”는 각성의 순간, 즉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써야 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전서에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의 생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간청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수환에 십오 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이사야 38:1~5 참조)

우리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다면,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있다는 명목으로 살 날을 늘려 달라고 간청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에게 저마다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야 할 “오늘”이 있으며, 우리의 날을 성공적으로 만들 열쇠는 바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인자가 올 때까지를 오늘이라 일컫나니, 진실로 오늘은 희생의 날이요.”(교리와 성약 64:23; 강조체 추가)

희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인 *sacer*와 *facere*인데, 각각 “성스럽다”와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희생의 어원은 다시 말해 성스럽게 하다, 또는 영광을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희생은 하늘 축복을 가져옵니다.”(“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희생은 어떻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축복 되게 만들까요?

첫째, 개인적인 희생은 우리를 강화하며, 우리가 희생을 바치는 대상을 가지 있게 만듭니다.

몇 년 전 금식 주일에 나이 지긋한 어느 자매님이 단상에 올라가 간증하셨습니다. 그분은 페루 아마존 지역의 이키토스라는 도시에 사셨습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부터 늘 페루 리마 성전에서 의식을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매님은 온전한 십일조를 바쳤고 적은 수입에도 수년 동안 저축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가서 거룩한 의식들을 받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는 마침내 제가 휘장 너머로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가기 위해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꼬박 칠 일간 배를 타고, 열여덟 시간 동안 버스를 탄 끝에, 드디어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을 떠나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에 오기까지 필요했던 그 모든 희생을 치렀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맺은 모든 성약을 가버어 여기지 않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희생이 허망하겠죠. 이걸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결심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자매님으로부터 저는 개인적인 희생이 우리의 결정과 결심을 이끄는 참으로 귀중한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개인적인 희생은 우리의 행동과 결심과 성약을 실행하는 힘이며, 성스러운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둘째,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던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던 이는 관련된 모두에게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치과 대학 재학 시절, 제가 살던 지역의 경제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하루가 다르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구강 외과 실습 수강 신청을 해야 했던 해였습니다. 그 학기에 등록하려면 필요한 모든 수술 기구를 갖추어야 했기에 제 부모님은 필요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수술 도구를 사러 갔을 때, 필요한 모든 기구를 사려고 부모님께서 모아둔 돈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외과용 핀셋 하나뿐이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테일러, 따라오렴. 같이 갈 데가 있단다.”

우리는 시내에 귀금속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느 가게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가방에서 푸른 벨벳 주머니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금팔찌가 들어 있었는데, 팔찌 안쪽에는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팔찌는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는 그것을 파셨습니다.

팔찌를 판 돈을 받은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치과외과사가 될 거라는 사실이야. 가서 필요한 도구를 다 사렴.” 그때부터 제가 어떤 학생이 되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최고의 학생이 되어 가능한 한 일찍 학업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르신 희생의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치르는 희생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시원한 물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런 희생은 희망과 동기를 가져다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치르는 그 어떤 희생도 미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에 비교하면 아무리 아끼는 금팔찌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한한 희생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충실하게 생활하고, 살아갈 하루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앰올레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나와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노니, 이는 보라 지금이

너희의 구원의 때와 날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앨마서 34:31)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희생으로 드린다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 주는 축복들이 즉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친히 그 희생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 우리는 진지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자신의 실수와 죄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책감, 부끄러움, 고통, 슬픔과 자괴감은 멍멍하고 편안한 마음, 행복, 기쁨과 희망으로 대체됩니다.

동시에, 주님의 희생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나은 자녀가 되고, 죄를 멀리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성약을 지키려는 강한 열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죄 사함을 받은 이노스처럼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형제와



보니 엘 오스카슨
최근에 해임된 본부 청년 회장

자매들의 복리를 추구하려는 바람을 느낄 것입니다.(이노스서 1:9 참조)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하루하루”를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다음 권고를 더욱 기꺼이 따르며 생활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투었다면 화해하십시오. 잊혀진 친구를 찾아 나서십시오. 의심을 버리고 신뢰를 가지십시오. ... 부드럽게 대답하십시오. 청소년을 격려하십시오. 생각과 행동으로 충성심을 보이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적을 용서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좀 더 웃으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낯선 자를 환대하십시오. 어린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 사랑을 말하고 또 한번 말하십시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 [2015], 31쪽; adapted from “What We Think Christmas Is,” *McCall's*, Dec. 1959, 82-83)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이러한 행동으로 가득하고, 개인적인 희생과 서로를 위하는 희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가 받는 기쁨과 평안을 특별한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즉 여러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는(니파이후서 2:25 참조) 경전의 말씀에 담긴 평안이며, 그 기쁨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는 기회를 받을 때마다,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이 희생으로 보여 주신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구원 사업에서 청년의 역할

교회의 모든 청년은 자신의 소중함을 느껴야 하고, 봉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 사업에 기여할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년 전, 연차 대회 신권 총회에서 제럴드 코세 감독님은 교회의 남성들에게 아론 신권 소유자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구원 사업을 이루는 데 뿔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 그 말씀은 아론 신권을 지닌 청년들이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서 자신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깨닫도록 이끄는 커다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협력하여 행하는 봉사는 교회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의 기여가 갖는 가치와 이 사업의 위대함을 깨달음으로써 더 깊이 개심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에 더하여 교회의 청년 역시 가정과 주님의 교회에서 그분 사업을 완수하는 데 청년들과 동등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세 감독님처럼 저도 십대 시절의 대부분을 한 작은 지부에서 보냈고, 보통 성인들이 수행하는 임무와 부름을 말도록 자주 부탁받았습니다. 한 예로, 저희 청소년들은 자주 청소년 활동이나 특별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저희는 연극 각본을 쓰기도 하고, 중창단을 만들어 지부 활동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면서 지부의 모든 모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저는 지부 음악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매주 성찬식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회중 앞에서 찬송가를 지휘하는 것은 16살 소녀에게 매우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으며, 제가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했고, 저는 그 쓸모 있다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코세 감독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인생에서 봉사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각각의 회원들은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힘을 보탬 수 있는 중요한 무언가를 지녔으며, 이 중대한 사업을 진척하는데 도움이 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닌 아론 신권의 의무는 교리와 성약에 매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청년과 그들의 부모 및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청년들이 침례받는 순간부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그들이]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성약의 책임을 지닌다는 점입니다.² 청년들은 와드와 지부에서, 그리고 반 회장단과 청소년 평의회, 기타 부름에서 봉사할 때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청년은 자신의 소중함을 느껴야 하고, 봉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 사업에 기여할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침서 제2권에는 와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업에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³이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와드를 위한 신권 열쇠를 지닌 충실한 감독이 인도합니다. 저희 회장단은 지난 수년간 “여기 언급된 부분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이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 만난 여러 청년들은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와드 회원들이 조상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울 수 있다는 열정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컴퓨터 기술이 있었고, 패밀리서치 사용법을 익혔으며, 다른 사람들과 그 지식을 나눌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성전에서 필수적인 구원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고, 그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열네 살 청년 두 명과 한 가지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와드 평의회에서 사용하는 의제를 어머니와 매기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의제를 읽어 본 후 자신이 봉사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온다는 내용을 보고는 그들이 이사하고 짐을 풀 때 자신이 도울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의 자녀들과 친구가 되어 주고 새로운 학교를 구경시켜 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와드 저녁 식사 모임이 있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기는 와드 내에 방문과 우정 증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여럿 계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훌륭한 회원들을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와드 회원들에게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제 항목 중에서 두 청년가 도울 수 없는 부분은 정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와드 평의회에 참석하거나 와드 부름을 지닌 사람들은 청년들을 와드 내의 수많은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봉사자가 필요한 여러 상황에서 성인들뿐만 아니라 봉사자 목록을 채우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나 다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함께 일하도록 권유하듯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머니나 다른 모범적인 자매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와드 회원들에게 봉사하고 성역을 베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그저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만 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소망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청년들이 맡게 될 선교사, 복음 학자, 교회 보조 조직 지도자, 성전 봉사자, 아내, 어머니, 조언자, 본보기, 그리고 친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 지금 어떤



경험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 중 많은 것들을 청년들은 지금 수행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주 일요일 공과 시간에 가르치는 것을 돕도록 부탁을 받습니다. 청소년 그룹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풀기 위해 성전에 갈 때, 예전에는 의식 봉사자나 자원 봉사자가 하던 성전 봉사를 이제는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연령의 소녀들도 이제 성전 및 신권 준비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받는데, 이를 통해 그들 역시 신권이 인도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참여자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신권 축복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 임무로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 신권 정령회를 감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인 것처럼 지침서 제2권에서 설명하는 다음 내용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과 보좌는 청년 조직에 신권 지도력을 제공한다. 그들은 개별 청년을 돌보고 강화하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부모와 청년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일한다. 감독과 보좌는 청년 모임과 봉사,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⁴ 청년 반을 방문하시고, 그들이 이 사업에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참여의 기회를 주시는 감독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와드 회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이러한 봉사 기회는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활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교회의 청년 여러분, 십 대는 바쁘고, 많은 경우, 힘겨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청년들이 자존감 문제, 불안,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는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는 대신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봉사를 통해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고 어려움이 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봉사함으로써 우리가 기여할 커다란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⁵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맺은 성약의 책임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축복이 넘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됨으로써 얻는 깊고 영속적인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능과 무한한 열정과 활력이 있으며, 동정심과 보살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들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 사업을 하는데 소중하고도 필수적인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청년들이 아론 신권을 통해 장차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대의 여성 조직인 상호부조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도 강건하며 충실한 청년과 청년들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거하기에 합당한 가정을 이룰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모두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은 그분의 자녀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⁶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은 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는 일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럴드 코세, “길을 예비하라”,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75~78쪽 참조.
2. 모사이야서 18:9.
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2쪽.
4. 지침서 제2권, 10.3.1.
5. 마태복음 10:39 참조.
6. 모세서 1:39 참조.



타니엘라 비 와콜로 장로
칠십인

우리를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줄 구원 의식

여러분이 의식에 참여하고 관련된 성약을 지킨다면 놀라운 빛으로 인도되고 점차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저는 복음, 즉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한번은 제 친구 한 명이 당시 칠십인이셨던 닐 엘 앤더슨 장로님께 컨퍼런스 센터에서 이만 천 명 앞에서 말씀할 때 어떤 느낌인지를 물었습니다.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만 천 명이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열다섯 분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당시 저는 피식 웃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다섯 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과 신권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 ... 곧 영생의 축복”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아브라함서 2:11, 또한 2~10절 참조)

이 약속된 복음과 신권의 축복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2년에 제한된 수의 남녀에게 엔다우먼트를 집행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머시 필딩 톰슨에게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엔다우먼트]는

자매님을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¹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줄 구원 의식에 중점을 두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식과 성약

신앙에 충실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식은 신권의 권세로 행해지는 성스럽고 공식적인 행위이다. [그] 의식들은 우리의 승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

구원의 의식이라고 불리운다. 이 의식들에는 침례, 확인, 멜기세덱 신권 성임(남자들의 경우), 성전 엔다우먼트 및 결혼 인봉 등이 포함된다.”²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집행되는] 구원과 승영의 의식은 ... 하늘의 축복과 권능이 개개인의 삶에 흘러들어 올 수 있는 승인된 통로입니다.”³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모든 구원 의식은 하나님과 맺는 성약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성약들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엠올레크는 “이 생은 ...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앨마서 34:32)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합당하게 의식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말씀처럼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넬슨 회장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주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⁴

존과 보니 뉴먼 부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러셨듯, 벨스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어린 세 자녀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보니는 비회원인 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 가든지 당신이 우리가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를 찾든지 정하세요. 아이들이 아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다음 일요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존은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여러 와드, 지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봉사했습니다. 저는 2015년 4월에 존을 만나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우리는 그가 아내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를 성전에 데려가는 것이라는 데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는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9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참석한 존은 2015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일 년 후에 존과 보니는 테네시 멤피스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보니가 엔다우먼트를 받은 지 20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47세인 아들 로버트는 아버지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신권을 받으신 후에 정말로 눈부시게 발전하셨습니다.” 보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행복하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의식을 받고 성약을 지키면서 더욱 온화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모범

예전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복음의 의식이 없는 선한 행위는 인류를 구속하거나 승영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⁵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의식과 성약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베냐민 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모사이야서 3:17 참조; 또한 신앙개조 제3조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아담의 타락에 따른 결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우리가 회개하여 궁극적인 승영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교리와 성약 84:20)는 구원 의식을 받도록 생애를 통하여 본을 보이셨습니다.

구주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니파이후서 31:5~6참조) 침례 의식을 받으신 후에 사탄이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 또는 인봉을 받은 후에도 유혹은 멈추지 않지만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관련된 성약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유혹에 저항하고 이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경고

이사야는 후기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땅이 또한 …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 율례를 어기며.”(이사야 24:5; 또한 교리와 성약 1:15 참조)

이와 관련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계시로 받았습니다. 몇몇이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나 …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조셉 스미스—역사 1:19)

바울 또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디모데후서 3:5) 저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우리 삶의 많은 혼란과 유혹은 마치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습니다.(마태복음 7:15) 참된 목자는 이런 이리들이 다가올 때 양들과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보호하며, 경고할 것입니다.(요한복음 10:11~12 참조) 선한 목자의 완전한 삶을 본받으려 애쓰는 보조 목자인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지지했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권고와 더불어 성신의 권능과 은사를 지니고 경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목자라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홀함에서 사고가 비롯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한 목자가 되기를 권합니다.

경험과 간증

성찬식은 우리가 성약의 길에 계속 남아 있도록 돕는 의식입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의식과 관련된 성약을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 아니타와 저는 아칸소 리틀록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구도자를 가르치러 나섰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던 훌륭한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참석해 보니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빵을 먹고 물을 마시더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그렇게 하는데 아주 뜻깊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이리]”라는 명을 받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로나이사 6:6; 또한 교리와 성약 20:75 참조) 우리는 마태복음 26장과 제3니파이 18장을 소리 내어 읽어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형제님이 매우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부상을 당했고 의식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달려와 형제님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제님은 간호를 받아 다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형제님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저를 발견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인 그에게 매일 감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훌륭한 형제님에게 구주께서 어떻게 우리 생명을 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께 얼마나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숨을 형제님과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는 것을 안다면 형제님께서 얼마나 자주 그분의 살과 피의 상징물인 빵과 물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게 될까요?” 그는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활기차지 않아요.”

그 말에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문으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즉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이 후기 성도 예배당으로 들어설 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구주에 대한 경건함 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부활절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했으며 이후로도 계속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자문해 보시도록 권유합니다. “나는 성찬을 포함해서 어떤 의식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성약을 맺고 지켜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이 의식에 참여하고 관련된 성약을 지킨다면 놀라운 빛으로 인도되고 점차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보호받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14쪽.
2. 신앙에 충실함(2004), 152쪽; 또한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2.1.2 참조.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여”, 리야호나, 2016년 5월호, 60쪽.
4.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가 갈 때”, 리야호나, 2018년, 4월호, 6-7쪽.
5. 보이드 케이 페커, “유일한 참된 교회”, 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91쪽.



데븐 지 듀란트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

가정에서의 가르침— 즐겁고 성스러운 책임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할 때 하늘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줄리와 저는 소중한 여섯 자녀를 길렀는데, 최근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에는 저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집안에서 벽적거리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서 배우던 때가 그리웁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부모님과 또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과 곧 태어날 자녀를 고대하시는 분, 그리고 장차 부모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분, 모두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성스러운 책임임을 인식하기를 기도합니다.¹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려 줍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침례를 통해 성약의 길에 들어설 때² 그들을 인도하고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계획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시련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합니다.

성전 축복에 관해 간증하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정성껏 돕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되면 사랑이 깃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 후에도 계속 부모 역할을 멈추지 않고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부름에서 절대로 해임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몇 가지 훌륭한 기회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밤에서 가르침

먼저 가정의 밤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정의 밤은 우리 가족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였습니다. 가정의 밤에서 배운 공과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정의 밤을 했다는 것입니다.³ 저는 부모님이 무엇을 중시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⁴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가정의 밤 활동인 ‘테스트’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자녀 중 한 명에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지시를 내리시곤 했습니다. “먼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고 닫거라. 다음에 침실 옷장에서 양말 한 켤레를 꺼내서 나에게 돌아와서 3번 점프하며 ‘아빠, 다 했어요!’라고 말하렴.”

제 차레가 오면 저는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 모든 단계를 올바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다 했어요!”라고 외치는 순간이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이 활동은 자신감을 키워 주었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소년이었던 제가 부모님이 가르치시는 복음 원리에 귀 기울이게 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밤의 가치에 대해 일말의 의심이 있다면, 우선 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여러분 주위에 모으고, 가르치고, 간증을 전하고, 함께 경전을 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⁵

가정의 밤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⁶ 그렇더라도, 가정의 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즐거움을 핵심 요소로 삼을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가족 기도 중에 가르침

가족 기도는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는 앤 엘돈 태너 회장님의 부친이 가족 기도 중에 가르치신 방식을 좋아합니다. 태너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가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던 때가 생각납니다. ‘엘돈은 오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송구스러워하고 있사오니 당신께서 엘돈을 용서하신다면, 엘돈은 그런 짓을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체벌보다도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더 굳게 결심하게 했습니다.”⁷

제가 어릴 적에는, ‘바로 몇 분 전에 기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듯한 가족 기도에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부모로서, 가족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⁸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소개하시는 방식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⁹ 저는 가족 기도 시간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축복을 해 줄 때보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에 더 좋은 때는 없는 듯합니다. 가족이 모여 겸손한 기도를 드릴 때,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가르침

부모로서 가르친다는 것은 비상 대기 중인 의사와 같습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구주와 같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흔히 “회당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격식 없는 환경에서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는 제자와 함께 식사하실 때, 우물가에서 물을 길올 때, 또는 무화과나무 옆을 지날 때” 가르치셨습니다.¹⁰

여러 해 전 제 어머니께서는, 형 매트와 나는 최고의 복음 대화가 빨래를 정리하며 나는 대화와 치과로 가는 길에 나는 대화였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언제나 자녀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셨음을 존경합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감독일 당시에도 연세가 일흔여덟이셨던 어머니는 제게 이말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제 자녀나 손주들을 가르칠 기회가 생기면 즉석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평소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하고자 합니다.¹¹ “[가족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온 집안이나 염려에서 시작한다면, 때로 가장 좋은 가르침을 전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¹²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¹³

저는 사도 베드로의 다음 권고를 좋아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와 자녀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¹⁴

십 대 시절, 아버지와 저는 누가 악력이 더 센지 자주 겨루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도록 있는 힘을 다해 상대의 손을 쥐곤 했습니다.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꽤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힘겨루기를 마친 후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강한 손을 가졌구나. 젊은 여성에게 부적절하게 손대지 않을 힘도 네 손에 지니기를 바란다.” 그런 후 아버지는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도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십일조를 냈는데 십일조로 낸 수표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콜리스터 장로님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이런 찬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순종하는 행동과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¹⁵

저는 우리가 이따금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종하는 행동과 태도로 내 자녀에게 지금, 또 미래에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가족 경전 공부 중에 가르침

가족 경전 공부는 가정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잡아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신성한 명령을 받았습니다.”¹⁶

저와 아내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힘썼습니다. 어느 해에 저희는 온 가족이 스페인어로 몰몬경을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저희 자녀 모두를 스페인어 선교부로 부르신 까닭이 여기에 있을까요? 에스



포시블레[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케이 애쉬튼 형제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는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애쉬튼 형제님은 경전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경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애쉬튼 형제님의 아버지가 십 대 청소년의 마음에 뿌린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린 진리의 나무로 자라났습니다.¹⁷ 애쉬튼 형제도 그의 큰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¹⁸ 이제 그의 여덟 살배기 아들은 “아빠, 저는 언제 아빠와 함께 몰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라고 물으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범으로 가르침

끝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모의 가르침은 모범에서 옵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¹⁹

최근 저희 부부는 여행 중에 참석한 교회에서 이 성구를 행동으로 옮긴 사례를 보았습니다. 조만간 선교 사업에 나설 한

청남이 성찬식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 저희 아빠가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 하고 말하더니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집에서 더 좋은 분이세요.”

모임 후에 저는 아버지에게 영감 어린 경의를 표한 이 청남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저는 그의 아버지가 와드의 감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감독으로서 와드에서도 충실하게 봉사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보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²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 가르칠 길은 많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생각과 노력을 쏟아 그러한 길을 심본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부모들이 더 나은, 더 한결같은 교사가 되도록 꾸준히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 특히 모범으로

말입니다.”²¹

이것이 바로 구주께서 가르치신 방법입니다.²²

작년에 두 자녀와 떠난 휴가에서 제 아내는 다 함께 세인트조지 성전과 샌디에이고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성전은 집에서 갔고 지금은 휴가 중이잖아. 좀 더 휴가다운 걸 하면 안 되나?” 침례 후, 아내는 성전 밖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잣말로 불평했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의 기억에 우리가 조상을 도운 추억이 남기를 원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격식을 차린 공과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과 공유할길 바라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저희는 생활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의로운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영원히 축복을 받습니다.

결론

가정에서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모든 분이 평화와 기쁨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영이 속삭이는 바에 따라 겸손하게 대처하고 행동하십시오.²³

엘 톰 페리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사람들의 행복, 번영, 평화는 모두 가정 교육에 근간을 둡니다.”²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났으나, 저는 장성한 아이들과 손주들, 또한 바라건대 언젠가는 증손주들을 가르칠 별도의 소중한 기회에 대비하여 여전히 준비되어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열심히 찾아가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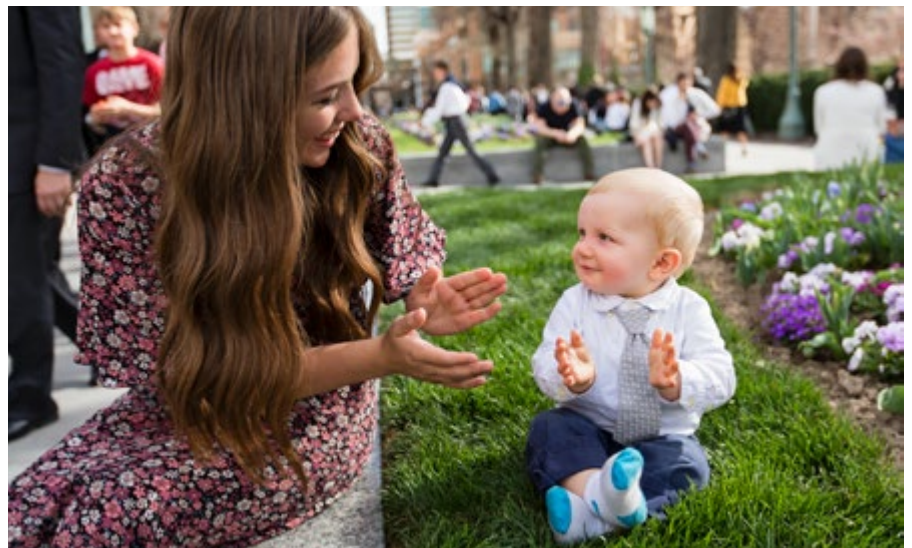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할 때 하늘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68:25; 93:40 참조.
엘 톰 페리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대적이 발휘하는 힘이 만연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정 교육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을 붕괴하고 파괴하기 위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0쪽)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가르쳤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가족을 봉괴하고 파괴하기 위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0쪽)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가르쳤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가족을 봉괴하고 파괴하기 위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0쪽)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가르쳤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가족을 봉괴하고 파괴하기 위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0쪽)
2. 러셀 엠 벨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7쪽 참조.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 여러분이 성인이 된 저희 아들들에게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 가정의 밤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아마 특정한 기도나 경전 공부 시간, 특별히 의미 있었던 가정의 밤 공과를 들으면서 그것이 영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한결같았다는 점을 말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9쪽)

4. “사랑 넘치는 우리 집”, 찬송가, 166장 참조.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형클리(2016)*, 161쪽.
6. 니파이후서 2:11 참조.
7. 엔 엘론 테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성도의 벗*, 1980년 4월호, 42~43쪽.
8. 제3니파이 18:21 참조.
9. 마태복음 3:16~17; 제3니파이 11:6~8; 교리와 성약 18:34~36; 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10. “즉흥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한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2016)*, 16쪽.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말과 아이디어가 실려 있다.
11. 교리와 성약 11:21; 84:85 참조.
12.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6쪽.
13. “경청함”,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85~186쪽 참조.
14. 베드르전서 3:15.
15. Douglas L. Callister, “Most Influential Teacher—Emeritus Seventy Pays Tribute to Father,” Aug. 29, 2016, news.lds.org.
16. 러셀 엠 벨슨,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1쪽.
17. 엘마서 32:28~43 참조.
18. 벨린다 에쉬튼 자매는 남편 에쉬튼 형제가 집을 비우면 그 역할을 대신한다.
19. 디모데전서 4:12; 또한 엘마서 17:11 참조.
20. 제프리 엘 스투어트는 유타주 세인트조지의 사우스게이트 2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의 아들 새뮤얼은 지금 콜롬비아 메테인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21. D. Todd Christofferson, “Strengthening the Faith and Long-Term Conversion of the Rising Generation,” general conference leadership meeting, Sept. 2017.
22. 제3니파이 27:21, 27 참조.
23. 교리와 성약 43:8~9 참조.
24. 엘 톰 페리,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 30쪽.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 인봉과 치유

우리가 가족 역사를 수집하여 조상들을 대신해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들을 휘장 양편에서 동시에 이루어 주십니다.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보람되고도 가장 어려운 경험을 마주하곤 합니다. 가족들과 이래저래 의견이 엇갈리는 일을 겪어 본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을 이끌었던 두 명의 영웅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팔리와 올슨 프랫 형제는 초기의 개종자이자 성임된 사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앙의 시련을 겪었지만, 그 후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둘 다 진리라는 대의를 위해 크게 희생하고 이바지했습니다.

둘은 나무 시절에 관계가 불편해졌고, 1846년에는 공개적으로 격하게 대립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깊고 긴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팔리가 올슨에게 화해를 청하며 편지를 보냈지만, 올슨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팔리는 올슨이 먼저 연락해 오지 않는 한 그와 대화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접었습니다.¹

몇 년이 지난 1853년 3월, 올슨은 자신의 조상으로서 처음으로 미국에 받을 디터던 윌리엄 프랫의 후손들을 다룬 책을 발간하는 프로젝트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올슨은

이 값진 가족 역사 자료를 훑어보다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형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올슨은 팔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형님, 우리 조상 윌리엄 프랫 중위의 후손을 통틀어 우리처럼 그분의 후손을 찾아내는 데 깊은 관심을 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슨은 후기 성도에게는 조상을 위해 대리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가족 역사를 조사하고 수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 지금껏 형님께 편지 보내기를 주저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²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목을 치유하고 상처를 봉합하며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일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조상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명하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지만, 산 자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올슨과 팔리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 상처를 치유할 권능을 가져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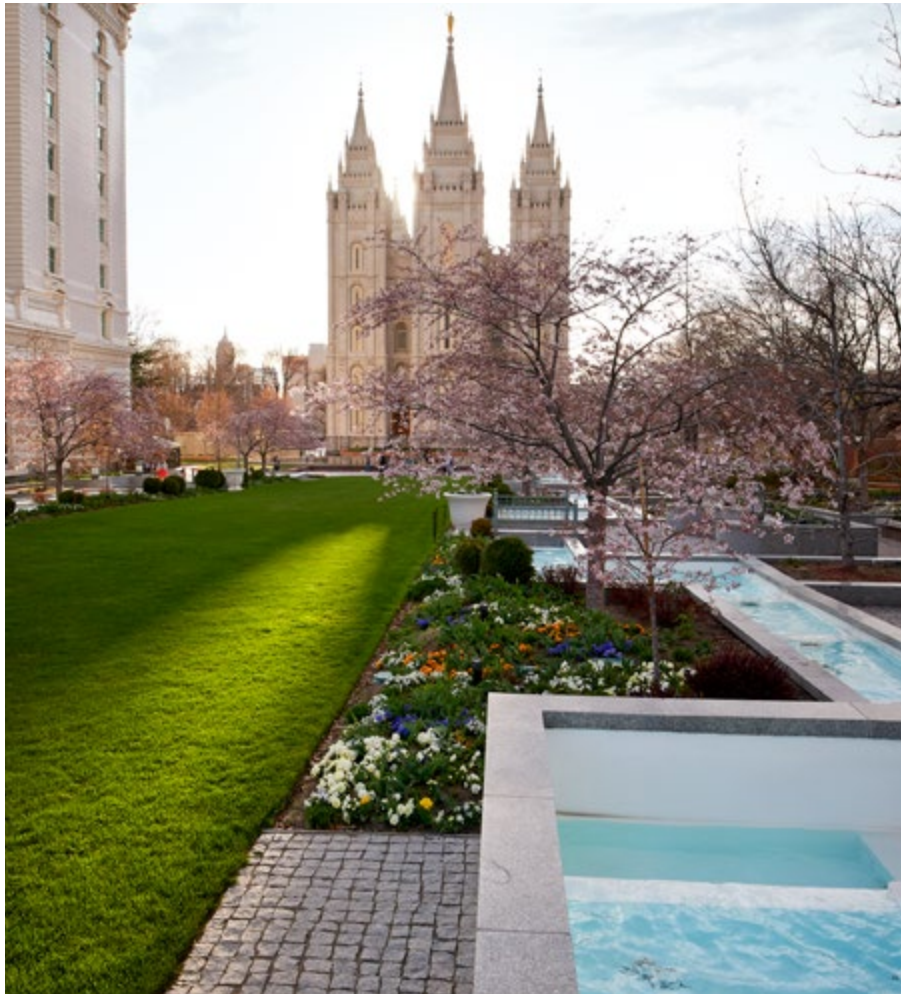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는 조상을 찾고 가족 역사를 수집해 정리해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역사는 권장되는 취미로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 의식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⁴ 우리는 구원 의식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조상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대리로 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조상들은 그 의식을 받아들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⁵ 또한, 우리는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이 조상의 이름을 찾을 때 도움을 주도록 권고받습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통해 우리가 죽은 자의 구속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참여할 때, 선지자와 사도가 약속한 “치유”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⁶ 이러한 축복은 그 범위와 특수성, 그리고 필멸의 삶에 미칠 영향의 측면에서 아주 놀랍습니다. 이 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성신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⁷ 삶에서 힘과 방향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신앙이 자라, 구주를 향한 개심이 더욱 깊고 확고하게 됩니다.
-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더 명확히 아는 비전을 가짐으로써, 배움과 회개의 능력과 동기가 커집니다.⁸
- 마음속에서 정제하고 성결하게 하며 온화하게 하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기쁨이 커집니다.
- 현재, 과거, 미래의 가족 상황이나 가계도의 완결성과 관계없이 가족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 돌아가신 조상과 현 시대의 친척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 감사함을 느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분별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자랍니다.
- 유희과 극심해지는 대적의 영향력으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더 큰 도움에 힘입어,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⁹

이러한 축복 중 어떤 것이라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시다면,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대신하여 의식이 행해질 때,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치유를 받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교회의 회장으로 첫 메시지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조상을 위한 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더 많은 화평을 누릴 것이며, 성약의 길에 남아 있으려는 여러분의 결심도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¹⁰

한 옛 선지자도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어질 축복을 예견했습니다.¹¹

하늘의 사자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시현을 보여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이 ...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리니 ...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¹²

이 물의 두 가지 특성에 주목해 봅시다. 먼저, 이 작은 시내는 지류가 없었지만, 큰 강이 되어 흐르는 동안 더 넓고 깊어졌으며, 더 멀리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이 가족으로 인봉될 때 성전에서 비롯되는 축복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봉 의식이 가족을 하나로 연결할 때, 선대로도 후대로도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강은 물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성전의 축복에도



이처럼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성전 축복은 마음과 삶, 가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9년에 토드라는 청년이 뇌혈관 파열로 쓰러졌습니다. 토드와 그의 가족은 교회 회원이었지만 교회에는 자주 나가지 않았고, 가족 중 아무도 성전의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토드가 살아 있던 마지막 날 밤, 그의 어머니 베틀리는 아들의 침상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드야, 네가 정말 떠날 때가 된 것이라면, 너를 위해 꼭 성전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토드는 뇌사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토드의 심장을 제 환자였던 로드라는 훌륭한 젊은이에게 이식했습니다.

로드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서 몇 달이 지나, 자신에게 심장을 기증해 준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토드의 어머니 베틀리는 그녀의 첫 성전 의식에 로드를 초대했습니다. 로드와 베틀리가 직접 만난 것은 이날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 해의 왕국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 토드의 아버지, 즉 베틀리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몇 년 후, 베틀리는 로드에게 죽은 아들을 대신해 성전 의식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로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이 대리 의식은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의 인봉실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베틀리는 자신의 손자와 함께 재단을 사이에 두고 무릎을 꿇고 죽은 남편에게 인봉되었습니다. 그런 후, 베틀리는 눈물을 흘리며 로드에게 손짓하여 재단에서 함께할 것을 청했습니다. 로드는 베틀리의 아들 토드를 대신하여 그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드의 가슴에서는 아직도 토드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로드에게 심장을 기증한 토드는 그렇게 그의 부모에게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드의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있던 아들과 한 여러 해 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드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후 약혼을 하고서 저에게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인봉실 가까이 있는 방에서 로드와 그의 훌륭한 신부 김을 만났습니다. 인봉실에는 그들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드와 김과 잠시 인사를 나누는 후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로드가 말했습니다. “네. 제게 심장을 기증한 분의 가족이 와 계시는데, 장로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그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다는 말인가요? 지금이요?”라고 물었습니다.

로드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퉁이를 돌아가서 인봉실에서 그 가족을 찾았습니다. 베틀와 그녀의 딸, 그리고 사위가 있었습니다. 로드가 베틀리 안고 인사하며 와 줘서 고맙다고 한 후 저를 소개했습니다. 로드가 말했습니다. “베틀, 이분은 렌랜드 장로님이세요. 여러 해 동안 자매님 아들의 심장을 돌봐 주신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와서 저를 안아 주었습니다. 모두가 그 뒤로 몇 분 동안 서로 포옹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평정을 되찾은 후 인봉실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로드와 김은 현재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습니다. 로드와 김, 베틀, 그리고 저는 그날 천국이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이미 필멸의 휘장을 지나간 이들이 저희와 함께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개인과 가족이 비극과 상실, 고난을 겪더라도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을 인봉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전에서 경험하는 느낌을 천국을 잠시 엿본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¹³ 저는 그날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시 에스 루이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현세적인 고통을 말할 때, ‘앞으로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 고통을 보상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천국을 얻으면 반대로 그런 고뇌조차 영광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은 말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이 아닌 곳에서는 단 한 번도 살지 않았다.'라고.¹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이며¹⁵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을 성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¹⁶ 우리가 가족 역사를 수집하여 조상들을 대신해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은 약속된 이 많은 축복들을 휘장 양편에서 동시에 이루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도록 도와줄 때 축복을 받습니다. 성전 가까이 살고 있지 않은 회원들도 성전 의식이 행해지도록 조상의 이름을 수집하며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때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경험한 성전 및 가족 역사 이야기를 통해 온종일이라도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쁨을

경험하려면, 구체적인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더 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간을 희생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¹⁷ 넬슨 회장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가족을 발견하고, 모이고,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에스겔이 말한 강물과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이 흘러들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울슨과 팔리 프랫은 이 경륜의 시대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갖든 치유와 인봉의 영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티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로도도 이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천국이 아닌 곳에서는 단 한 번도 살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¹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See Parley P. Pratt to Orson Pratt, May 25, 1853, Orson Pratt Family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in Terryl L. Givens and Matthew J. Grow, Parley P. Pratt: *The Apostle Paul of Mormonism* (2011), 319.
2. Orson Pratt to Parley P. Pratt, Mar. 10, 1853, Parley P. Pratt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in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319.
3. 주목할 점은 울슨 프랫은 윌리엄 프랫의 자손에 관한 책이 발행되도록 돕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몇 년 후인 1870년,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 솔트레이크시티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2,600차례 이상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기도 했다. (see Breck England, *The Life and Thought of Orson Pratt* [1985], 247)
4. See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6:312–13.
5. See "Names Submitted for Temple Ordinances," First Presidency letter, Feb. 29, 2012. 성전 대리 의식을 위해 이름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자신과 친인적인 조상의 이름만을 제출해야 한다. 교회 회원은 유명 인사나 유대인 대학살 피해자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집단에서 나온 이름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 정책에 예외는 없다.

6. Dallin H. Oaks, "In Wisdom and Order," *Tambuli*, Dec. 1989, 18–2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죽은 자의 구속과 예수님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0~13쪽; 보이드 케이 패커,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일을 시작함,"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12~17쪽; 토마스 에스 몬슨,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9~22쪽;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님 묶인 마음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7~80쪽; 엠 러셀 블라드, "신앙, 가족, 사실, 그리고 열매,"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25~27쪽; 러셀 엠 넬슨, "구원과 승영,"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7~10쪽; 러셀 엠 넬슨, "사랑으로 연결된 세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1~94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4~27쪽; 리차드 지 스코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3~95쪽; 쿠엔틴 엘 쿡, "뿌리와 가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4~48쪽; 토마스 에스 몬슨,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리아호나*, 2014년 6월호, 4~5쪽; 헨리 비 아이어링, "마음을 돌이킴에 관한 약속," *리아호나*, 2014년 7월호, 4~5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신교, 가족 역사, 그리고 성전 사업," *리아호나*, 2014년 10월호, 14~19쪽; 닐 엘 앤더슨, "성전과 기술이 있는 '내 날들'," *리아호나*, 2015년 2월호, 26~33쪽; Neil L. Andersen, "Sharing the Temple Challenge," Family Discovery Day, Feb. 2015, LDS.org; 쿠엔틴 엘 쿡, "가족 역사 사업의 기쁨," *리아호나*, 2016년 2월호, 22~27쪽; 게리 이 스티븐슨, "신권 열쇠와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29~32쪽;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결혼과 가족을 수호하는 이들을 칭송하며,"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77~80쪽; 쿠엔틴 엘 쿡, "성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라,"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97~101쪽; 테일 지 렌렌드, 루스 엘 렌렌드, 에슐리 알 렌렌드, "가족 역사와 성전 축복," *리아호나*, 2017년 2월호, 34~39쪽; Dallin H. Oaks and Kristen M. Oaks, "Connected to Eternal Families," Family Discovery Day, Mar. 2018, LDS.org 참조.
7. 교리와 성약 109:15 참조.
8. 교리와 성약 109:21 참조.
9. 보이드 케이 패커, "길르앗의 유향,"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17~20쪽; 예레미야 8:22; 51:8 참조.
10.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7쪽.
11. 에스겔 40~47장; 경전 안내서, "에스겔" 참조.
12. 에스겔 47:8-9.
13. 스펜서 더블유 킴블, "천국의 발전," *성도의 벗*, 1972년 4월호, 3~7쪽 참조.
14. C. S. Lewis, *The Great Divorce: A Dream* (2001), 69.
15. 이사야 41:10 참조.
16.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참조.
17. 러셀 엠 넬슨과 웬디 더블유 넬슨,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하늘을 열다," *리아호나*, 2017년 10월호, 19쪽.
18. Lewis, *The Great Divorce*, 69.





더글러스 디 홈즈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

여러분이 받은 아론 신권 성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받도록 돕는 일의 중심입니다.

형 제 여러분, 이 역사적인 대회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신입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당시, 새로운 선교사들을 처음으로 맞이한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선교사 몇 명이 그들과 함께 할 짧은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아용 의자가 반원 형태로 배열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의자들은 왜 여기 있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멧쩍은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선교사들이 앉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들이 스스로가 누구인지,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¹ 그날 새로운 선교사들은 성인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에게 부여하신 성스러운 신임과 중요한 임무를 그들이 깨닫도록 돕는 게

아니라, 마치 그들에게 유아용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때때로 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청남들이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그들이 성임받은 부름의 신성함을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²

저는 오늘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론 신권의 권능과 신성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지닌 신권 의무에 더욱 부지런히 집중하도록 영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메시지는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님은 신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³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죄를 회개하고, 의식을 통해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신을 받아야 합니다.⁴ 이러한 원리들은 단 한 번만 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⁵ 위한 지속적인 진보의 과정에서 함께 작용하고 서로 강화하고 토대가 되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론 신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에 다가가는 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저는 아론 신권의 열쇠들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음의 열쇠입니다.⁶

천사의 성역

먼저 천사의 성역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기 전에 먼저 그분에 대해 알고 그분의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⁷

하나님께서서는 태초부터 “천사들을 보내사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 드러내게 하셨”습니다.⁸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국의 존재입니다.⁹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천사라는 단어의

어원은 ‘사자’입니다.¹⁰

인간의 신앙을 키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시어 사자로 보내시는 것처럼, 아론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기 위해 성임되었습니다.¹¹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신권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와 연관되는 권능은 단지 선지자나 선교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¹²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2세 집사이든 우리 중 누구이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불러오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 두어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¹³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¹⁴ 정원회 모임에서 가르치거나 회원의 가정을 방문할 때, 혹은 친구나 가족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때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천사들이 그리하듯 성신의 권능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¹⁵

최근에 저는 파푸아뉴기니에 사는 아론 신권 소유자인 제이콥이 물몬경의 권능에 대한 간증을 전하며 자신이 악에 저항하고 영에 따르도록 그 권능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키워 주었습니다. 또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정원회 모임에서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저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위임받은 사자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¹⁶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될 것]입니다.”¹⁷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엠부엘롱고 가족에게 침례를 준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예비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커지면 언제나 변화하거나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이 뒤따릅니다.¹⁸ 그러므로 천사의 성역의 열쇠는 “회개와 침례 그리고 죄 사함의 복음”¹⁹, 즉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동반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여러분이 아론 신권의 의무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권유해야 하는 분명한 책임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²⁰ 그것은 우리가 길거리에 서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쳐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들에게 회개로부터 오는 소망과 평화를 안겨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 보았기에 가능합니다.

저는 아론 신권 소유자가 정원회 회원들을 방문할 때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보여 주는 관심이 회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청남은 회개의 권능에 대해 친구들에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으며, 결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치유 권능을 느끼게 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은 각각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죄 사함 받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권능은 아론 신권에서 찾게 됩니다.”²¹ 아론 신권의 침례 및 성찬 의식은 우리의 회개를 증거해 주고 완성하며 죄 사함에 이르게 해 줍니다.²²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와 ... 성찬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침례 성약을 새로이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십니다.”²³

형제 여러분, 구주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 회개하는 마음에 죄 사함이 임하도록 돕는 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성스러운 특권입니다.²⁴

저는 최근에 자기 표현에 미숙한 한 제사 형제가 처음으로 성찬을 축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축복을 했을 때, 너무도 강한 영이 그 형제와 회중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모임 후반부에 자신이 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느꼈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간절하고도 분명하게 간증을 전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제사 정원회에 속한 네 명의 청남들이 엠부엘롱고 가족이

침례를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중 한 제사의 어머니는 제게 이 일이 아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경험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는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²⁵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사들도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세인 제 아들은 최근에 저희 조상 몇 분을 위해 저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아론 신권에 대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의 신권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할 때, 여러분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²⁶ 이런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회개를 가르치고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주고자 하는 소망을 키우고 그를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온 생애에 걸쳐 봉사를 하도록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는 침례 요한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의 동역자가 될 특권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이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권유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위임받은 사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아론 신권의 열쇠를 행사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실 것이요.”²⁷

그러므로 아론 신권은 그것이 지닌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도록 길을 예비합니다. 이는 멜기세덱 신권을 통해 주어지며, 이생에서 받을 수 있는 은사

중 가장 값진 은사입니다.²⁸

하나님께서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얼마나 심오한 책임을 주신 것입니까!

권유와 약속

부모 및 신권 지도자 여러분, 청남들이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라는 몬슨 회장의 조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²⁹ 그들이 아론 신권을 이해하고 영화롭게 할 때, 그들은 충실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권능으로 가득 찬 선교사, 또한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되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베푸는 봉사를 통해, 신권 권능,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의 실제성을 느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십니다.³⁰ 여러분이 받은 아론 신권 성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받도록 돕는 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예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도록 거룩한 부름을 받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침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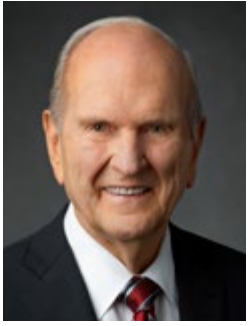
주

1. 모세의 경험은 이러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써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은 그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탄에 저항하도록 그를 도와주었다.(모세서 1:1~20 참조) 또한 토마스 에스 몬슨,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68~71쪽; 테일 지 렌런드, “하나님의 눈으로”,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3~94쪽 참조.
2. Thomas S. Monson, general conference leadership meeting, Mar. 2011.
3. 테일 지 렌런드, “신권, 그리고 구주의 속죄 권능”,

-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64~67쪽 참조.
4. 니파이후서 31~32장; 제3니파이 11:30~41; 27:13~21; 이더서 4:18~19; 모세서 6:52~68; 8:24 참조.
 5. 모로나이서 10:32; 또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6쪽 참조.
 6. 교리와 성약 13:1; 84:26~27; 107:20 참조.
 7. 로마서 10:14~15, 17. 조셉 스미스 역시 같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신앙은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그 간증은 항상 예언과 계시의 영을 수반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85쪽)
 8. 모로나이서 7:22; 엘마서 12:28~30; 13:21~24; 32:22~23; 39:17~19; 힐라맨서 5:11; 모로나이서 7:21~25, 29~32; 교리와 성약 20:35; 29:41~42; 모세서 5:58 참조; 또한 마태복음 28:19; 로마서 10:13~17 참조.
 9. See George Q. Cannon, *Gospel Truth*, sel. Jerreld L. Newquist (1987), 54.
 10. See James Strong, *The New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1984), Hebrew and Chaldee dictionary section, 66, Greek dictionary section, 7.
 11. 교리와 성약 20:59.
 12. 헨리 비 아이어링, “그 또한 강하게 되게 할지어다”,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75~78쪽; 엘마서 17:3; 힐라맨서 5:18; 6:4~5; 교리와 성약 28:3 참조.
 13. 요한서 2:14; 엘마서 17:2; 26:13; 32:42 참조.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아론 신권 소유자는 이를 성취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도구이다.*
 14. 교리와 성약 11:21; 또한 교리와 성약 84:85 참조.
 15. 니파이후서 32:3; 교리와 성약 42:14; 50:17~22 참조.
 16. 모로나이서 7:25 참조.
 17. 러셀 엠 넬슨, “신권을 존중함”,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40쪽; 또한 엘마서 27:4 참조.
 18. 엘마서 34:17; 힐라맨서 14:13 참조.
 19. 교리와 성약 84:27.
 20. 교리와 성약 20:46, 51~59, 73~79 참조.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아론 신권 소유자는 우리의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도구이다.
 21. 고든 비 힝클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53쪽.

2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물의 침례[는] 회개 과정에서 마지막 혹은 절정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죄를 버리는 과정과 더불어 순종하겠다는 성약으로 완전해집니다. 참으로 이 성약이 없다면 회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법”, *리아호나*, 2012년 9월호, 14~15쪽) 또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38~41쪽;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6:24(경전 안내서) 참조. “성찬 의식은 침례 및 확인 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정화 효과와 함께 구주의 속죄 은혜를 입는 자가 되도록, 성스러운 성약을 매주 새롭게 할 기회를 준다.”(“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 이해하기”, *리아호나*, 2012년 7월호, 21쪽) 또한 델린 에이치 옥스,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59~61쪽 참조.
23. 델린 에이치 옥스, “아론 신권과 성찬”,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8쪽.
2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구원과 승영의 의식은 의례나 상징적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식은 하늘의 축복과 권능이 개개인의 삶에 흘러들어 올 수 있는 승인된 통로입니다.”(“죄 사람을 항상 간직하여”,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60쪽)
25. 교리와 성약 20:73.
26. 모세서 1:39.
27. 마태복음 3:11.
28.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성신이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은사라고 밝혔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늘 성신의 동반을 받는다는 것은 현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아론 신권과 성찬”,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8쪽)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영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영생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성신의 은사는 필멸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사입니다.”(“What Is Meant by ‘The Holy Spirit?’”, *Instructor*, Feb. 1965, 57) 윌포드 우드렙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여러분에게 성신이 있다면—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합니다만—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보다 더 큰 은사,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간증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사들의 일을 하고, 기적을 보며, 세상에서 많은 기이한 일을 볼 수 있으나, 저는 성신의 은사야말로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렙*[2004], 49쪽)
29.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주는 영감받은 권고를 따릅니다.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영이 함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복을 가르침과 활동은 우리 삶에 성신이 임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둡니다.”(“성신을 받으라”,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97쪽)
30. Thomas S. Monson, general conference leadership meeting, Mar. 2011.
31. 모세서 1:6 참조.





러셀 엠 넬슨 회장

소개 말씀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중대한 개편을 발표합니다.

호즈 형제님,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이 가슴 깊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¹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속주의 희망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바라십니다.²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임된 아들 모두가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을 대신하여 말하고 행동하며,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신앙이 또한 [전 세계]에서 증가되”도록 말입니다.³

어떤 분들은 교회가 여러 세대를 걸쳐 이어져 온 곳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규모가 큰 와드에서 생활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작은 지부에서 생활하십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각자는 배우고 가르치며, 사랑하고 봉사하라는 신성한 명을 지닌 신권 정원회의 일원이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중대한 개편을 발표합니다. 각 와드에서, 이제 대제사와 장로들은 하나의 장로 정원회로 통합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남성들의 역량과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수련 장로들은 그 새로운 정원회에서 환영받고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각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회장단은 계속해서 스테이크 대제사 정원회를 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원회는 현재의

신권 부름을 기초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제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과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님이 이 중대한 변경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여러 달 동안 검토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회원들을 돌보고 그들과 접촉한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 하려면, 우리의 신권 정원회를 강화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분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성역을 베푸는 일에 더 큰 방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은 주님에게서 온 영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를 시행한다면,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겸손한 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배우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2. 교리와 성약 1:20.
3. 교리와 성약 1:2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장로 정원회

와드에 하나의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둬으로써 신권 소유자들이 하나로 단합하여 구원 사업의 모든 면에서 더 큰 성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신앙의 기도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을지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나의 교회를 다스리며 내 앞에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¹ 그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이 원리를 따랐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신권 조직과 신권 봉사의 형태는 때에 따라 계시로 주어졌는데, 그 시작은 우리 시대에 신권의 직분과 정원회가 처음 확립되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 때였습니다. 이후 여러 회장님들 중에서도 브리검 영, 존 테일러,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의 재임 시기에 십이사도 정원회와 칠십인, 대제사 그리고 멜기세덱 및 아론 신권에 속한 다른 직분과 정원회에 관한 중대한 변화들이 계시되고 시행되었습니다.² 이제, 방금 들었던 역사적인 발표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서는 또 다른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중대한 개편을 발표합니다. 각 와드에서, 이제 대제사와 장로들은 하나의 장로

정원회로 통합될 것입니다. ... [스테이크 대제사] 정원회는 현재의 신권 부름을 기초로 구성될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여러 달 동안 검토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회원들을 돌보[는] ...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 하려면, 우리의 신권 정원회를 강화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분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성역을 베푸는 일에 더 큰 방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은 주님에게서 온 영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를 시행한다면,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³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저와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서 가지실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장로 및 대제사 정원회

먼저, 다시 말씀드리자면, 와드의 대제사 그룹과 장로 정원회는 어떻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이제 와드에서는 장로 정원회 회원과 대제사 그룹 회원이 하나의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로 통합되어 하나의 정원회 회장단이 있게 됩니다. 인원수에서나 단합력에서 더욱 증대된 이 정원회는 “장로 정원회”라고 부르게 되며 대제사 그룹은 해체됩니다. 장로 정원회는 와드의 장로, 수련 장로 및 대제사로 구성됩니다. 단, 현재 감독단, 스테이크 회장단, 고등평의원 및 임무 수행 중인 축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테이크의 대제사 정원회는 현재 스테이크 회장단, 감독단, 고등평의원 및 임무 수행 중인 축복사로 봉사하고 있는 대제사들로 구성됩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단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어떻게 조직되니까? 스테이크 회장단은 현재의 대제사 그룹 지도자와 장로 정원회 회장단을 해임하고, 각 와드에 새로운 장로 정원회 회장과 보좌를 부를 것입니다. 새로운 장로 정원회 회장단에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장로와 대제사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들은 하나의 정원회 회장단에서 함께 봉사하게 됩니다. 정원회 회장 또는 보좌에는 장로나 대제사 누구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가 장로 정원회를 '장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와 대제사가 적절히 섞이고 조합되어 정원회 회장단과 정원회 봉사에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정원회의 변경 사항은 가급적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장로 정원회 내에서의 신권 직분

정원회 구조가 이렇게 변경되면 정원회 회원들의 신권 직분도 바뀌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회 회원이 과거에 성임받았던 어떤 신권 직분도 이번 결정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일생에 걸쳐 다양한 신권 직분에 성임될 수 있으며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 이전에 성임받은 직분을 잃거나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느 신권 소유자가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직분에서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대제사인 형제가 축복사나 감독으로 봉사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직분들의 역할을 모두 동시에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독과 칠십인은 해임되거나 명예 회원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직분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형제가 다른 어떤 신권 직분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가 장로 정원회 회원일 때에는 장로로서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 해 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은 그 직분보다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 신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사도와

같은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38 참조) 한 형제가 신권을 [부여받을] 때, 그는 신권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와 책임의 측면에서 볼 때 신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 때때로 한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높다'거나 '낮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직분은 어떤 것이 '높고', '낮다'기보다는 멜기세덱 신권 안에서 봉사하는 분야가 서로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⁴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멜기세덱 신권 안에서 하나의 직분에서 다른 직분으로 '승진한다'고 표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장로가 스테이크 회장단이나 고등평의회나 감독단에 부름을 받게 될 경우,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영감을 통해 결정할 경우, 그 장로는 대제사로 성임될 것입니다. 스테이크 회장단, 고등평의회, 감독단에서의 봉사가 끝나면, 대제사들은 다시 소속 와드의 장로 정원회에 속하게 됩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 지침을 줌

장로 정원회 회장의 일은 누가 지휘합니까? 각 스테이크의 멜기세덱 신권을 감리하는 자는 스테이크 회장입니다. 따라서 스테이크 회장이 장로 정원회 회장의 직속 책임자가 되며,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 회장단과 고등평의회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지침을 줍니다. 또한 감독도 와드의 감리 대제사로서 장로 정원회 회장과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감독은 장로 정원회가 어떻게 하면 와드의 다른 조직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회원들을 가장 잘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장로 정원회 회장과 협의하고 적절한 지침을 줍니다.⁵

이러한 변화의 목적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에 관한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와드에 하나의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둬으로써 신권 소유자들이 하나로 단합하여 구원 사업의 모든 면에서 더 큰 성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사업에는 이전에 대체사 그룹이 담당했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정원회 회원들이 각자의 삶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신권 소유자들이 수련 장로와 새로운 회원, 청년 성인 및 교회에서 다시 활동하게 된 회원과 같은 분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장로 정원회가 수행하게 될 중대한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대가 됩니다. 이 정원회에서 나오게 될 지혜와 경험과 역량과 힘은 교회 전체에 걸쳐 신권 봉사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표준을 열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 연차 대회에서, 저는 칠십인 정원회의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님이

처음 들려 주셨던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1918년, 농부인 조지 고츠 형제는 미국 유타주 리하이시에서 사탕무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해에는 유난히 겨울이 빨리 와서, 농장의 대부분의 사탕무가 얼어 버렸습니다. 조지와 그의 어린 아들 프랜시스가 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편, 전염성이 강한 유행성 독감이 급속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으로 조지의 아들 찰스와 찰스의 어린 두 딸과 아들 하나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6일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조지 고츠 형제는 이들을 장례 지내기 위해 유타주 옥든까지 세 번이나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지나고 조지와 프랜시스는 마차에 올라 사탕무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이웃 농부들이 사탕무를 싣고 공장으로 가는 마차의 행렬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렬 옆을 지나가자, 마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조지 아저씨, 괜찮으세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 친구잖아요. 힘내세요.”

맨 마지막 마차에는 … 주근깨투성이인 재스퍼 롤퍼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량하게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조지 아저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고츠 형제는] 아들 프랜시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다 우리 거라면 좋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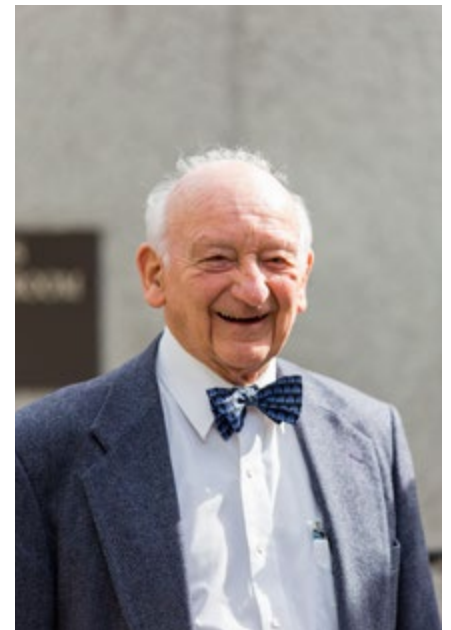
농장 입구에 도착하자, 프랜시스가 마차에서 뛰어내려 아버지가 마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조지는 마차를 멈추고 …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 밭에는 사탕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조지는 재스퍼 롤퍼가 ‘조지 아저씨, 이게 마지막이에요!’라고 외쳤던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는 마차에서 내려, 자신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그 기름진 갈색 땅에서 한 줌의 흙과 … 무청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노동의 상징과도 같은 그것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무청 더미 위에 주저 앉았습니다. 최근 겨우 6일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 네 명의 시신을 집으로 데려와 장례를 치렀던 이 사람은, 손수 관을 만들고 무덤을 파고 수의를 입히는 일까지 했던 이 사람은, 그 모진 시련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 눈물을 닦고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와드의 장로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⁶

그렇습니다. 시운을 세우고, 개인과 가족을 고양시키는 일에서 앞으로 신권 형제들이 베풀 봉사에 대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칠십인 회장단은 장기간에 걸쳐 이 변경 사항을 숙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며 신권 정원회의 근거가 되는 경전의 내용들을 신중하게 연구했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인을 받아, 사실상 회복이 한 단계 더 펼쳐지는 이 일에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명백한 지침을 기뻐하며, 주님과 그분의 신권 그리고 그 신권에 여러분이 성임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41:3.
2. 예를 들면 다음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다. William G. Hartley, "The Priesthood Reorganization of 1877: Brigham Young's Last Achievement," in *My Fellow Servants: Essays on the History of the Priesthood* (2010), 227-64; "To the Seventies," in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965), 352-54; Hartley, "The Seventies in the 1880s: Revelations and Reorganizing," in *My Fellow Servants*, 265-300; Edward L. Kimball, *Lengthen Your Stride: The Presidency of Spencer W. Kimball* (2005), 254-58; Susan Easton Black, "Early Quorums of the Seventies," in David J. Whittaker and Arnold K. Garr, eds., *A Firm Foundation: Church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2011), 139-60; Richard O. Cowan, "The Seventies' Role in the Worldwide Church Administration," in *A Firm Foundation*, 573-93.
3. 러셀 엠 넬슨, "소개 말씀", *리아호나*, 2018년 5월, 54쪽.
4. 보이드 케이 패커, "모든 장로들과 모든 자매들이 알아야 하는 것: 신권 행정의 기본적인 원리", *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17, 19쪽.
5.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7.3.1 참조.
6.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신권 정원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40~41쪽; 또한 본 제이 패더스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성도의 빛*, 1973년 11월호, 37~38쪽 참조.

보라! 당당한 군대

모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봉사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 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지시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 앞에 서니 무척 겸손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넬슨 회장님과 새로운 제일회장단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형제님들의 간중에 덧붙여, 저도 오늘 저녁 발표되는 이 변경 사안이 주님의 뜻을 간증드립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선임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숙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목적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이 주어졌고, 오늘 저녁 우리의 선지자께서는 주님의 뜻을 발표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¹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 아내와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와 직장 일로 전 세계를 여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거의 모든 단위 조직 형태를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지부에서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수를

한 손으로 셀 수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성장 중인 새로운 와드에서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대제사와 장로가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실한 많은 와드에서는 장로들의 수가 너무 많아 정원회를 두 개로 나누어 조직해야 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그분의 종에 앞서 가며,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처한 모든 상황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앞서 나아갈





것”이며 “[우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어요” 그분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어요, [그분의] 천사들은 [우리]를 둘러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²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저는 찬송가 “보라! 당당한 군대”가 떠올랐습니다.

*보라! 당당한 군대
깃발 휘날리며
인생의 전쟁 마당에
돌진해 나가네
단결되고 강하고
대담한 용사들
주 예수 대장 따라
함성도 드높게³*

와드에서 대제사 그룹과 장로 정원회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로 구성된 하나의 단합되고 강한 군대로 통합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는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원회가 감독단 및 와드 평의회와 함께 일하는 과정도

단순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 감독은 장로 정원회 회장과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과 그의 보좌들은 그들의 주된 의무, 특히 청년들과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년들을 감리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그 기능이 변경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1883년에 주님께서 존 테일러 회장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와 신권의 관리 및 조직에 [대해서는] … 내가 제정한 경로를 통해 시시로 내가 네게 알려 주리니, 이는 나의 교회의 발전과 온전함을 위해, 나의 왕국이 조정되고 굴러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라.”⁴

이제, 대제사이신 형제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당당한 신권 군대의 중대한 일부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선함과 봉사, 경험과 의로움 없이는 이 사업을 전진시킬 수 없습니다. 엘마는 형제들이 대제사로 부름받는 것은 그들의 지극한 신앙과 선한 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성역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⁵ 이제 그런 경험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합니다.

많은 와드에서, 어떤 대제사 분들은 장로 직분을 가진 정원회 회장에 의해 인도되고 감리될 것입니다. 장로가 대제사를 감리하는 선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 지역에서는 지부에 대제사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장로가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대제사가 있지만 장로 정원회만 조직된 지부들도 있습니다.

모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와드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봉사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이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신권 형제라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단합하여 이끌고 따르며 봉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기회를 충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권유합니다.

이제 그분의 거룩한 신권 정원회 조직에 대한 주님의 뜻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침과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태이크 대제사 정원회는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스테이크 대제사 정원회는 계속해서 기능하게 됩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은 스테이크 대제사 정원회의 회장단으로 계속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테이크 대제사 정원회 회원은 현재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 와드 감독단의 일원,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및 임무 수행 중인 축복사로 봉사하고 있는 대제사들로 구성됩니다. 와드 및 스테이크의 서기와 집행서기는 스테이크 대제사 정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제사, 축복사, 칠십인, 또는 사도로서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다른 와드를 방문하여 신권 모임에 참석하기 원한다면, 그는 장로 정원회 모임에 참석합니다.

형제들이 이런 부름에서 해임받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속한 단위 조직으로 돌아가 장로 정원회 회원이 됩니다.

스테이크 대제사 정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스테이크 회장단은 대제사 정원회 회원들을 만나 함께 협의하고, 간증하며, 훈련을 제공합니다. 지침서에 나오는 스테이크 모임들은 다음 두 가지 변경을 제외하고는 계속 진행됩니다.

첫째, 와드와 스테이크는 더 이상 신권 집행 위원회 모임을 열지 않습니다. 만일 민감한 가족 문제나 예상치 못한 복지 관련 문제와 같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런 문제는 확대 감독단 모임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덜 민감한 사안들은 와드

평의회에서 논의합니다. 스테이크 신권 집행 위원회 모임으로 알고 있던 모임은 이제 “고등평의회 모임”으로 부르게 됩니다.

둘째, 스테이크에서 대제사로 성임된 모든 형제들이 모이던 연례 모임은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 회장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들로 구성된 스테이크 대제사 정원회 연례 모임을 계속하여 엽니다.

와드에 하나 이상의 장로 정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89절에 언급된 내용에 비추어, 한 와드에 활동적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유난히 많은 경우, 지도자들은 한 개 이상의 장로 정원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각 정원회는 정원회 회원들의 나이, 경험, 신권 직분 및 역량 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이 영감에 찬 정원회 재조직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우리는 크나큰 축복을 보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감독의 인도 아래, 더 많은 신권 자원들이 구원 사업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여기에는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루는 일, 어려움에 처한 가족 및 개인을 돕는 일, 그리고 선교사들이 더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도록 돕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전에 감리 역원이었던 지도자들이 해임된 후 장로 정원회로 돌아와 그들의

경험을 나눌 때, 그 정원회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정원회는 은사와 역량 면에서 더 큰 다양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와드와 정원회 내에 있는 필요 사항과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역을 베푸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성임된 장로와 경험 많은 대제사가 나란히 서서 정원회 모임에서나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서로의 경험을 나눌 때, 단합과 조언을 통한 성장이 증대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감독과 지부 회장은 불필요한 짐을 덜어, 양들을 인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야 할 그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와드와 스테이크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여러분이 이 연차 대회가 끝난 뒤 즉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따르리라 믿습니다. 이 지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자 책임입니까. 의로움과 부지런함을 다해 이 지시를 성취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권 권세는 성별과 성임을 통해 주어지지만, 실제 신권의 권능,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은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만 옵니다.

주님께서서는 회복의 선지자였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또 바라보라, 내가 너희의 양 떼를 돌볼 것이요, 장로들을 일으켜 그들에게 보내리라.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⁶

진실로, 이 시기에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뜻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 숙고하고 우리의 삶을 드높일 이

기회를 활용하여 그분께서 참되고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장엄한 사업의 일부가 되어 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업에 우리가 정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모두 끝나
분쟁 사라질 때
평화의 골짜기에
안전히 모여서
보좌 위에 앉으신
영원한 임금께
영원 무궁하도록
그 이름 찬양해

이기세 이기세
주 우리 구원했으니!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기세 이기세 이기세
주 예수 따라서¹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인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을 통해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리시는 것을 본 증인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속주이자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이고, 이것이 그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모스 3:7.
2. 교리와 성약 84:88.
3. “보라 당당한 군대”, 찬송가, 169장.
4. In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965), 2:354.
5. 엘마서 13장 참조.
6. 교리와 성약 88:72~73.
7. “보라 당당한 군대”, 찬송가, 169장.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영감받은 성역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집중할 때 성령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주를 위해 봉사하는 신권 책임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역사적인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7대 회장으로 지지했습니다. 매일 넬슨 회장님과 함께 일하는 축복을 누리며 저는 영을 통해 그분이 주님의 참된 교회를 이끌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받으셨다는 확신을 느낍니다.

또한, 주님께서 게릿 더블유 공 장로님과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그분들의 성역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 대회가 역사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영감받은 변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신권 책임을 더 잘 완수하도록 와드 및 스테이크의 신권 정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신권 책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신권으로 돌보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주님의 계획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방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나무 초기 시절에 그 도시로 물밀듯 밀려드는 대부분의 빈곤한 개종자들을 보살필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개종자 중에는 아이어링, 베니언, 롬니, 스미스 부부, 즉 제 증조부모 여덟 분도 계셨습니다. 선지자는 지역별로 그 성도들을 보살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와드”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평원을 가로지를 때 “부대”를 조직해서 서로를 보살폈습니다. 제 아버지 쪽 증조부 중 한 분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현재의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이동 중이던 한 부대를 만났습니다. 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제 증조부는 동반자와 함께 작은 마차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대 지도자는 두 명의 젊은 여성을 보내어 마차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 중 한 명은 스위스에서 개종한 젊은 자매였는데 선교사 중 한 명을 보고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제 증조부는 그 부대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건강이 충분히 회복된 증조부는 솔트레이크밸리까지 가는 동안 자신을 구해 준 그 젊은 자매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그분들은 제 증조부인 헨리 아이어링과 증조모 마리아 보멜리 아이어링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대륙을 가로지르며 겪은 엄청난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면 증조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니에요, 어렵지 않았답니다. 우리 둘은 걷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제 기억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 이후로도 주님께서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성도들이 서로를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와드와 스테이크에 강화되고 단합된 정원회를 두어 와드 모든 조직과 조화롭게 일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와드가 됐든, 부대가 됐든, 강화된 정원회가 됐든 주님께서 보살피시는 것처럼 당신의 성도들이 서로를 보살피게 하려는 그분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사익을 도모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느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사랑 …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모로나아서 7:47) 또한,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성신의 인도를 받을 때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그는 주님이 도우시려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마치 오늘 이곳에서 발표된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예견이라도 한 듯한 교회 회원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중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네 살 아론 신권 교사의 성찬식 말씀입니다. 그는 신권을 지닌 사람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 봉사하라는 영감을 받은 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와드 성찬식 모임에서 청남이 말씀한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열네 살이었을 때 어머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남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어린 청남에게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작년에 열네 살이 되어 와드 교사 정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교사에게는 집사의 모든 책임에 더해 몇 가지 새로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교사인 청남도 있고, 앞으로 교사가 될 청남도 있으며, 교회의 모든 사람은 신권으로 축복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모두 교사의 의무에 관해 더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째, 교리와 성약 20편 53절에는 ‘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라고

나옵니다.

다음으로 교리와 성약 20편 54~5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함께 모이도록 보살피며,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니라.”

그 청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써 계명을 지키고, 서로에게 친절하며, 정직하고, 좋은 친구가 되며, 함께 즐겁게 지낸다면, 우리는 영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름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가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회원들을 맞이하며, 성찬을 준비하고, 가정에서 도움이 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등 모범을 보일 때, 그는 자신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부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활동에 참여할 때만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디모데전서 4:12)

그런 다음 그 청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의로움의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저는 브라운 형제님 가족의 가정 복음 교사입니다.¹ 브라운 형제님 댁에 갈 때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을 알아 가며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브라운 형제님 가족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그 댁을 방문할 때마다 가족이 모두 저희 이야기를 경청하시며, 항상

훌륭한 일화를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 와드의 회원들을 잘 알게 되면, 교사의 다음 의무인 교회에서 회원들을 맞이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움으로써 와드의 모든 회원이 사랑받고 있으며 성찬을 취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회에 오는 회원들을 맞이한 후에 매주 성찬 준비를 돕습니다. 저는 이 와드에서 성찬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이 아주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찬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마다 항상 영을 느낍니다. 매주 일요일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성찬 전달과 같은 일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감사 인사를 받지만, 성찬 준비와 같은 일은 대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봉사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사람들이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봉사했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로서의 신권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교회, 친구 그리고 가족을 강화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않으십니다.”(니파이전서 3:7)

다음과 같은 그 청남의 결론을 듣고 저는 그의 성숙함과 지혜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한 달 전에 한 와드의 성찬식에서 신권 봉사에 관한 말씀을 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번은 경험 많고 원숙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이 강화된 신권 정원회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와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는 일곱



가정을 돌보도록 지명을 받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이 방문을 원하지 않았습니

다. 가정 복음 교사들이 집을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

다. 메시지를 남겨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선임 동반자였던 이 형제님은 마침내 편지를 써서 이 가족들을 보살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품고 봉투 색도 밝은 노란색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가정 중에 유럽에서 이민 온 저활동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그녀와 연락하려 애쓴 끝에 그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

다. 그녀는 너무 바빠서 가정 복음 교사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통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직업이 두 개였고 군 복무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업은 경찰관이었는데, 형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그녀의 집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주기적으로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



계속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다급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던 그녀는 감독은 몰랐지만, 가정 복음 교사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후에 군사 훈련을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주에 가 있어야 했는데, 자녀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돌봐 주기로 했던 그녀의 어머니가 병세가 위중한 남편을 돌보려고 유럽으로 막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이 저활동 자매는 막내를 유럽에 보낼 비행기 표는 살 수 있었지만, 12세 아들인 에릭의 표를 살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² 그녀는 가정 복음 교사에게 에릭을 30일 동안 집에서 돌봐줄 훌륭한 후기 성도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감독님은 그에게 상호부조회 회장을 비롯한 와드 평의회 역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즉시 훌륭한 후기 성도 네 가족을 찾았습니다. 에릭 연령대의 자녀가 있었던 그 네 가족은 일주일씩 돌아가며 에릭을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한 달 동안 에릭을 먹이고, 비좁거나 작은

집일지언정 그를 데리고 있었으며, 미리 계획된 여름 가족 활동에 데려가고, 교회에 데려왔으며, 가정의 밤에 참여하게 하는 등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에릭 연령대의 아들이 있었던 몇 가족은 그를 집사 정원회 모임과 활동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30일 동안 에릭은 처음으로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에릭은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보통은 자신을 돌봐준 후기 성도 네 가족 중 한 가족이나 어머니의 방문 교사를 포함해 그와 친구가 되어 준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이윽고 그는 집사로 성임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성찬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에릭의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그가 가족과 함께 모친의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감독의 인도 아래 마음에서 우리나라 사랑과 성신의 권능으로 봉사하고자 단합하여 일한 성도들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모로나이서 10:21; 또한 이터서 12:34 참조)

또한,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주어지는 은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모로나이서 7:48)

저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데 집중할 때 성령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주를 위해 봉사하는 신권 책임이 부여된 이유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더 쉽게 임하며, 성신은 사랑의 은사를 받기 위한 우리의 일생 여정의 조력자가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진전시킬 위대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권으로 성역을 베풀 때 더욱 영감받고 큰 사랑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가명을 사용함.
2. 가명을 사용함.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신권의 권능

여러분이 지닌 거룩한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의 부름 안에서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계시어 말씀하신 대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과 래스벤드 장로님, 그리고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전하신 중요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지도자요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포함하여 앞으로 전해질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책임을 수행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에 관해 자세히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고자, 저는 여러분이 소유하신 신권을 관장하는 몇 가지 근본 원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I. 신권

멜기세덱 신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실 목적으로 위임하신 신성한 권세입니다.(모세서 1:39) 1829년, 구주의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27:12 참조) 이 신권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신성하고 강력합니다.

신권의 열쇠란 신권 권세의 행사를 지시하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 사도는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할 때, 신권의 행사를 지시할

열쇠 또한 주었습니다.(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그러나 모든 신권 열쇠가 그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교리와 성약 128:18) 필요한 모든 열쇠와 지식은 “말씀에 말씀을 더”해 주어집니다.(21절) 다른 열쇠들이 주어진 것은 칠 년 후 쿠틀랜드 성전에서였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1~16 참조) 이 열쇠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등 당시에 추가로 주어진 과업에서 신권 권세를 지휘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은 지위나 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 이롭게 사용하도록 맡기신 신성한 권능입니다. 우리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신권” 그 자체는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권과 여성”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권 소유자와 여성”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II. 봉사의 영역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권을 소유한 이들에게 바라시는 것, 즉 사람의 영혼을 그분께 인도해야 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조직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들 조직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 해야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그들은 더욱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게 되고 주님의 사업은 더욱 강해지며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¹

또한, 스미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그 자격은 거룩한 신권의 반차 및 몇 가지 직분과 연관이 있으며, 이를 인간에 의해서 비롯된 직함으로 생각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꾸미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배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섬기기로 공언한 메시아의 사업에 우리가 겸손하게 임명됨을 의미합니다. …

…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위대한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하다면, 주님의 사랑, 인간의 구원, 지상에 있는 주님 왕국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²

III. 신권의 직분

주님의 교회에서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는 대제사를 가리켜 “널리 흠어져 있는 다른 여러 스테이크를 관장하는 상주 회장, 곧 종”이라고 합니다.(교리와 성약 124:134) 또한, 장로를 가리켜서는 “교회의 상주 성역자”라고 합니다.(교리와 성약 124:137) 다음은 이들 각각의 역할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대제사는 영적인 일을 수행하고 집행합니다.(교리와 성약 107:10, 12 참조) 또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대제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의무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는 연로한 이와 연소한 이가 따를 만한 본모기를 보여야 하며, 말로써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써도 의로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보다 연소한 이를 이롭게 하고, 그리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체의 중심에서 개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³

장로의 의무에 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입니다. … 장로는 주님을 대표하며, 주님을 대신하여 이웃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위임받습니다. 그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⁴

맥쿱키 장로님은 “그저 장로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비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장로는 교회의 회장과 동등한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장로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장로는 목자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의 양들 가운데 봉사하는 목자입니다.”⁵

선한 목자의 양들 가운데 성역을 베푸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멜기세덱 신권의 대제사 직분과 장로 직분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중대한 계시가 담긴 교리와 성약 107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는 영적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자기 자신의 직분과 또한 장로[의 직분을] (또는 아론 신권의 어느 직분이든)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07:10; 또한 12절 참조)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몰몬경의 선지자 야곱이 가르친 원리입니다. 야곱은 동생 요셉과 함께 각각 백성들의 제사와 교사로 성임된 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대하여 우리의 직분을 영화롭게 하되, 책임을 맡으며, 만일 우리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백성들의 죄가 우리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되[리라.]”(야곱서 1:19)

형제 여러분,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서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성과에 대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관장하는 신성한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의 서문을 계시하시며 우리의 목적과 책임을 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 신앙이 또한 땅에서 증가되게 하려 함이요, 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요,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선포되게 하려 함”입니다.(교리와 성약 1:20~23)

우리는 이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신권 부름과 책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4:33 참조)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권 소유자가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의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름을 마치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권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⁶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아들딸 중 한 명을 도우라고 친히 부탁하신다면, 그분께서 종들을 통해 해 오신 그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도움에 의지하여 “주님의 심부름”을 수행하시겠습니까?

리 회장님은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하여 또 이렇게도 가르치셨습니다. “돋보기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바라보면 눈으로만 볼 때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것이 돋보기입니다. 누군가가 신권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은 곧 신권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게 하며 다른 어느 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권을 영화롭게 합니다.”⁷

이제 한 신권 소유자가 자신의 신권 책임을 영화롭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다호의 한 스테이크 대회에 제 동반자로 참석했던 제프리 디 에렉슨 장로님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제프리는 이제 막 결혼한 젊은 장로였던 시절에 몹시 가난했습니다. 대학에서 남은 일 년을 마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매력적인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제프리가 속한 장로 정원회의 회장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제가 소유한 신권 열쇠의 중요성을 이해하십니까?” 제프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로 정원회 회장은 그가 대학을 그만두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주님께서 여러 날 밤을 한잠도 못 자도록 자신을 괴롭히시며 제프리에게 다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형제님의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서, 대학을 그만두지 않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프리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제프리 디 에렉슨 장로를 만났고, 그는 신권 소유자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권고] 덕분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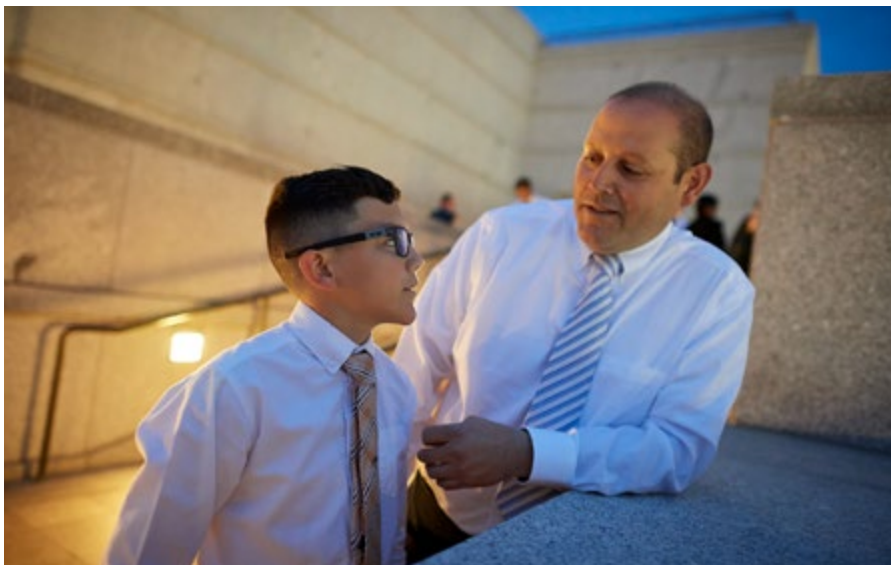
한 사람의 신권 소유자가 자신의 신권과 부름을 영화롭게 한 덕분에 하나님의 다른 한 자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IV. 가정에서의 신권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신권이 하는 역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가정에서의 신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권 권세는 그 기능을 위한 열쇠를 소유한 사람의 지시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신권 권세를 행사할 때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⁸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는 자신이 지닌 그 신권의 권세로 자신의 가정을 감리합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권고하고, 가족 모임을 열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신권 축복을 주고,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병자 축복을 줄 때는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 지시받거나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신권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하는 다른 어떤 일만큼이나 교회의 사명을 진척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벨기세켄 신권을 지닌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을 줄 신권 권능을 지닐 수 있도록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아버지는 가족들과 애정 어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신권 축복을 권장해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가족 선언문에서 가르치듯, 아내의 “동등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십시오.⁹ 또한, 여러분이 지닌 신권 권세의 권능과 영향력을 행사할 특권을 얻게 될 때는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시오.(교리와 성약 121:41) 신권 권세를 행사하기 위한 이와 같은 높은 표준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교회의 회장이 된 직후에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권의 힘은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닥칠 때나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는





러셀 엠 넬슨 회장

커다란 홍수나 화재, 굶주림의 위협이 있을 때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시지만 한다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신권의 [권능],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가 그 신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사하기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 위대한 신권을 지니는 축복을 받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¹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지닌 거룩한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의 부름 안에서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분을 증거하며, 신권이 그분의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겪으신 속죄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부활을 통해 모든 남성과 여성이 불멸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이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업을 행하며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몫을 다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343쪽.
2.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340, 343쪽.
3.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 (1939), 182.
4. 브루스 알 맥롱키, “장로리아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2쪽.
5. 브루스 알 맥롱키, “장로리아만”, 2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92쪽.
7.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L. Williams (1996), 499.
8. 델린 에이치 옥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4~27쪽 참조.
9.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참조.
10. 가르침: 해롤드 비 리, 97쪽.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과 그분의 거룩한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정 기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일회장단으로서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향하는 여러분의 삶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부름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이시는 헌신과 이타적인 봉사는 저희가 가진 부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평생을 봉사해 오면서, 저는 정말로 어디에서 봉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어떻게 봉사하느냐입니다.

저는 50년 이상 동안 세계 모범이 되어 주셨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그분의 보좌이셨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께도 마음을 다해 존경을 표합니다. 그분들이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보인 봉사를 치하합니다. 이 헌신적인 주님의 종 두 분 모두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굳건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담긴 그분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음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신권의 열쇠를 포함한 하나님의 신권의 회복은 합당한 후기 성도들이 모든 영적 축복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여성, 남성,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부름과 엔다우먼트 및 기타 성전 의식에 내재된 권능을 이해하는 충실한 여성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하늘의 권능을 끌어 내리는 법을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맡은 부름에서 두려움 없이 이끌고 가르치며 성역을 베푸는, 영적으로 강한 여성들입니다! 그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이 받은 특권에 걸맞게 생활하는 충실한 남성들을 봅니다. 그들은 사랑과 친절과 인내를 가지고 희생을 감내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봉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신권 권능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며, 강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혼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자들에게 기적을 가져다줍니다. 그들은 악을 피하는 자들이며 이스라엘의 강한 장로들입니다.² 누구보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걱정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신권의 권능과 권세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는 듯이 행동합니다.

너무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그 특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³ 예를 들어, 어떤 형제들은 신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권으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성찬식에 참석해서 갖 태어난 아기가 이름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아버지는 그 어여쁜 아기를 팔로 안고서 이름을 명명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기에게 축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기는 이름은 받았지만 축복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장로였던 그 아버지는 기도와 신권 축복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닌 신권 권세와 권능으로 그의 아기를 축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들 중에는 자매들을 초등학교, 청년, 상호부조회 지도자와 교사로 성별할 때 성별은 하지만 그들이 지닌 권능으로 그 부름을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은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권고와 지침만 줍니다. 합당한 아버지면서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신권 축복을 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가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신권 권능이 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된 신권 축복을 받지 못한 채로 삶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비극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주신 위대한 확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요.”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 여러분,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있는 정원회의 모든 회원들이 신권 축복을 주는 법을 알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불러오기 위해 개인적인 함당성과 영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⁵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 여러분,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회원들이 성약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전을 공부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으로서 신앙으로 봉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순종과 의로움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성신을 동반하게 하며, 삶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구별 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⁶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풀 것입니다.⁷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

60여 년 전 보스턴에서 했던 경험을 통해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푸는 특권이 얼마나 강한 힘을 지닐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당시 저는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의 외과 수련의였고 매일, 야간에는 격일로, 주말은 격주로 근무했었습니다. 제 아내와 네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활동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지부 회장님은 저를 월버와 레노라 콕스 부부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임무를 주셨으며 콕스 형제님이 다시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콕스 형제님 부부는 성전에서 인봉된 부부였습니다.⁸ 그러나, 형제님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셨습니다.

제 동반자와 저는 그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콕스 자매님은 저희를 환영해 주셨지만,⁹ 콕스

형제님은 투명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방으로 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무물거리는 소리로 “들어오세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콕스 형제님은 여러 가지 아마추어 무선 통신 장비들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작은 방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 방문을 그리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고는 말했습니다. “콕스 형제님, 저는 항상 아마추어 무선 통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죄송하게도 오늘 밤은 이제 가 봐야 합니다만, 다음에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은 훌륭한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문했고 그분은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방문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들도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콕스 형제님 가족을 돌봤습니다.¹⁰

제가 처음 그 집을 찾아간 이후 8년 정도 지났을 때 보스턴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¹¹ 초대 스테이크 회장이 누구였는지 맞춰 보시겠습니까? 네! 콕스 형제님입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선교부 회장과 성전 회장으로도 봉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유타주 샌퍼트 카운티에 새로운 스테이크를 조직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접견을 하고 있는데, 놀랍고도 기쁘게 저는 제 사랑하는 친구인 콕스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새로운 스테이크 축복사로 불러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를 성임한 뒤, 우리는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 나이든 두 사람이 왜 우는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콕스 자매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30여 년 전 어느 밤 그들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사랑과 회개의 놀라운 여정을 조용히 회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콕스 형제님과 자매님의 가족은 세 명의 자녀와 20명의 손주, 그리고 54명의 증손주를 두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의 영향력은 수백 명의 선교사들에게, 수천 명의 성전 방문자들에게, 그리고 콕스 형제가 손을 얹고 축복사의 축복을 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콕스 부부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서 많은 세대를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월버와 레노라 콕스 부부의 이야기와 같은 경험들이 매주, 어쩌면 매일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납된 종이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열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신권 축복이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 줄 수 있는 집이, 강화할 수 있는 간증이, 구원할 수 있는 삶이, 그리고 후기 성도의 가정에 가져다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제일회장단



달린 에이치 옥스
제1보좌



러셀 엠 넬슨
회장



헨리 비 아이어럼 회장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엠 엠 벤네티



제프리 알 홀런드



디이터 에프 우흐토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엠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케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런드



게릿 더블유 공



울리세스 소아레스

칠십인 회장단



엠 엠 벤네티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린 지 루트



후안 에이 우에다



패트릭 키어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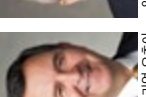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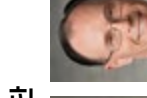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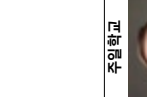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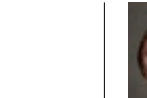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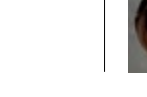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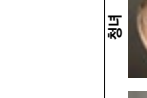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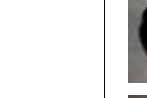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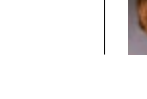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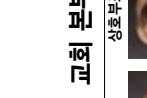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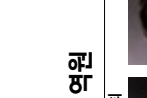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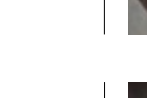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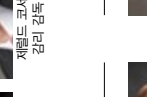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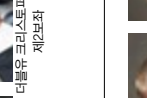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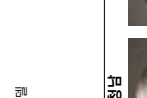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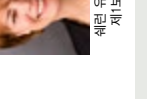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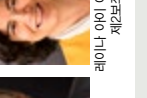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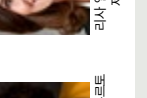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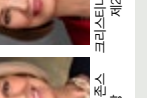





칼비 쿡



로버트 시 게이

최신인 총관리 직원(알파벳 순)

 마르쿠스 에이 아우버카히스	 호세 알 발렌소스	 윌리엄 빌리엄 에드워드	 이안 에스 버먼	 마이클 비어너드	 스티븐 알 발가터	 다블유 마크 배저	 테이비드 에스 펠스디	 린들 케이 베네트	 세인 영 보웬	 마크 에이 브라그	 크레이그 에이 카든	 매튜 앨 카우터	 최영환	 제임스 티 콜라딘	 로렌스 이 코브리지	 말렌 빌리엄 코든	 제이 데브 코너쉬	 클라임스 앨 램 코스티	 호안안 이 코스타	 리구엔드 알 카레스 이세	 마시모 데 페오	 에드워드 듀보	 케빈 알 단칸	 타무스 케이 디스	 레리 잭이 에코 쏘크	 테이비드 에프 에벤즈	 앤리케 알 말라벨라	 브래들리 디 포스터	 윈디 디 링크	 에두아르도 카바렛	 잭 앤 제리드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테일러 지 고도이	 크리스토퍼 골든	 윌터 에프 곤잘레스	 시스코트 그로우	 도널드 엘 홀스트롬	 캐빈 에스 해밀턴	 앨런 디 헤이니	 미티아스 헬드	 데이비드 피 호머	 폴 브이 존슨	 래리 에스 캐처	 외르크 콜레방가트	 조니 엘 쿠흐	 에리크 다블유 쿠퍼파슈케	 우고 이 마르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리처드 제이 메인즈	 카를 에스 매케이	 피터 에프 웨르	 추고 몬토야	 마커스 비 내쉬	 케이 브랜 나트렉스	 에스 기보드 닐슨	 브랜트 에이치 닐슨	 에이트리언 오조아	 앨런 에프 배커	 에스 마크 마더	 캐빈 다블유 피어슨	 앤소니 디 퍼킨스	 폴 비 피아퍼	 존 시 핑그리 이세	 스콧 디 와이팅	 마이클 티 랭우드	 에번 에이 슈무츠	 호르헤 에프 셰바토스	 클라우디오 디 지비	 스티븐 이 스노우	 번 피 스만벨	 브라이언 케이 터일러	 마이클 존 우 테	 호세 에이 타세이라	 아블로 빌렌주엘라	 후안 파블로 바이르	 터런스 영 빈슨	 다카시 와타	 비니엘라 비 외블로	 스콧 디 와이팅	 래리 와이 랭슨	 치 흥 (생) 링	 가즈에코 아사히타	 호르헤 에프 셰바토스	 클라우디오 디 지비	 스티븐 이 스노우	 번 피 스만벨	 브라이언 케이 터일러	 마이클 존 우 테	 호세 에이 타세이라	 다블유 크리스토퍼 외벨	 제럴드 코세 갈리 감독	 단 영 데이비스	 제니 보자	 제니 보자	 제니 보자	 제니 보자	 제니 보자	 제니 보자	 제니 보자	 제니 보자	 제니 보자	 제니 보자	 제니 보자	 제니 보자	 데빈 지 두린트	 테드 알 폴리스타	 브라이언 케이 에쉬턴	 마셀 디 크레이그	 노니 에이치 코든	 베기 크레이븐	 해먼 뉘앙크	 진비 뉘앙	 레이나 아이 아우르토	 리사 엘 하르니스	 조이 디 존스	 크리스티나 비 프랑고	 다블루스 디 롱즈	 스티븐 다블루 오언	 앤 조엘 보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리 감독단

 단 영 데이비스	 제럴드 코세	 다블루 크리스토퍼 외벨
---	---	---

교회 본부 직원

 데빈 지 두린트	 테드 알 폴리스타	 브라이언 케이 에쉬턴	 마셀 디 크레이그	 노니 에이치 코든	 베기 크레이븐	 해먼 뉘앙크	 진비 뉘앙	 레이나 아이 아우르토	 리사 엘 하르니스	 조이 디 존스	 크리스티나 비 프랑고	 다블루스 디 롱즈	 스티븐 다블루 오언	 앤 조엘 보르
---	--	--	--	--	--	---	--	---	--	--	--	--	---	--





래리 와이 일슨 장로
철십인

“심히 큰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좇아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비”된 자들입니다.¹²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이 위대하고도
영원한 형제애 안에서 문자 그대로 저와
함께 일어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권 직분을 말하면 일어서서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집사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교사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제사 여러분! 감독 여러분! 장로 여러분!
대제사 여러분! 축복사 여러분! 철십인
여러분! 사도 여러분!

이제 형제 여러분, 일어난 채로 함께
“Rise up, O Men of God”이라는 찬송가의
세 절을 함께 불러 주시겠습니까?¹³ 노래를
부르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을 돕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가진 책임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벨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6쪽 참조.
2. 러셀 엠 벨슨, “신권 권능의 값”, *리아호나*, 2016년 5월, 66~69쪽 참조; 또한 엘머서 13:7~8; 교리와 성약 84:17~20, 35~38; 참조.
3. 교리와 성약 84:19~22; 107:18~19; 조셀 스미스 영감 역, 창세기 14:30~31 (경진 안내서) 참조.
4. 교리와 성약 132:47.
5. 신권의 권능과 개인적인 의로움 사이의 관계는 러셀 엠 벨슨의 말씀, “신권 권능의 값”, 66~69쪽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교리와 성약 121:34~37, 41~44 참조.
6.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개인과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이 필수적인 일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1~20; 사도행전 6:1~6; 에베소서 4:11~14; 모사이사서 18:9, 18~19, 27~29; 교리와 성약 20:42, 51, 57 참고한다.
7. 제3니파이 17:9~10, 20~21 참조.
8. 유타 맨타이 성전, 1937년 6월 15일.
9. 수 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레오노라가 했던 금식과 기도는 분명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10. 1954년에 이라 테리 지부 회장은 월버를 지부 주일 학교 관리자로 불렀다. 월버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지혜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습관을 완전히 버렸다. 그는 남은 평생을 구주의 사업에 봉사하는 일에 바쳤다.
11. 1962년.
12. 엘머서 13:3.
13. “Rise Up, O Men of God”, *Hymns*, no. 324.

성령을 여러분의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 은사는 바로 성령입니다.

이 부활절 안식일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고, 믿는 이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겨 내셨다는 희망을 주는 텅 빈 무덤을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¹

이 구절에서 사용된 영어 단어 *quicken*이 의미하는 바는 살아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능을 통해 육체적 사망으로부터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그분은 영적인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² 모세서에는 아담이 이런 종류의 깨어남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왔으니, 이같이 그가 영으로 태어났고 속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더라.”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 은사는 성령인데, 이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⁴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소중한 은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는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⁵ 그것을 잘 보여 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해군 소위였던 프랭크 블레어라는 형제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 수송선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⁶ 그 수송선은 정식 군목이 배치될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으므로 대령은 블레어 형제에게 임시 군목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부대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앙심과 원칙을 지닌 이 젊은 청년을 그간 눈여겨봤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어 소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수송선이 거센 태풍을 만났다. 파도 높이가 약 14미터에 달했다. 나는 불침번을 서고 있었는데 … 수송선의 엔진 세 개 중 한 개가 멈춰 버린 데다 중심선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나마 남은 두 개의 엔진 중 하나마저도 절반밖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블레어 소위가 불침번을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대령이 그의 방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는 “부디 이 배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나?”라고 물었고, 블레이어 소위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블레이어 소위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디 우리 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는 배의 안전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블레이어 형제는 함교에 가서 대령과 이야기해 보고, 상황을 더 파악하라는 성신의 속삭임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결과, 대령이 남아 있는 엔진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동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이어 소위는 선실로 돌아와 이렇게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엔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배 위를 걸어 다니면서 상황을 더 파악해야 한다는 성신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령에게 돌아와서 갑판으로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는 구명 밧줄을 허리에 감은 채 폭풍이 몰아치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선미에 서서 배가 파도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물 밖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프로펠러를 관찰했습니다. 온전히 작동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 프로펠러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블레이어 소위는 다시 한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엔진이 과부하 상태이므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령에게 돌아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대령은 놀라워하면서 기관사는 방금 그와 정반대로 태풍을 뚫고 나가기 위해 정상 엔진의 속도를 더 높이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령은 블레이어 소위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엔진 속도를 줄였습니다. 새벽 무렵, 배는 파도가 잔잔한 수역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두 시간 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엔진은 작동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엔진의 속도를 절반으로 줄인 덕분에 배는 가까스로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령은 블레이어 소위에게 “그때 엔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폭풍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춰 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엔진 없이는 배를 움직이게 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므로, 배는 아마도 뒤집혀 가라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 대령은 이 젊은 후기 성도 장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블레이어 소위의 영적인 느낌을 따랐기 때문에 배와 부대원들을 구할 수 있었음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극적인 일화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영의 인도를 더욱 자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에 관한 한 우리의 안테나를

하늘의 주파수에 올바르게 맞추어야 합니다. 블레이어 소위는 고결하고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순종적이지 않았다면, 배의 안전을 위해 그가 했던 방식으로 기도하여 그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데 필요한 영적인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분의 계명과 조화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신호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하늘과 다시 명확하게 교통할 수 있습니다. 구약전서에서 회개하다라는 말은 “돌이키다” 또는 “다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⁷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죄를 회개하고 몸을 돌려 구주를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분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인도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⁸

두 번째, 블레이어 소위는 주님께 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그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여쭙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여,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라고 여쭙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저 문제를 늘어놓고 주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대신, 우리는 주의 도움을 받고 영의 인도에 따라 행하겠다고 결심하기 위해 더욱 주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블레이어 소위의 이야기에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영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평온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성신의 은사에 쌓인 묵은 먼지를 털어 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젊은이는 전임 선교사 시절이나 다른 경험들을 통해 이미 여러 번 실천해 보았던 방식을 분명히 따랐던 것입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아야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만일 그런다면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기 때문에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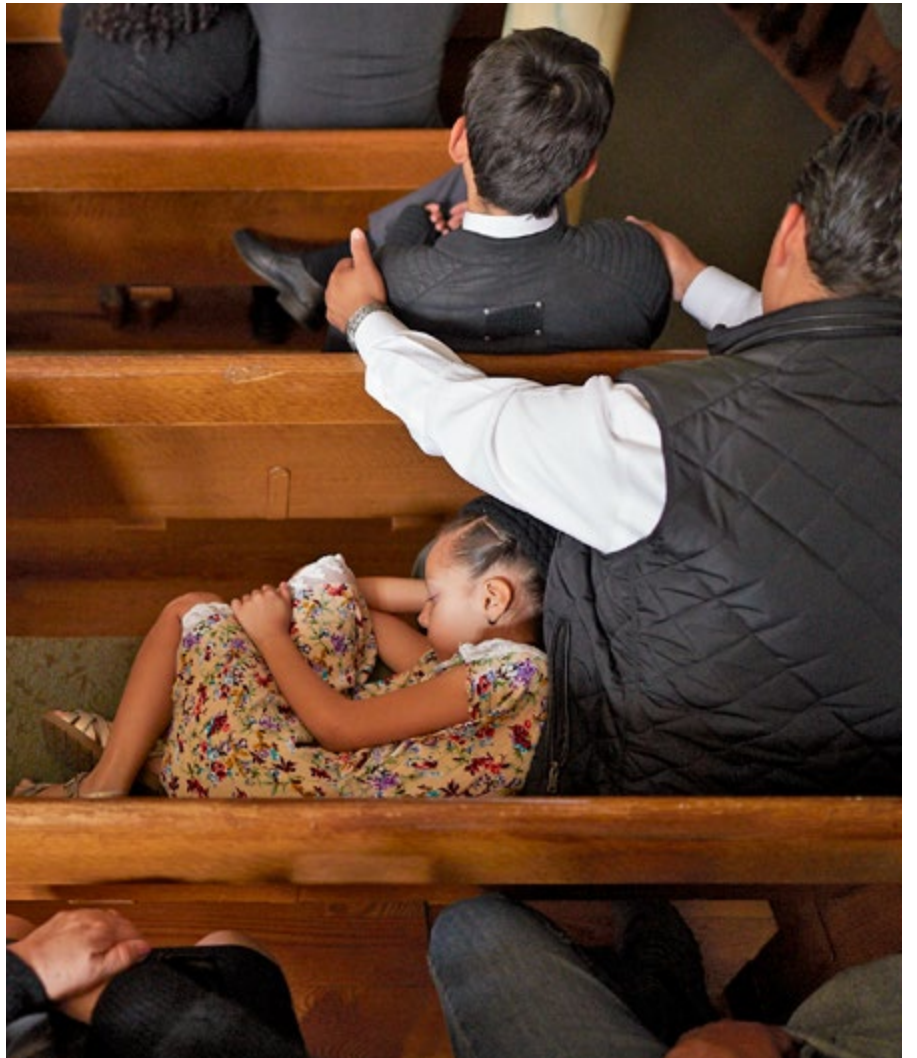
매일 영의 인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전 구절은 초기 선교사 중 몇 명이 그들 스스로 받아야 할 계시를 조셉 스미스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청했던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 주께서는 “그들과 나 사이에서 상의하는 대로”¹⁰ 선교 임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그들의 여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스스로 인도를 구하기를 미처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두고 계으르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 회원들은 참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들떠서 스스로 계시를 받는 방법을 배우지 못할 뻔했습니다. 영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그분의 영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엘마는 아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고 권고했습니다.¹¹ 우리가 흔히 “영에 따라 산다”고 말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고귀한 특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평온함과 확신뿐만 아니라 사랑, 기쁨, 화평과 같은 영의 열매도 얻게 됩니다.¹²

블레이 소위는 계시를 받는 능력을 가진 덕택에 자신과 부대원들을 거센 폭풍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물몬경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비유는¹³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을지를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 줍니다. 이 꿈에는 갑작스런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영적 파멸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¹⁴

그 장면을 생각하노라면,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쇠막대를 굳게 잡은 채 가고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앞사람의 발만 보고 쫓아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후자가 걷는 방법은 생각도 노력도 적게 듭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화장한 날씨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임수의 폭풍과 거저의 안개는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신의 음성에 익숙하냐의 여부는 영적인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¹⁵

앞사람의 발만 보고 쫓아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만 할 수는 없으며, 삶에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쇠막대를 직접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확신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¹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로마서 8:11; 또한 요한복음 14:16 참조.
2. 니파이후서 2:21; 엘마서 42:9 참조.
3. 모세서 6:65.
4. 로마서 8:2; 또한 니파이후서 25:25 참조.
5. 교리와 성약 45:57.
6. 프랭크 블레이의 승인을 받아 공개한 경험담. 블레이 형제님은 이제 89세이며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컨퍼런스 센터에 오셨다.
7. 예를 들어, 에스겔서 14장 6절에서 “마음을 돌이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알파벳으로 쓰면 ‘shoob’인데, 그 말은 “돌이키다” 또는 “다시 돌아가다”라는 뜻이다. (역자 주-영문에서는 ‘마음을 돌이켜’라는 부분이 ‘회개하여[repent]’라고 번역되어 있음) (See James Strong, *The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1890], no. 7725).
8. 야콥서 6:5; 모사이아서 16:12; 엘마서 5:33; 19:36; 29:10; 제3니파이 9:14 참조.
9. 교리와 성약 58:26.
10. 교리와 성약 58:25; 강조체 추가.
11. 엘마서 37:37; 강조체 추가.
12. 갈라디아서 5:22 참조.
13. 니파이전서 8장; 12장; 15장 참조.
14. 니파이전서 8:23~24; 12:17 참조.
15. 니파이전서 15:24; 강조체 추가.
16. 교리와 성약 112:10.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마음을 같이하여

숭고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 왕얼룩나비는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피조물 중 하나입니다. 남편의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멕시코로 가던 중, 저희는 수백만 마리의 제왕얼룩나비들이 겨울 동안 서식하는 나비 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신성한 법칙에 조화를 이루어 순응하는 인상적인 광경을 보며 그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것은 멋진 일이었습니다.¹

제왕얼룩나비는 대단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위치를 통해 가야 할 방향을 찾습니다. 매년 봄, 그들은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매년 가을, 다시 멕시코에 있는 본래의 신성한 전나무 숲으로 돌아갑니다.² 그들은 매해 반복되는 여행에서, 매 순간 자그마한 날개를 팔랑이며 나아갑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밤이 되면 나무 위에 함께 모여

추위와 포식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합니다.³

나비 떼들의 모습은 만화경 속의 형상과도 같습니다.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화경 속의 모든 나비는 각각 자신만의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께서는 이 연약해 보이는 생명체가 생존하고, 여행하며, 번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니며 꽃가루를 퍼뜨려 생명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나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제왕얼룩나비들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재회하게 될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⁵ 이 나비들처럼, 우리도 삶의 길을 찾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신성한 성품을 받았습시다.⁶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맺는다면,⁷ 주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⁸ 우리를 아름다운 만화경과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소년 소년, 청년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명하셨습니다.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됨에 있어서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목적, 사랑,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셨습니다.¹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완전한 모범을 따라 그분들과, 그리고 서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멕시코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왕얼룩나비처럼, 우리도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영감을 주는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그들이]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와 간구]에 힘쓰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¹¹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직후에 한 일과 그들의 노력으로 받은 축복들에 대해 읽을 수 있는 사도행전에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셔서 성역을 베푸실 당시에 신앙에 충실했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모범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며, 다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장소에서 충실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행한 일 중 몇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본 것입니다.¹²

주님의 제자들은 목적, 사랑,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며,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만화경의 일부로서 마음을 같이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으로는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으며, 교회가 성장하고, 백성 가운데 다름이 없었으며, 주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¹³

그들이 그렇게 단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신성한 사명,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며, 그분의 손발에 난 상처를 보았고 만져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이며 세상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모든 치유와 평안과 영원한 진보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¹⁴

비록 우리가 구주를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성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 위해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대해 더 큰 이해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¹⁵ 우리는 가족, 와드 및 지역 사회라는 만화경 속에서 하나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며, “더 새롭고 나은 방법으로”¹⁶ 서로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인도를 받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재해가 닥쳤을 때 이웃 간에 사랑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휴스턴에 커다란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 사항을 버려두고 다른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 장로 정원회 회장이 지역 사회에 도움을 청하자, 77척의 배로 이루어진 구조대가 신속하게

조직되었습니다. 구조대는 피해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가족들을 우리 교회 집회소 중의 하나로 옮겨 주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피난처와 필요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원과 비회원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일한 것입니다.

칠레 산티아고의 한 상호부조회 회장은 아이티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온 이주민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과 협의하면서, 그녀와 다른 지도자들은 그 이민자들이 새로운 정착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스페인어 수업을 개설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선교사들은 열의에 찬 학생들과 함께 모입니다. 그 건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느낌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봉사하는 감동적인 예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두 차례 발생한 대지진의 생존자들을 돕기 위해 수백명의 회원들이 여러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도구와 장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이 지시를 받기 위해 집회소에 함께 모였을 때, 익수아탄시의 시장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나타난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¹⁷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매달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서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는, 와드와 지부라는 만화경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는 길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어디로 가려는지, 어떤 사람이 되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로 함께 협의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시각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계시를 받”으며,¹⁸ 우리가 받은 그 계시들을 함께 모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음이 되어 일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¹⁹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구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²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왕얼룩나비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단합하여,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각자의 특성으로 공헌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조화를 이루며,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분도 우리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¹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오늘처럼 아름다운 봄날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으뜸되는 제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십니다.²²

부디 우리가 성신의 인도로써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아브라함서 3:26; 4:7, 9~12, 15, 18, 21, 24~25 참조.
2. 제왕얼룩나비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이 나비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3세대에 걸쳐 캐나다를 향하여 북쪽으로 여행하지만, “슈퍼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는 한 세대만으로 남쪽의 멕시코까지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낸 뒤, 북쪽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해낸다. (See “Flight: A Few Million Little Creatures That Could,” WBUR News, Sept. 28, 2012, wbur.org.)
3. See “Why Do Monarchs Form Overnight Roosts during Fall Migration?” learner.org/jnorth/tm/monarch/sl/17/text.html.
4. See “What Is a Group of Butterflies Called?” amazingbutterflies.com/frequentlyaskedquestions.htm; see also “kaleidoscope,” merriam-webster.com. Kaleidoscope는 그리스어 *kalos* (“아름다운”)와 *eidos* (“모양”)에서 왔다.
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참조.
6. 교리와 성약 88:19; 또한 교리와 성약 88:25 참조.
7. 모사이야서 18:21 참조.
8. 제3니파이 10:4.
9. 교리와 성약 38:27.
10. 모사이야서 15:7.
11. 사도행전 1:14; 강조체 추가.
12.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한 일들: 새로운 사도와 청장반의 사람 일곱을 택하고, 지지함(사도행전 1:26; 6:3~5 참조); 오순절에 다같이 모임(사도행전 2:1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사도행전 2:22~36; 3:13~26; 4:10, 33; 5:42);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침례를 베풀음(사도행전 2:38~41 참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씀(사도행전 2:42 참조);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함(사도행전 2:44~46; 4:34~35 참조); 성전에 모임(사도행전 2:46 참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음(사도행전

2:46 참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사도행전 2:47 참조); 신앙에 복종함(사도행전 6:7 참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씀(사도행전 6:4 참조). 미 대륙의 성도들이 한 일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제3니파이 28:23 참조);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함(제4니파이 1:1 참조);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음(제4니파이 1:1 참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함(제4니파이 1:2 참조);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함(제4니파이 1:3 참조); 다시 성읍들을 세움(제4니파이 1:7~9 참조); 시집가고 장가감(제4니파이 1:11 참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좇아 행함(제4니파이 1:12 참조); 음식과 기도를 계속함(제4니파이 1:12 참조);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함(제4니파이 1:12 참조).

13.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받은 축복: 성신의 충만함을 받음(사도행전 2:4; 4:31 참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사도행전 2:4~18 참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남(사도행전 2:43 참조); 기적이 일어남(사도행전 3:1~10; 5:18~19; 6:8, 15 참조); 더 많은 백성들이 들어옴(사도행전 2:47; 5:14 참조). 미 대륙의 성도들이 받은 축복: 백성들이 주께로 들어옴(제3니파이 28:23; 제4니파이 1:2 참조); 그 세대의 백성들이 복을 받음(제3니파이 28:23 참조); 백성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음(제4니파이 1:2, 13, 15, 18 참조);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없었음(제4니파이 1:3 참조); 백성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됨(제4니파이 1:3 참조); 땅에는 평화가 있음(제3니파이 1:4 참조); 크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남(제4니파이 1:5, 13 참조); 주께서는 저들을 땅에서 심히 번영하게 하심(제4니파이 1:7, 18 참조); 백성은 점점 강하여지고, 심히 빠르게 번성하며, 심히 아름답고 기뻐하심을 얻는 백성이 됨(제4니파이 1:10 참조); 주께서 저들에게 맺으신 수많은 약속대로 복을 받음(제4니파이 1:11 참조);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름이 없었더라.”(제4니파이 1:15);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제4니파이 1:16); “도적이거나 살인자도 없었고 레이맨인이라든가 무슨무슨인이라고 불리움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었던라.”(제4니파이 1:17); 주께서 그들의 범사에 복을 주셨음(제4니파이 1:18 참조).
14. 진 비 영,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85쪽.
15. 제4니파이 1:15 참조.
16. 제프리 알 홀랜드, “교회의 대표자,”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62쪽.
17. 모로나이서 7:47.
18. 닐 엘 앤더슨, “보조 조직 패널들, 새로운 훈련 자료실을 사용하다”에서 발췌, *리아호나*, 2011년 4월호, 76쪽.
19. 마태복음 22:37~40 참조.
20. 야곱서 5:61.
21. 마태복음 18:20 참조.
22. 디모데전서 6:15.



마시모 데 페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순수한 사랑: 모든 참된 제자의 징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
그리고 그 두 분과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셀 엠 벨슨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벨슨 회장님은 제 마음속에 특별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다.

제가 젊은 아버지였을 때, 하루는 다섯 살이던 어린 아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들은 새로운 반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뽑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명은 그의 아버지가 시의 경찰청장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버지가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아들에게 저에 관해 물어보자, 아들은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컴퓨터로 일해.” 자신의 답변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음을 깨달은 아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있잖아, 우리 아빠는 우주의 지배자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구원의 계획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자녀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그것이 사랑의 계획임을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 그리고 그 두 분과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원을 통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원을 통해 크고 첫째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의 초석이며 우리 일상생활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¹

우리 일상생활의 초석이 되는 순수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에게 필요한 조건입니다.

선지자 몰몬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²

참으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를 나타내는 진정한 징표입니다.

참된 제자는 즐겨 봉사합니다. 그들은 봉사가 참된 사랑과 그들이 침례받을 때 맺은 성약의 표현임을 압니다.³ 교회 부름이나





사회에서 맡은 역할에 상관없이, 그들은 주님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바람이 커짐을 느낍니다.

참된 제자는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들은 구주의 속죄가 우리 각자의 모든 죄와 실수에 적용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주님이 “모든 것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셨음을 압니다. 거기에는 죄와 실수와 잘못에 관련된 영적인 세금, 비용, 수수료,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빠르게 용서하며 속히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용서할 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속죄가 지닌 구속의 축복에서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즐겨 따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고 순종적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있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도 그분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압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 안에서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강하고 확고합니다. 참된 제자는 영과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즐겨 들으며, 세상의 목소리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거룩한 곳에 서[는]”⁴ 것과 그들이 서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를 즐깁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합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사랑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약을 사랑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그들의 본성이 변화됩니다.

순수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의 진정한 징표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순수한 사랑에 관해 배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전 어느 날, 저는 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잘 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되나 보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는 가냘픈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겠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싶구나. 네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은 안단다. 그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하지?”

어머니는 그분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은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저는 결코 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진실하며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원의 계획은 모르셨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개인적인 사랑의 계획, 즉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는 기도할 힘을 내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떻게 저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정작 기도가 필요한 것은 어머니신데 말아야.”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자신에 대해서는 잊으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어머니는 자기 자신보다 저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구주께서 행하신 일과 같지 않습니까? 물론 영원하고 훨씬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그날 밤 동산에서 주님께서서는 절정의 고난 중에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조차 없는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자기 자신을 잊고 모든 죄값을 치르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와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순수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 치르신 대가로 말미암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늘 그렇듯, 그분의 순수한 사랑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의 진정한 징표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가족이든, 친구이든, 단순히 아는 사람이든, 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랑과 친절로 대하겠다고 결심합시다.”⁵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제계 그것은 전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구주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주려 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조용히 봉사하는 자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저의 구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삶을 사랑합니다. 제계는 그것이 전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구주의 부활을 기억하는 오늘이 우리 각자에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일상생활의 초석”인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의 진정한 징표인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저의 기도입니다. 아멘. ■

주

1. 제프리 알 홀랜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26쪽.
2. 모로나이서 7:48.
3. 모사이야서 18:10 참조.
4. 교리와 성약 45:32.
5. 토마스 에스 몬슨, “사랑—복음의 정수”,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4쪽.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
철십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으며 알고 있는 바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 저희 부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체험형 어린이 전시회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 갈 무렵,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악수를 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디십시오. 그러면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는 심오한 가르침인 동시에 우리 모두 단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

견디는 것은 “유혹이나 반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겠다는 결심으로 확고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²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하고 충실하게 봉사해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머릿속으로 항상 그리고 단호하게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³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당신과 거룩한 성약을 맺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숙고하며 우리 모두 시몬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⁴

우리가 믿으며 알고 있는 바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면,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더욱더 깊이 가라앉으며 타락하여 마침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영원의 모든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거나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더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이 지상 여정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께 깊이 숙고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성약을 맺는데, 이는 사람과 맺는 것이 아니라 구주와 맺는 약속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합니다.⁵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분을

섬기겠다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영적인 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당신의 사도들에게 이 의식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미 대륙에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의식에 참여한다면, 항상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항상 당신의 영광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⁶

엘마 이세가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전한 가르침은 우리가 맺은 성약을 충실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될 현명한 조언이자 경고입니다.

“주의하여 네가 자고함으로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참으로 주의하여 네 스스로의 지혜나, 네 많은 힘을 자랑하지 말라 담대하되, 지나쳐 위압하지 말고, 또한 주의하여 네 모든 걱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주의하여 게으름을 삼가라.”⁷

몇 년 전, 휴가를 맞아 저는 난생처음으로 카약을 타러 갔습니다. 저는 카약을 빌리고는, 의욕에 넘쳐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제가 탄 카약이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한 손에는 노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카약을 붙잡은 채 저는 겨우 발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카약에 타서 노를 저어 보려 했지만,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뒤집혔습니다. 저는 집요하게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카약 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제 배에 금이 간 것 같으며 그 틈으로 물이 차 카약이 불안정하게 흔들려서 제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해변으로 카약을 끌고 나와 배수구 마개를 열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제 카약의 벌어진 틈처럼 우리의 영적 발전을 저해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고집한다면, 그러한 죄로 인해 삶이 균형을 잃고 계속 뒤집히는데도 주님과 맺은 성약을 망각한 채 떠오르지 못합니다.





제 카약의 갈라진 틈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구멍에 대해서도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회개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구주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디쯤에 있는가? 우리의 태도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와 같은가? 아니면 구주에게서 위대한 사명을 받은 후에 그가 보였던 태도와 결심과 같은 정도에 이를 만큼 발전했는가?⁸

우리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키기 가장 어려운 계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 계시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소망을 나타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분께서는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⁹

우리는 순종을 통해 죄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시련을 겪을 때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할 것이 요구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공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다.
2. 매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을 취한다.
3. 십일조를 내고 매달 금식 헌금을 낸다.
4. 2년마다, 청소년의 경우 매년 성전 추천서를 갱신한다.
5. 평생 주님의 사업에 봉사한다.

복음의 위대한 진리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합시다. 이생의 바다를 향해하는 우리의 안전한 여정을 위협할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합시다.

주님의 길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대가가 따릅니다. 성공을 거두는 유일한 방법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위대한 속죄 희생을 치르시고 끝까지 견디셨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고통, 좌절, 괴로움, 연약함, 두려움을 대신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감과 위안을 주시며, 우리를 강화하시어 끝까지 견디어 패배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왕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아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시련과 행복을 겪고, 결정을 내리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기회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늘 너와 함께한다. 포기하지 말거라. 회개하고, 내가 보여 준 길에서 끝까지 견디거라. 그리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늘 본향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4:13.
2. 경전 안내서, “견디다”, scriptures.lds.org.
3. 요한복음 6:66~67.
4. 요한복음 6:68.
5. 교리와 성약 20:37.
6. 제3니파이 18:7 참조.
7. 앨머서 38:11~12.
8. 마가복음 16:15 참조.
9. 이터서 12:27.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분의 영광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어지는 영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저는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부활 절기를 맞이하여 주님의 안식일에, 그분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말씀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려 기꺼이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시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속죄 덕분에 언젠가

저도 부활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안다는 것은 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압니다. 성신은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제 생각과 마음에 단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지속적인 위안이 필요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기에 영이 주시는 위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병상 곁에 서서 그러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께서 힘겨운 숨을 몰아쉬시다가 이윽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통이 떠난 어머니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적막을 깨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녀가 분향으로 돌아갔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평화로우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참되다고 알고 계셨던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어머니의 물건들을 챙기시고는 복도로 나가셔서 그동안 어머니를 보살핀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성신이 함께하셨기에

그런 느낌과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처럼 아버지도 “[우리가] 그의 영광 함께 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20:79)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소망과 그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은 부활하신 존재이시며 성신은 영의 인격체이십니다.(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그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맞이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매주 듣지만 마음과 머리에 항상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영광 함께하려면 우리는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구주의 희생과, 그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신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장면들이 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아내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무덤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구주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믿는 바로 그 무덤이었습니다.

안내인은 손짓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셔서 빈 무덤을 보십시오.”

우리는 허리를 굽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로 된 침상이 벽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그날 본 것처럼 선명한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떠나고 나서 무덤가에 홀로 남은 마리아의 그림이었습니다. 영은 제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만큼이나 선명하게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보고, 심지어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않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요한복음 20:11~17)

저는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느꼈던
감정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구주를 예루살렘을 찾은 방문객이라 여기고
동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29~32)

저는 약 70년 전 참석했던 한
성찬식에서도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성찬식 모임이 저녁에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회중은 친숙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그전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받은 느낌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느낌은 저를
구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제가
지금 그 노랫말을 들려드리면, 여러분도 같은
느낌을 느끼실 것입니다.

낮도 다간 이 저녁에
황혼의 그림자
어둔 밤 밀려오나니

함께 거하소서
제 집에 유하옵소서
내 반가운 손님

온종일 주 나와 함께
거닐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기쁨
타는 듯합니다
내 영혼 채워 주시고
가까이 계신 주

주여 이 밤 나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주여 이 밤 나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¹

어떤 모임에 대한 기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확인해 주시는 성신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의 고요한 음성과 함께 전해졌던
그 느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느꼈던 것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뜨거운 느낌보다는

작고 고요한 확신을 느낀 적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신을 동반하게 되리라는 소중한 약속이 주어졌으며, 그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에 관한 참된 지침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권세를 지닌 종들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성신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동안 영의 성역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겠다고 선택할 의무를 집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경험은 우리에게 지침이 됩니다. 그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기에는 자신의 지혜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그의 성역을 시작했고 또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조셉은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것은 그가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지 알고자 했던 시기에 그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성신께서는 평생 동안 그를 위로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주어진 영감을 따르기 어려울 때도 순종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셉은 열두 사도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그들을 영국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이 심한 박해에 시달렸을 때도 그는 영이 주시는 책망과 위안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카테지로 가는 길에 자신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성신에게서 영적인 인도와 위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받는지에 관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내린 선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기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시받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다른 영감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이들의 필요와 마음을 알고,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도울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영감을 구하며, 인도를 받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시는 모습들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자주 기도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염려가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영감을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감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매우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한번은 저희 감독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와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도우러 가 보면, 항상 형제님의 아내분이 먼저 다녀가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제 내내는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모든 위대한 종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위대한 종들은 성신을 항상 동반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사랑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받은 은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기도와 영감과 주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작용하는지 다음 말씀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14~21)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영적, 현세적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시다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전합니다. 또한 성신의 은사를 지니고 있고, 그 축복을 구하며, 그 은사에 합당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신은 그들을 우리 삶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한계시록 3:20~22)

저는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어지는 영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열어 영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영감을 구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살아 있는 선지자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저는 단지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속삭여 주시는 영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영의 세계에 있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와 독생자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신이 주시는 위안과 인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영을 변치 않는 동반자로 삼는 기쁨을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낮도 다간 이 저녁에”, 찬송가, 72장.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작고 단순한 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축적되어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I.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들고 느낀 메시지와 음악과 느낌에 교화되었으며, 깊은 감명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인 형제 자매님들께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부활절 일요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에게 신앙의 기둥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과 몰몬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부활에 관한 기록들을 믿기에, 이와 비슷한 부활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필멸의 인간에게 오리라는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 또한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베드로전서 1:3) 이 산 소망이란 죽음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자비로운 계획의 필수 단계일 뿐이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 계획에는 필멸에서 불멸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의 부활을 통해 일몰처럼 사명이 물러가고 영광스러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일요일에 우리는 이를 기념합니다.

II.

엘리자 알 스노우가 작사한 훌륭한 찬송가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완전하시어서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 이루셨네¹

이러한 신성한 계획을 실현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대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에서 서로를 가르치고 복돋웁니다.

오늘 아침, 저는 몰몬경에서 엘마가 아들 힐라멘에게 전한 다음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엘마서 37: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작고 단순한 많은 일을 배웁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축적되어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총관리 역원과 그 외 존경받는 교사들이 이 주제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강조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서, 작고 단순한 일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휘하는 힘을 일깨워 주는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콘크리트 보도에 금이 갔습니다. 어떤 크고 강력한 힘이 나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처의 나무에서 뿌리가 천천히 조금씩 뻗으면서 이렇게 금이 간 것입니다. 여기, 제가 다른 길에서 본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이 두꺼운 콘크리트 보도를 금 가게 한 힘은 하루 혹은 한 달 단위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약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작고 단순한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끼치는 강력한 영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라고 가르침 받은 경전 공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와 무릎을 꿇고 드리는 가족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이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독신 성인이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각각의 활동은 작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력한 영적 발전과 성장을 낳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의 설명대로, 이런 각각의 작고 단순한 일이 우리를 일깨우고 진리로 인도하는 증언자, 곧 성신을 동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발전과 성장의 또 다른 근원은 사소한 듯한 범법일지라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고, 어떻게 더 나아질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기 전에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회개의 과정에서 생각해 볼 몇 가지 주제는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라는 찬송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
궁핍한 사람 도왔다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줬나
우리 실수 하지 말고
남의 짐을 즐겨 짊어집시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으로 위로하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²

이런 일들은 분명 작은 일이지만, 엘마가 아들 힐라맨에게 준 다음 가르침의 좋은 예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고 영원한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방편으로 일하시나니, 주께서는 아주 작은 방편으로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느니라.”(앨마서 37:7)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의 총장인 스티븐 시 윌라이트는 그곳 학생들에게 엘마의 가르침에 관해 이와 같은 영감 어린 설명을 했습니다. “엘마가 아들에게 확인해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작고 단순한 일에서 그분의 권고를 따를 때, 참으로 주님은 매일의 작은 기적들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일로 축복하십니다.”³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들과 대비됩니다.”⁴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을 지낸 댄 코츠는 같은 원리에 관해, 종교와는 관련이 없지만 설득력 있는 다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국가마저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결정을 토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혼자 내리는 이러한 결정들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고 꼭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자의식을 형성하게 한다.”⁵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러한 개인적인 결정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무엇을 볼지, 무엇을 읽을지, 직장과 집에서 어떤 예술과 음악을 가까이할지, 어떤 오락을 즐길지, 정직하고 진실하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포함합니다. 작고 단순해 보이는 또 한 가지 일은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서 예의 바르고 쾌활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람직한 작고 단순한 일들을 꾸준히 계속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일들을 통해 더욱 큰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작고 단순한 상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데 모이면 상당한 중요성을 띠게 되며, 한 남성이나 여성의 일생을 압축해서 보여 줍니다.”⁶

우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와 퇴보하는 문화의 조류에 휩싸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의 가치관은 강의 하류로 쓸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표를 향해 상류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노를 젓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더 적용해 봅시다. 물살이 너무 세다 하여 노 젓기를 멈추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목적지로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니파이는 사소해 보이거나 큰 결과를 낳은 사건에 관해 이야기한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작은 수단으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심을 알게 되느니라.”(니파이전서 16:29) 이에 대한 인상적인 예가 구약전서에 나오는데, 불뱀으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민수기 21:6 참조) 백성을 구해 달라고 기도한 모세는, “눗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뱀에게 물린 자가 눗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습니다.(9절) 그렇게 작은 일이 이처럼 기적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니파이가 주님께 반항하는 형들에게 이 예를 가르칠 때 설명했듯이, 나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주님이 마련하셨을 때조차 “그 방법이 간단하였음으로 인하여, 곧 쉬웠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니파이전서 17:41)

이 예와 가르침은 우리가 지시받은 일이

쉽거나 그 방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의로운 소망을 이루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님을 깨우쳐 줍니다.

이와 비슷하게, 작은 불순종 행위나 의로움에서 조금 벗어난 행동으로도, 우리는 경고받은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이에 관한 예시를 보여 줍니다. 담배 한 개비나 술 한 잔 또는 한 번 복용한 마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미미해서 측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은 강력해져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무뿌리가 점차 조금씩 뻗어 보도에 금이 가게 했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마약이나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키는 외설물처럼, 무엇이든 중독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데에 따르는 파괴적인 결과는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단 한 번이라도 취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 해 전에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작고 단순한 일들이 인간의 구원에 얼마나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약한 섬유질이 실이 되고 끈이 되며 결국 밧줄이 되듯이, 함께 결합된 이러한 작은 것들이 너무 강해져 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을 쌓는데 있어 작고 단순한 것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절망과 불행으로 이끌기 위해 작고 간단한 일을 이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⁷

일라이트 총장은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이와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작고 단순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신앙이 흔들리고 기적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왕국 구하기를 더 많은 현세적인 추구와 세속적인 야망으로 대체할 때, 먼저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향한 전진이 멈추며, 그 다음에는 후퇴하기 시작합니다.”⁸

우리의 영적 진보를 해하는, 누적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우리는 작고 단순한 일의 영적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토양에 아주 조금씩 물을 떨어뜨리는 기술에서 우리는 영적 패턴의 특성과 중요성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물이 필요 없을 토양에 대량의 물을 퍼붓거나 뿌리는 것과 대조됩니다.

“꾸준히 떨어지는 물방울은 땅속 깊이 스며들어 토양의 수분 함량을 크게 늘리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자양분이라는 끊임없는 물방울을 수시로 집중 공급받는다면, 복음은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 댈어나고 맛있는 열매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작고 단순한 일로 큰일이 이루어지는 영적 패턴은 우리를 단단하고 굳건하게 하고 헌신의 깊이를 더해 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더욱 온전히 개심하게 합니다.”⁹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에 포함된 다음 말씀으로 이 원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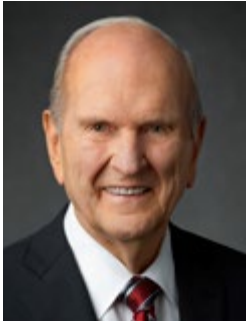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지어다. 이는 장래에 성도에 관한 많은 일이 이 일에 달려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23:15)

초기에 미주리에 교회를 세우려 시도했던 일에 관하여 주님은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므로(교리와 성약 64:32) 인내할 것을 권고하신 다음, 이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저는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라는 러셀 엠 벨슨 회장의 권고를 우리 모두가 따르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¹⁰ 그렇게 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작은 일”을 계속해서 따름으로써 강화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며, 성약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2.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 찬송가, 182장.
3. Steven C. Wheelwright, “The Power of Small and Simple Things” (Brigham Young University - Hawaii devotional, Aug. 31, 2007), 2, devotional.byuh.edu.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2015), 165쪽.
5. Dan Coats, “America’s Youth: A Crisis of Character,” *Imprimis*, vol. 20, no. 9 (Sept. 1991), 4; see also Elder Wilford Andersen in his column in the *Mesa Tribune*, May 1996.
6. Brigham Young, discourse in Ogden Tabernacle, July 19, 1877, as reported in “Discourse,” *Deseret News*, Oct. 17, 1877, 578.
7. 엠 러셀 벨라드, “작고 단순한 일”, *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7~8쪽.
8. Steven C. Wheelwright, “The Power of Small and Simple Things,” 3.
9. David A. Bednar, “By Small and Simple Things Are Great Things Brought to Pass” (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Apr. 29, 2011), womensconference.byu.edu.
10. 러셀 엠 벨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6~7쪽.



러셀 엠 넬슨 회장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연 차 대회가 열리는 일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오늘,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분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 중 가장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셋세마네 동안에서 무한한 속죄를 치르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와 악함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으며, 그 고통은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습니다.¹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박히셨고² 셋째 날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 첫 번째로 부활하신 존재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구속주의 무한하신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망은 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속죄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가능해지고 불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분의 초월적인 사명 덕분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 덕분에, 2018년 1월 2일 한밤중에 잠을 깨운 전화를 통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회장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아내인 웬디와 저는 위안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과 유산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적인 거인이셨던 그분은 그분이 사랑하셨던 교회에, 그리고 그분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족적과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2018년 1월 14일 일요일에 솔트레이크 성전 위층 방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단순하면서도 성스러운 방식을 통해 제일회장단이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성회에서, 앞서 사도들이 결정한 사항을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이 손을 들어 승인하고 지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 자리에 앞서 계셨던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34년간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면서 과거 열여섯 분의

교회 회장들 중 열 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분들 각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제 조상들에게도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제 증조부모님 여덟 분 모두 유럽에서 이 교회로 개종하셨습니다. 이 충실하신 분들 모두 시온으로 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대를 이어 오면서 제 모든 조상들이 충실하게 남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복음에 중심을 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분들은 제 전부였으며, 제게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와 제 형제자매에게 만들어 주신 행복한 가정은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였음에도 저는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대중 교통을 이용해 이 교회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 위해 후기 성도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에 대해 배우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지혜의 말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 부모님들이 그 율법에 따라 생활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언젠가, 저는 지하실로 내려가서 집에 있던 모든 술병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께 혼이 나리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라면서 장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은 필요없어! 내가 바라는 선물은 내 부모님께 인봉되는 거야.” 그 염원은 제 부모님이 여든 살이 넘으신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날 느낀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³ 부모님이 인봉되시고, 제가 그분들께 인봉되던 그날의 기쁨이 매일마다 느껴집니다.

제가 의대에 다니고 있던 1945년에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단첼 화이트와 결혼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홉 명의 아름다운 딸들과 한 명의 소중한 아들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커지고 성장하고 있는 제 가족은 제 삶에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거의 60년이 다 되어

가던 2005년에 사랑하는 단첼은 예상치 못하게 부름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저는 슬픔으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주는 메시지와 부활에 대한 약속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님께서서는 웬디 왓슨을 제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006년 4월 6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그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녀는 저와 제 가족과 교회 전체에 큰 축복이 되는 특별한 여성입니다.

이 각각의 축복들은 성신의 속삭임을 구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왔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이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매일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 이는 모든 후기 성도가 지닌 당당한 특권입니다.”⁴

제가 교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부름받은 이후로 영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말해 주는 것들 중 하나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꺼이 그분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특권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련하신 가장 위대한 은사들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성신의 나타내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든 의로운 것을 추구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수술실 환자 옆에 서서 이제껏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수술을 어떻게 집도해야 할지 몰랐을 때, 성신이 제 마음속에 그 수술법을 그려 주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⁵

웬디가 제 프리포즈를 받아들여도록 설득하기 위해,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시에 대해 알고, 계시를 어떻게 받는지도 압니다.” 그녀의 답변은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우리 둘에 대해 개인적인 계시를 구했고 받았으며, 이를 통해 프리포즈를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받는 것이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매일 계시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고 그분께서 제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맡은 부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 대해 경고받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신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에서 모두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두 명의 새로운 보좌를 선택하는 어려운 임무에 직면했을 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열두 분들 중에서 단 두 명을 고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영감은 훌륭한 정보를 기초로 온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각의 사도분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⁶ 그런 뒤 저는 성전 내의 조용한 방으로 가서 홀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을 제일회장단에서 저의 보좌로 봉사하도록 지시하셨음을 간증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주님께서 공 장로님과 소아레스 장로님을 부르시고 그분의 사도로 성별하도록 지시하셨음을 간증합니다. 저와 다른 사도들은 두 분이 봉사와 형제어로 하나 된 특별한 정원회에 합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 모임을 할 때면, 그 모임 장소는 계시의 장소가 됩니다. 분명히 감지될 만큼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복잡한 사안으로 씨름하게 될 때면, 각 사도가 자신만의 생각과 시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흥미로운 과정이 전개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 각자의 시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품은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단합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임들은 결코 다수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단합된 의견에 이를 때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뒤 완전한 의견 일치에 이르게 될 때 성신을 통해 오는 단합의 영향력에 실로 우리는 전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지자 조셉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의미했던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합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얻습니다.”⁷ 제일회장단이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 중 주님의 교회에 대한 결정을 주님께 여쭙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종이 되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남성과 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한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패턴을 확립해 주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야고보의 약속에 이끌려,⁸ 소년 조셉은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계시를 구했으며, 그 일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시를 구할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시급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조셉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께 향하여 응답과 위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약함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받은 느낌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수 개월에 걸쳐, 수 년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⁹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할] ...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 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¹⁰

여러분은 무엇이 참된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¹¹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여러분은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만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참된 것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증거와 간증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얻기 위해,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우시도록 촉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네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¹²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주의 섭리를 알려 주고 계시이 분명합니다!”¹³

더욱 정결하게 생활하고, 정확히 순종하며, 간절히 구하고, 매일 물론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고,¹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하늘이 닫혀 있다고 생각되는 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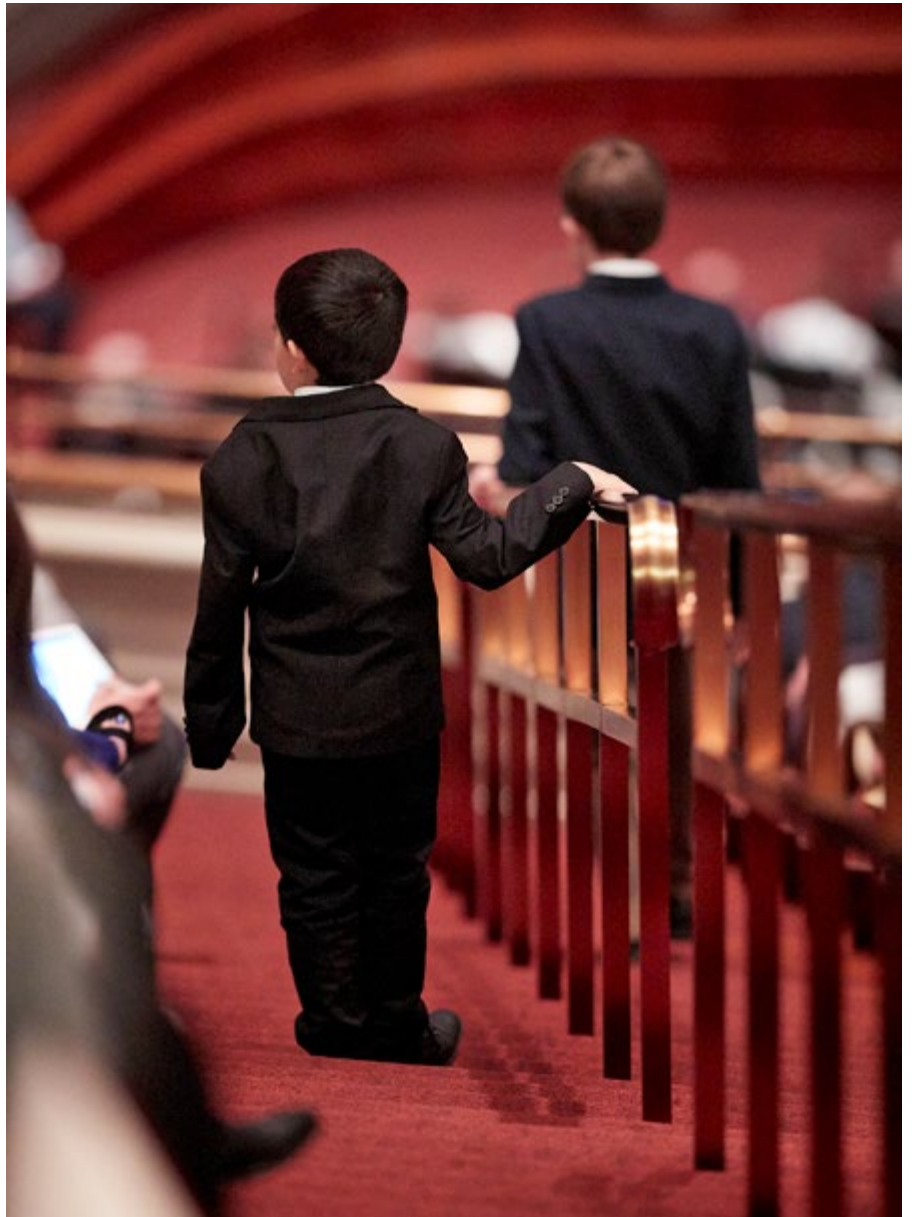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를 표하며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지식과 이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이, 심지어 기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발전하고, 기여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날이 장밋빛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다단하고 다툼이 늘어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가능한 소셜 미디어와 24시간 내내 생산되는 뉴스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정보와 메시지를 쏟아 냅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무수한 의견과 인간의 철학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걸러 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대와 재림의 시기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장엄함과 영광 속에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부활 주일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성신의 은사를 향유하고 영의 음성을 더 자주, 더 분명히 듣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일들을 하고자 선택하십시오.

모로나이와 함께, 저는 여러분께 이 부활절 안식일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도록 촉구합니다. 그 은사들 중 성신의 은사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은사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것입니다.¹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신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는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모범이시며, 우리 구속주이십니다. 이 부활절 일요일에, 우리는 그분의 속죄 희생과, 문자 그대로의 부활과, 신성을 기념합니다.

이 교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9:18.
2. 누가복음 23:33 참조.
3. 앨마서 26:16 참조.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76쪽.
5. 러셀 엠 넬슨, “기도의 부드러운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8쪽 참조.
6. 제3니파이 28:1 참조.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93~394쪽.
8. 야고보서 1:5 참조.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32쪽.
10. 교리와 성약 121:33.
11. 모로나이서 10:5 참조.
12. 교리와 성약 42:61.
13. Neal A. Maxwell, “Meek and Lowly”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Oct. 21, 1986), 9, speeches.byu.edu.
14. 니파이후서 32:3 참조.
15. 모로나이서 10:30.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 부활하셨네

오늘은 부활절 일요일입니다. 저는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잠자리에서 강아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찬송가를 불러 주곤 했는데 “주님 부활하셨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¹ 가끔은 장난스럽게 이렇게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잠들 시간이니네 알렐루야.” 아들들은 보통 금방 잠이 들었는데, 자기들이 잠이 들어야 제가 노래를 멈추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리셀 엠 빌슨 회장님께서서는 저와 제 사랑하는 아내를 앞에 두시고 사랑을 담아 제 손을 잡으시며, 주님으로부터 온 이 성스러운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숨이 멎을 듯했으며 그 후 며칠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압도적인 느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안식일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알렐루야”라고 노래합니다. 부활하신 구주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는² (우리를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이어 주는) 성약과,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³ 조화를 찬미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과 우리 구주의 속죄는 함께 연합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고결하게 합니다. 이 둘은 우리가 복음에는 충실하고 악에서는 멀어지도록 도와 줍니다. 이 둘은 행복을 가져오고, 지켜 주며, 성결하게 하고, 구속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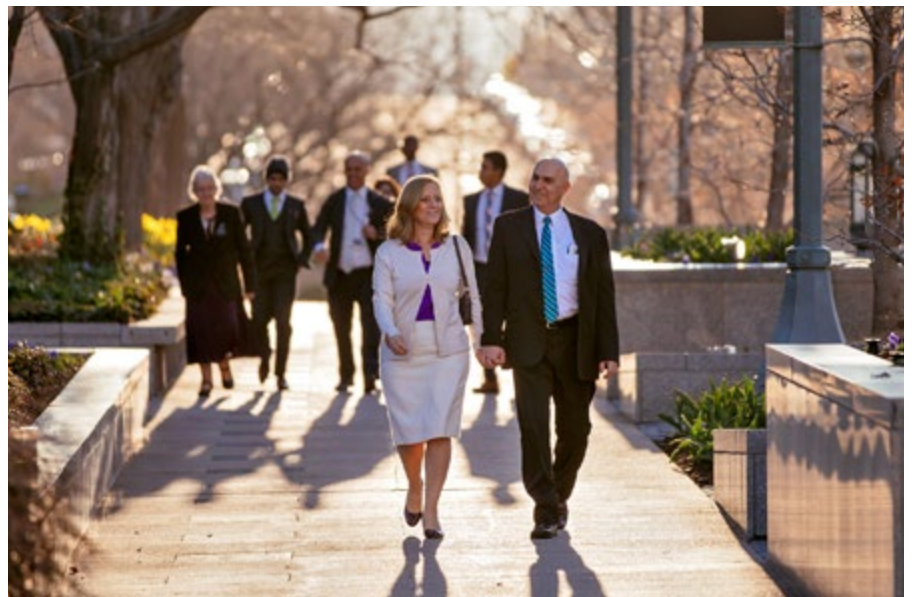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땅에서 기록하거나 매는 것과 하늘에서 매는 권능이 매우 대담한 교리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볼 때, 주께서 실제의 계시로써 어떠한 사람 또는 어느

집단에게 신권의 경륜의 시대를 주셨을 때에는 언제나 이 권능이 주어졌느니라.”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약과 의식은 오직 전 세계 43개국에 세워진 159곳의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은 회복된 신권 열쇠와 교리, 권세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순종, 그리고 성령의 약속에 따라 현세와 영원에 걸쳐 우리 세대에게 주어집니다.

세계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속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발자취에서 생생한 신앙과 소망, 사랑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충만한 복음에 대한 간증과 경험으로 함께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⁵ “단합과 ... 사랑 가운데 마음이 함께 맺어”질 수 있습니다.⁶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말씀하셨듯, “와서 보”십시오.⁷

오늘 저는 제 구주와 사랑하는 아내 수잔과 제 가족과 동료 형제님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영혼의 모든 힘과 능력을⁸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합당하고 영원한 모든 것은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실재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신이 그것을 증거합니다.⁹ 오늘은 부활절 일요일입니다. 저는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¹⁰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¹¹ 그분은 우리와 시작부터 함께하셨고, 끝까지 함께하실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부터 우리가 기쁘게 지지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러셀 엠넬슨 회장님까지 후기의 모든 선지자를 증거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그분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¹²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을 비롯한 거룩한 경전들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지상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¹³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주님 부활하셨네”, 찬송가, 122장.
2. 엘마서 5:26 참조.
3. 모사이아서 3:19 참조.
4. 교리와 성약 128:9.
5. 모사이아서 18:9 참조.
6. 모사이아서 18:21.
7. 요한복음 1:39.
8. 니파이전서 15:25 참조.
9.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을 받았으니, 이로써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섰으면, 받으리라 하신 바 그가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니파이후서 31:18)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11. 교리와 성약 19:1 참조.
12. “선지자 따라”, 어린이 노래책, 58~59쪽.
13. 물문경 소개.

선지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합니다

선지자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과 그분들께서 주신 약속을 알려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손을 들어 저를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우리나라 오는 진실한 감사를 전합니다. 제 심정은 말이 어눌하고 더디다고 여겼던 모세의 심정과 같습니다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다음 말씀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애굽기 4:11~12; 또한 10절 참조)

또한 세계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제 아내도 큰 위안이 됩니다. 아내는 선함과 사랑의, 그리고 주님과 저와 우리 가족에 대한 온전한 헌신의 모범이 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며, 아내가 우리 가족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러셀 엠넬슨 회장님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더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벨슨 회장이 이 성스러운 부름을 주셨을 때 저는 제가 이 책임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부드러운 눈빛을 통해 저를 감싸 안는 듯한 구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벨슨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를 따르려 하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 참으로 위안을 줍니다. 선지자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과 그분들께서 주신 약속을 백성들에게 알려 줍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년 전, 저와 제 아내는 당시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희 부부에게 포르투갈에서 선교부 회장과 그 동반자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주 후에 그 부름을 시작하게 된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여겼지만,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받는 것을 제일 염려했는데, 예전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자를 받으려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우스트 회장은 저희에게 비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리라는 신앙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힘차게 대답했고, 그 즉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어린 세 자녀들과 함께 영사관으로 갔습니다. 아주 친절할 여성분이 저희의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포르투갈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보고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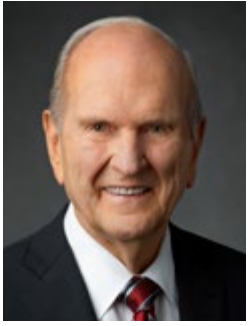


도와주시는 거 맞죠?” 저희는 확고하게 그렇다고 대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것이고 그분과 그분의 신성한 지상 사명에 대해 증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주 후에 저희는 영사관으로 다시 가서 비자를 발급받았고, 6주가 지나기 전에 주님의 선지자께서 명하신 바대로 선교 임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선지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한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간증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지상 사명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대변하며, 그분을 대표하도록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돌아가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덜 복잡해지며, 어려움과 문제점들은 감당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우리 주위로 영적 보호막이 형성되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이 부활절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살아 계시고, 그분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를 통해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그분은 구주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 승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



러셀 엠 넬슨 회장

성역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공 장로님, 소아레스 장로님, 가슴 따뜻해지는 신앙의 표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 분과 두 분의 사랑스런 아내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의 인도와 지시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¹

수 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 회원들의 영적 및 현세적 필요 사항을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어떻게 더 잘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인도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대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단순히 “성역”이라 지칭할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성역을 베푸는 방식은 자매님들의 타고난 은사에 의해, 그리고 비할 데 없는 신권의 권능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적의 교활한 간계로부터 이와 같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진 비 빙엄 자매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 회원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서 임무를 맡은 신권 형제들 및 상호부조회와 청녀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를 설명하시겠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은 하나로 단합하여 그분들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0:27 참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복돋아 주며”

오늘 모든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진심으로 보살필 것을 더 깊이 다짐하며 이 연차 대회를 마무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라 프 왈도 에머슨의 말을 달리 표현해 말해 보자면, 삶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순간들은 물 밑듯 밀려오는 계시를 받을 때입니다.¹ 벨슨 회장님, 이번 주말에 저희가 얼마나 더 많은 계시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중에는 심장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심장도 벨슨 회장님께 맡길 수 있군요. 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벨슨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놀라운 변화에 대한 견증을 더하겠습니다. 이 변화는 이 교회를 처음부터 인도해 온 계시의 본보기이자, 주님이 때가 되어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²

이 변동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배우려는 열망을 가진 여러분, 이 대회가 끝나는 즉시, 교회가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또한 기타 방법으로 제일회장단의 서한이 전달될 것입니다. 일곱 장 분량의 질의응답 문서가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첨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은

ministering.lds.org에 즉시 올라갈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³

이제 벨슨 회장님께서 저와 진 비 빙엄 자매님에게 주신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정원회와 보조 조직 사업이 조직적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우리 역시도 개인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기계적이고 무감각하게 역할을 반복하는 수준을 벗어나, 구주께서 지상에서의 성역을 마치며 말씀하신 진심 어린 제자 정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몇 안 되는 추종자들을 떠나고자 준비하실 때, 주님은 따라야 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늘어놓지 않으셨으며, 보고서를 한 문지 주시며 빠짐없이 채워서 복사본을 만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의 기본 계명으로 줄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⁴

이러한 복음의 이상향에 근접하고자 노력할 목적으로, 새롭게 발표된 신권 및 상호부조회 성역의 개념에는 무엇보다 다음 요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상호부조회에서 활용되어 이미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⁵

-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성역을 베풀고자 하는 노력의 많은 부분이 가정이라는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또 준비된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으로만 규정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메시지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성역을 베풀다는 이 개념의 주된 목적은 얼마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지침과 같이, “[사람들]을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⁶
- 우리는 여전히 가능하다면 가정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의 여건상 회원의 숫자가 많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개인적인 안전 등이 문제가 된다면 매달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수년 전 제일회장단이 권고드린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⁷ 우리는 실제로 방문할 일정을 세우는 것 외에도 전화 연락, 쪽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화상 통화, 교회 모임에서 대화하기, 봉사 활동 함께하기, 친목 활동,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의 여러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방문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강조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새롭고 확대된 관점을 갖게 되더라도, 제가 최근에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서 본 부끄러운 문구를 따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스티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올린 경적을 들으셨다면 그걸로 이번 달 가정 복음 교육을 받으신 겁니다.” 형제 여러분, 부디, (자매님들은 절대 이런 일은 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교회의 형제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화를 통해 현재 하고 있는 것 이하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각별히 보살피고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렇게 더욱 복음에 기초한 성역의 개념이 새롭게 나오니, 보고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고서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달 마지막 날 “그 집에 간신히 받은 들여놓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보고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성숙해지고자 합니다. 유일하게 보고될 내용은 각 와드에서 분기별로 지도자들이 성역 동반자들과 접견한 횟수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접견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정보가 없다면 감독이 와드 회원들의

영적, 현재적 상태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 성역자들은 감독단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을 대표하지만, 그들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과 정원회 회장이 가진 열쇠는 이 성역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 이 보고서는 과거에 여러분이 제출했던 보고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 본부에 있는 저희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성역을 베풀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저 여러분이 성역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했는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를⁸ 지상에 실현할 기회를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며”,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⁹ 과부와 고아, 기혼자와 미혼자, 마음이 강한 자와 심약한 자, 억압된 자와 강건한 자, 행복한 자와 슬퍼하는 자, 다시 말해 우리 모두를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따뜻한 우정의 손길을 느끼고, 신앙이 공고하게 선포되는 것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스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변화를 대담하고 새로우며 더 성스러운 방법으로 서로를 돌보는 권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명칭, 새로운 융통성, 줄어든 보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봉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더욱 널리 사랑의 율법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한 방법으로 봉사해 온 많은 세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더 많은 분이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라는¹⁰ 주님의 계명을 이해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에 제가 본 그러한 헌신의 모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일요일 오후 다섯 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애리조나주 템피에 사는 제 젊은 친구인 브렛과 크리스틴 햄블린 부부가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브렛은 감독단에서 봉사를 마치고, 크리스틴은 다섯 아이를 돌보며 바쁘게 하루를 보낸 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방암을 잘 이겨 낸 듯 보였던 크리스틴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온 응급 구조대는 크리스틴을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브렛은 간절히 기도하며 서둘러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녀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할 자신의 어머니였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가정 복음 교사인 에드윈 포터였습니다. 브렛과 에드윈의 통화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한 에드윈이 말했습니다. “브렛, 잘 지내요?”

브렛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무섭게 신권을 지닌 친구 에드윈이 브렛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브렛의 자녀들을 단속한 후 브렛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크리스틴을 실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틴은 의식을 잃은 지 4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에드윈은 흐느껴 우는 브렛을 그저 감싸 안고 아주 오랫동안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슬퍼하는 브렛을 함께 모여 있던 그의 가족에게 맡기고, 차를 몰고 감독님의 집으로 가서 방금 일어난 일을 전했습니다. 훌륭한 감독님은 그 길로 병원으로 떠났고, 에드윈은 브렛의 집으로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에드윈은 한달음에 달려온 그의 아내 살렙과 함께 엄마를 잃은 12살에서 3살까지의 다섯 명의 아이들과 놀아 주었습니다. 또 저녁을 먹고, 즉흥 음악 발표회를 연 뒤, 잠자리에 들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나중에 브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제가 전화하자 에드윈이 달려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제가 에드윈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남매들은 5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에드윈은 도움이 필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느끼는 그런 관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둘째 계명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고, 봉사하며,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¹¹

에드윈은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홀런드 장로님, 역설적인 것은 브렛이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저희 가족의 가정 복음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브렛은 의무를 수행해야 해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저희 가족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신권 소유자의 완벽한 전형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들을 비롯한 저희는 그를 월말이 되면 저희에게 의무적으로 메시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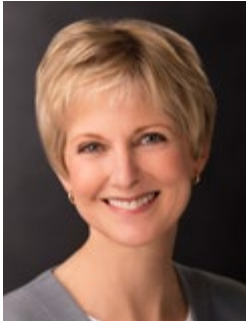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그는 바로 길 저편 모퉁이에 사는 친구이자, 저희를 축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사람입니다. 그에게 진 빚을 제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¹²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참으로 충실하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해 주신 그 옛날 ब्ल록 교사와 와드 교사,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블록 교사, 와드 교사: 1850년대부터 1964년까지 가정 복음 교사를 지칭하던 말—웁긴이) 오늘 저희는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역을 베풀 우리 청남 청녀가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힘입어 서로를 진심으로 보살필 것을 더 깊이 다짐하며 이 연차 대회를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 주고,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¹⁴ 방대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도우며, 포도원의 주님 옆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¹³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하는, 더욱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안식일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¹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See Ralph Waldo Emerson, *The Conduct of Life* (1860), 268.
2. 교리와 성약 88:73 참조.
3. 누가복음 11:9.
4. 요한복음 13:34~35.
5.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연락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월호, 7쪽 참조.
6. 모사이야서 23:18; 또한 교리와 성약 20:53 참조.
7. “회원을 돌보고 강화함”, 제일회장단 서한, 2001년 12월 10일 참조.
8. 야고보서 1:27.
9. 모사이야서 18:8~9.
10. 교리와 성약 20:53.
11. Brett Hamblin, personal correspondence, Feb. 2018.
12. Edwin Potter, personal correspondence, Feb. 2018.
13. 야람서 5:70~76 참조.
14. 교리와 성약 81:5 참조.
15. 요한복음 15:12 참조.



진 비 병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푸

우리의 영원한 자매와 형제에게 성역을 베푸므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보입시다.

하 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계시를 받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축복입니까! 예언된 사건들을 통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만물[의] 회복”을¹ 고대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²

사랑으로 서로에게 성역을 베푸므로써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더 잘 준비할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리라].”³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제자됨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보여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위대하고 영웅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봉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부활절 일요일에 우리는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속죄와 부활의 은사를 기념합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⁴ 하지만 그분은 다른 이에게 미소짓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걷고, 들으며,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용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족과 친구, 이웃과 모르는 이들에게 똑같이 봉사하셨고, 지인과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 복음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권유하셨습니다. 그분의 “단순한” 봉사 행위와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베푸는 모형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며 구주를 대표하는 특권을 지닐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이 사람 또는 이 가족과 복음의 빛을 나눌 수 있을까? 성신은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가?”

우리는 매우 다양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장로 정원희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무에 관해 토의하는 것이 성역의 한 예입니다. 지도자들이 성역자의 임무를 줄 때, 그저 임무를 적은 종이를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한 명 한 명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며 임무 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저녁 활동으로 게임을 하거나, 그들에게 봉사를 베풀거나 같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생일 카드를 전달하거나 그들이 참여하는 축구 경기 응원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 의미가 있을 성구나 연차 대회



인용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 질문을 토론하거나 명확함과 평온을 가져오는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필요 사항과 장점을 세심하고도 적절하게 토의하며 성역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대한 필요 사항을 돕기 위해 워드 평의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대학원 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나 멀리 이사한 어느 자매는 이러한 성역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어린 아기를 돌봐야 했던 그녀는 새로운 곳에서 혼란스러웠고, 길을 잃은 것 같았으며, 외로웠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한 상호부조회 자매가 아기에게 줄 신발 한 켤레를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엄마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식료품 가게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그 자매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매님은 저의 생명줄이셨어요!”

진정한 성역의 예시는 오랫동안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은 한 자매를 찾아가라는 임무를 받았던 아프리카의 어느 나이 많은 자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매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구타와 갈취를 당해서 먹을 음식도, 입을 옷도 없었으므로 스스로 일요일 교회 모임에 가기엔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역 임무를 받은 자매는 그 자매의 말을 경청했고, 자신의 정원에서 키운 농작물과 입을 성구를 가져왔으며,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자매는 곧 교회로 돌아왔으며, 이제 스스로가 사랑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와 이제 재조직된 장로 정원이 함께 노력할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만한 단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성역은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고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는]”⁵ 신권의 책임과, 영생의



축복을 준비하도록 서로 돕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 된 노력입니다.⁶ 감독의 지시 아래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함께 각 개인과 가족을 보살피고 돌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구할 때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곧바로 식사 및 병원까지의 교통편 제공과 다른 도움을 주려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자매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곁에서 그녀를 유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멬기세텍 신권 정원회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아픈 자매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침실과 욕실을 개조해 주었습니다. 청남들도 육체노동을 봉사하며 이 중대한 노력에 가담했습니다. 청녀들도 기쁘게 동참했습니다. 매일 돌아가며 그 집의 개를 산책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와드는 계속 봉사하며 필요한 부분을 더하고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랑의 봉사였습니다. 각자가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가 되어 그 아픈 자매뿐 아니라 그 자매의 가족 모두에게 개인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용기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와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녀들은 계속해서 매일 개를 산책시켜 주었고, 신권 정원회는 그 아버지와 가족을 돌보았으며, 상호부조회는 힘을 주고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알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주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감 어린 지침에 따른 또 다른 축복은 만 14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녀들이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동반자가 되어 성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청남들이 멬기세텍 신권 소유자들의 성역 동반자로 봉사하는 것같이 말입니다. 구원 사업에서 성인들과 나란히 봉사할 때, 청소년은 자신의 독특한 은사를 나눌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역 임무에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더 많은 회원이 성역을 베풀게 되고, 이렇게 상호부조회와 장로 정원회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뛰어난 청녀들을 생각하면, 청녀들과 함께 봉사하거나 청녀들의 성역을 받을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청녀들의 열정, 재능,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을 통해 축복받을 특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멘토 삼아 가르침을 받고 강하게 될 청녀들 생각에도 설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참여할 기회는 청녀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며, 그들이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는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님께서 어제 나누어 주셨듯이, 청년들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 사업을 하는 데 소중하고도 필수적인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⁷

사실 청년들은 임무 지명을 받거나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고도 이미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족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주에, 새로운 와드의 열네 살 청년 한 명이 이사온 것을 환영한다며 쿠키 한 접시를 들고 그들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역을 베풀고자 하는 딸의 소망을 지지하며, 기꺼이 차로 데려다 준 그 청년의 어머니는 웃으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어머니는 어느 날 열여섯 살 난 딸이 평소보다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져 걱정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드디어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조금 실망감을 내비치며 어디에 있었냐며 다그쳤습니다. 열여섯 살짜리는 위축된 목소리로 근처에 사는 한 미망인에게 꽃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망인이 외로워 보여서 그녀를 방문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그 청년은 계속해서 그 나이 든 자매님을 방문했습니다.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수년 동안 그 감미로운 우정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 청년들 모두와 그들과 같은 많은 청년들은 누군가의 필요 사항을 인식하고, 그 필요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일합니다. 청년들은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과 나누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소망이 있으며, 성인 자매와 함께 성역을 베풀으므로 그러한 소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을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나이를 막론하고 “그녀(그)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더불어 봉사하고자 하는 진지한 소망을 지닌다면, 우리는 성신의 인도에 따라 개인을 복돋우고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의 환영, 사려 깊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어려운 시기에 온 개인적인 연락, 그룹 활동에의 초대, 힘든 상황을 도와주겠다는 제의

등의 단순한 행동을 통해 축복받은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부모, 새로운 개종자, 저활동 회원, 홀로된 남편이나 아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성역자에게 더 큰 관심과 우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협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성역은 사랑을 동기로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성역의 가치와 유익과 기적은 참으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위안을 주려고 할 때, 성역의 힘은 압도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잃어버린” 자매들과 형제들을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주는 모든 것,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⁸ “구주의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더 승고한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잊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권유가 됩니다.”⁹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성역을 베풀 기회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정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각 자녀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분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축복을 더 기꺼이 인식하고, 열성적으로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노래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알듯이
 구주여, 제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제 힘과 등불을 찾고
 주의 종이 되리니
 구주여, 제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을 따르리이다.¹⁰

우리의 영원한 자매와 형제에게 성역을 베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보입니다.¹¹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주께서 고대 미 대륙을 방문하신 후 백성들이 100년간 누린 화합의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¹²

기쁜 마음으로 저의 간증을 전합니다. 계시로 받은 이와 같은 변화는 하나님에게서 영감 받은 것이며, 저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를 만나기 위해 더욱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백성과 같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여정에서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사도행전 3:19~21 참조.
2. 로버트 디 헤일즈,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8~92쪽 참조.
3. 교리와 성약 42:29.
4.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앞표지 안쪽.
5. 교리와 성약 20:47, 53.
6.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9.1.1 참조.
7. 보니 엘 오스카슨, “구원 사업에서 청년의 역할”,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38쪽.
8. 에베소서 5:2 참조.
9. Russell T. Osguthorpe, “What If Love Were Our Only Motive?”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Mar. 8, 2011), 7, speeches.byu.edu.
10. “Lord, I would Follow Thee”, *Hymns*, no. 220.
11. 모사이야서 2:17 참조.
12. 제4니파이 1:15~16.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방법을 찾는 이들은 삶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과 가장 힘겨운 절망도 치유할 수 있는 유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저는 이 훌륭한 연차 대회 주말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리엇과 저는 공장로님과 소아레스 장로님, 그리고 중대한 부름을 새로 받으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지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사랑하는 친구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님 그림이지만, 우리의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인 러셀 엠 벨슨 회장님과 그분의 고결한 보좌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십이사도 정원회 형제님들과 다시 한 번 더욱 긴밀하게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어서 무척 겸허하고도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수백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어떤 위치나 부름에 있든지 *기꺼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 올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 힘씁니다.

오늘은 성스러운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께서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¹, 무덤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일어나셨던 그 영광스러운 아침을 기념하는 부활절 일요일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

최근에 저는 인터넷에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가장 크게 바꾼 날은 언제일까요?”

그에 대하여 놀랍고도 기이한 내용부터 통찰력이 풍부하고 진지한 생각으로 이끄는





내용까지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선사시대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에 충돌했던 사건이나, 1440년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완성했던 일, 그리고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인간도 정밀 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했던 날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같은 질문을 드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있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인지 알려면, 우리는 약 2,000년 전 겐세마네 동산의 그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삼으시고자 온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육체와 영으로 겪으신 그 위대하고도 무한한 희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희생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신성한 은사에 대해 얼마나 큰 감사의 빛을 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날 밤, 예수께서는 종교 및 정치적 권력자들 앞에 끌려나가 조롱과

구타를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 생명 없는 그분의 육신은 빌린 무덤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과 광채와 장엄함을 지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상 국가와 사람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합친다고 해도, 그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던 일의 중요성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과 부활이 세계 대전이나 대재앙, 삶을 변화시키는 과학적 발명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되지만,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난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거나, 아름답거나, 건강하거나, 조심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들은 우리의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다시 되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죽음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언젠가 육신과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이 부활한 육신은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며,³ 우리는 아픔이나 육체의 고통 없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⁵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⁶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이는 흠 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그분의 생명을 바치신 후에야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의의 빛을 지지 않으셨으므로, 우리의 빛을 갠시키고 모든 영혼을 위해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혼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신성한 영생의 전당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장애물을 없애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며 구주이신 그분이 계셨기에, 여러분과 저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받았습시다. 즉,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자녀들에 둘러싸여 해의 영광과 빛으로 인도되는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절 일요일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절망 어린 사망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이들을 안고 벽찬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서 끝이 없는 세상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죄는 지워질 뿐 아니라 잊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덕분에,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서 영원히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⁷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의 처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 봤거나 그분을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분의 진정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저는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계시던 구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빌라도는 오로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일과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은 이 두 가지 업무에 모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이라면서 한 남자를 끌고 왔습니다.⁸

그 남자를 심문하고 나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했습니다.⁹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빌라도는 유월절이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 주는 그 지역의 관례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악명높은 강도이자 살인범인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 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¹⁰

그러나 격양된 군중은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풀어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쩐이냐?”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더욱 커지기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¹¹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군인들에게 명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습니다.¹² 예수님의 몸은 피와 멍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으며,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¹³

아마도 빌라도는 그 정도쯤 하면 피를 보려는 군중의 욕망을 충족시킨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 보라 이 사람이로다”¹⁴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예루살렘 백성 앞에 서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¹⁵

비유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그를 “보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분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이 혼재합니다.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간증합니다. 저 역시 똑같은 간증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역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방법을 찾는 이들은 삶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과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절망도 치유할 수 있는 유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슬픔과 비탄이 여러분을 에워쌀 때 그분을 보십시오.

길을 잃은 느낌이 들고, 세상에서 잊힌 기분이 든다면, 그분을 보십시오.

절박하고, 버림받고, 불안하고, 상처를 받거나 낙심했을 때,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여정에 의미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의 영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¹⁶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실 것입니다.”¹⁷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분께
 배우고 삶을 그분께 맞추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회개하고, 우리의 본성을
 다듬고, 매일 조금씩 더 그분께 가까워집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사랑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빛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고양합니다.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더 큰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인생의 환난 길고 속에서
 영감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미래를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분께는 거룩한
 패튼이 있음을 인식하며, 비로소 하나로
 연결된 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¹⁸
 여러분이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마침내 지상 여정을
 마치게 될 때, 이생에서 여러분이 참아 냈던

슬픔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실망감과 배신감,
 여러분이 당했던 박해는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뎌 냈던 고통, 상심, 죄책감,
 수치심, 분노는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잊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하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일까요?¹⁹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죄를 이기고 승리를 얻으신
 그날임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그분의 속죄의 권능을 취할 때,
 우리가 매일 새로운 열정과 의지를 지니고
 그분을 따르고자 결심할 때입니다. 부디
 그런 날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생과 장차 올 영생에서 의미와 기쁨과
 평안을 찾으리라는 간증과 축복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야서 15:23 참조.
2. 요한복음 19:30.
3. 엘마서 11:45 참조.
4. 요한계시록 21:4 참조.
5. 고린도전서 15:21~23 참조.
6. 제3니파이 27:19.
7. 요한복음 4:14 참조.
8. 누가복음 23:2 참조.
9. 요한복음 18:38.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그 건을 헤롯 안디바에게 넘기려고 했다. 침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이(마태복음 14:6~11 참조) 예수에게 형을 선고한다면, 빌라도는 큰 고민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이 건은 단순한 지역 문제였고 자신은 치안 유지를 위해 선고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헤롯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누가복음 23:6~12 참조), 헤롯은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10. 마가복음 15:6~7; 요한복음 18:39~40 참조. 한 신약전서 학자는 이렇게 썼다. “유월절에는 로마 총독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악명 높은 죄수를 풀어 주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Alfred Edersheim,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1899], 2:576)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게 한 역사적인 상황이 흥미롭다.
11. 마가복음 15:11~14 참조.
12. 이 책적질은 너무도 극심하여 “반죽음”이라고 불렸다.(Edersheim, *Jesus the Messiah*, 2:579)
13. 요한복음 19:1~3 참조.
14. 요한복음 19:4~5.
15. 이전에 예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눈은 밝으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마태복음 13:15~16) 우리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눈과 마음을 열어 온전히 그분을 볼 것인가?
16. 모사이야서 4:20 참조.
17. 이사야 40:29.
18. 디이티 에프 우흐트도르프, “필멸이라는 삶의 모험”(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8년 1월 14일), broadcasts.lds.org 참조.
19. 니파이후서 25:26.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 즉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웅장한 프랑스 파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동안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2010년에 성전 부지를 찾았을 때, 파리 시장은 우리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우리와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모임은 건축 허가를 받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인상적인 후기 성도 성전 사진이 포함된 발표 자료를 세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성전의 건축미에 매료되어 우리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장은 우리의 발표 자료를 검토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어떤 부류의 교회인지 알기 위해 관련 부서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우리는 종교 역사 교수이기도 한 시의원의 보고를 받기 위해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러분의 교회 회원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의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당 뒤쪽에 앉아 회중과 회중이 무엇을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여러분의 스테이크 센터 주변에 사는 이웃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 물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죠?” 저는 조금 두려움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우리가 아는 어느 교회보다 본래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이런 반박을 할 뻔했습니다. “그 말씀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아요!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똑같은 교회,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장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본인과 관련 부서는 그들의 지역 사회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 그 기적적인 경험을 돌이켜보니, 시장의 지혜와 분별의 영에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는 건물의 외관이나 잘 조직된 단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자 날마다 힘쓰는 수백만의 충실한 회원들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물문경에 나오는 다음 성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 그들[주님의 제자를 의미함]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범사를 행하였더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어졌더라.”¹

달리 말하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 즉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성약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언젠가 교회를 멋진 자동차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량이 깨끗하고 반짝이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자동차의 목적은 매력적인 기계로서 돌보이는 데 있지 않고, 차에 탄 사람들을 나르는 데 있습니다.²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깨끗하고 잘 관리된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또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모든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여 그들을 성약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 그리고 성약입니다.

계시로 주어진 회복된 교회의 이름이 각 복음 성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를 함께 묶어 준다는 점이 멋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 속하며, 그분의 성결하게 하는 속죄와 성약만이 구원과 승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우리를 지칭하는 성도, 달리 말하자면 그분의 증인과 제자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봉사를 시작할 무렵, 저는 새로운 와드 창설, 새로운 집회소 건축,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스테이크를 위한 몇 가지 야심 찬 목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6년 후 제가 해임될 때, 이 목표 중에 이룬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제 목표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이 일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해임되던 날 단상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깊은 감사와 성취감에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참석한 수백 명의 회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들 개개인과 연관된 영적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침례의 물가로 들어선 형제 자매, 처음으로 성전 의식을 받게 되어 추천서에 서명해 드린 분, 그리고 제가 전임 선교사로 성별했거나 해임한 청년들과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시련과 역경을 겪는 동안, 제가 돌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께 강한 형제애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봉사하면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으며, 구주에 대한 그분들의 충성심과 신앙이 커지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의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되는 통계나 개최하는 모임이 아니라 구주께서 행하신 대로 한 번에 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의 혜택을 받은 개인들이 향상되고 격려되어

궁극적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³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활동적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바깥 뿐입니까? 모든 면에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보다는, 개인을 구조하는 데 자연스럽게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 일요일에 구주께서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를 방문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시각 보조 자료가 충분한지, 의자가 교실에 제대로 놓였는지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사랑하고, 가르치고, 축복할 만한 누군가를 찾으실까요? 아마도 새로운 회원이나 환영해 줄 친구, 위안이 필요한 아픈 형제나 자매, 또는 고양하고 격려해야 할 신앙이 흔들리는 청년을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을 방문하십니까? 먼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방문하시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 보며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의 그림을 칭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해 간증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태도는 단순하고, 순수하며, 꾸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도움과 축복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완벽한 활동을 계획하기보다는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며, 방문한 횟수로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회원을 돌보는 데 관심을 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지역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더라도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와 같이 똑같이 참되고 살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⁴

우리는 직장이든, 학교든, 휴양지이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교회와 같은 곳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영향력으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친구와 나는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는 우리 교회에서는 합당한 남자라면 누구나 신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네 와드에는 신권 소유자가 몇 명이나 있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사십 명 돼.”

그는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직자가 한 사람뿐이야. 너희는 일요일 아침에 왜 그토록 많은 성직자가 필요하지?”

그의 질문에 흥미를 느낀 저는 영감을 받아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말에 동의해. 일요일에 교회에 그렇게 많은 신권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모든 가정에는 신권 소유자가 필요하지. 그리고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없을 때는 다른 신권 소유자들이 그 가정을 살피고 돌보도록 부름을 받지.”

우리 교회는 단지 ‘일요일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매일 계속됩니다. 특히 우리 가정은 “신앙의 주된 피난처”입니다.⁵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자주 기도하고, 축복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순수한 사랑으로 봉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 가정이 공식적인 예배 장소 못지않게,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영이 거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곳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며 예수께서 보이신 위대한 모범을 따르고자 힘쓰는 수백만 제자들의 행동이 이 교회에 활력과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도록

그분이 택하신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26:21.
2. See Russell M. Nelson, general conference leadership meeting, Apr. 2012.
3. 엠 러셀 넬슨, “오 지혜로우라”, 리야호나, 2006년 11월호, 20쪽.
4. 마태복음 18:20.
5. 러셀 엠 넬슨, “교리적으로 본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12년 2월), broadcasts.lds.org.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의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의로움과 단합, 평등 안에서 신성하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엘 리자 알 스노우는 (자신이 참석했던)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헌납식의 의식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그 잊지 못할 날에 있었던 하늘의 나타내심은 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고, 모든 참석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¹

커틀랜드 성전에서 일어난 하늘의 나타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구원과 승영을 가져다주고자 하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²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동안, 커틀랜드 성전에서 회복된 성스러운 열쇠를 살피봄으로써 신성하게 부여된 우리의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헌납 기도에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짓도록 명하신 ... 이 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겸손히 간구했습니다.³

일주일 후, 부활절 일요일에 주님은

장엄한 시현 가운데 나타나 당신의 성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일은 이 부활절 일요일로부터 정확히 약 182년 전인 1836년 4월 3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부활절과 유월절이 드물게 겹친, 유월절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시현이 닫히자, 고대의 선지자인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나타나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교회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들을 가족으로 인봉하며,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으로서 단순명료하게 정의되었습니다.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일은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올 것이라는 유대의 전통과 ‘매우 흡사’합니다.⁵ 우리의 교리에서는 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있는 마지막 날을 위하여 또 마지막 때를 위하여 ... 주어[진]” 특정한 열쇠의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⁶

커틀랜드 성전은 위치와 규모 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인류에 대한 엄청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영원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영원한 구원의



의식을 행하기 위한 신권 열쇠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충실한 회원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열쇠들은 교회의 주요 목적을 구성하는 신성하게 부여된 책임에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⁷을 부여합니다.⁸ 그 놀라운 부활절 날, 커틀랜드 성전에서는 다음 세 가지 열쇠가 회복되었습니다.

첫째, 모세가 나타나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는 선교 사업을 말합니다.⁹

둘째,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여는 열쇠를 맡겼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맺은 성약의 회복이 포함됩니다.¹⁰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성약의 열쇠에 담긴 목적이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시키는 데 있다고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¹¹

셋째, 엘리야가 나타나 이 경륜의 시대에 인봉 권능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는 가족 역사 사업과 아울러 산 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게 하는 성전 의식을 말합니다.¹²

교회 본부에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를 받는 세 개의 집행 평의회가 있으며 이 평의회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회복된 열쇠를 토대로 신성하게 부여된 이 책임을 감독합니다. 선교사 집행 평의회, 신권 및 가족 집행 평의회, 성전 및 가족 역사 집행 평의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성하게 부여된 이들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합니까?

첫째, 모세가 회복해 준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와 관련하여, 현재 약 70,000명의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택함 받은 자를 모으고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니파이가 예견한 바와 같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성취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의 시작입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 지면에 흠어나, 간악한 자들 탓에 그 수가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¹³ 회복된 교회의 약사를 살펴보면, 선교 사업에 기울인 노력이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는 니파이의 시현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우리는 구주의 메시지에 응답할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둘째,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의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침이 제시되었습니다.¹⁴ 신권 총회에서 발표된 장로 및 대체사 정원회에 관한 사안은 신권 권능과 권세가 퍼져 나가게 해 줄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익히 배운 대로,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은 이제 “성역”이라는 이름으로 후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셋째, 엘리야가 이 경륜의 시대의 인봉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 있는 우리에게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의 증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추세는 온 땅이 “그가 오실 때에 완전히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구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가속될 것입니다.¹⁵

가족 역사 사업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기술 덕분에 지난 몇 년 사이에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성하게 부여된 이 책임을 안일하게 여기거나 이 일에 열성적인 친척 누군가가 이 일을 담당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단도직입적인 다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큰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사도로부터 가장 겸손한 장로(또는 자매)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임무입니다. 어떠한 직책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이 책임을 면제받지 못할 것입니다.”¹⁶

이제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 성전이 있으며,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의식 참여자 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선교 사업,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단합 및 평등은 이런 성스러운 책임을 수행하는 토대입니다

의로움과 관련하여, 이생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¹⁷ 물론경은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 줍니다.¹⁸



제 생애 동안, 세상의 문제와 관심사는 하찮고 사소한 일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심각한 부도덕에 이르기까지,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옮겨 갔습니다. 합의 없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 비난받는 일은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¹⁹ 합의 없이 저지른 그런 부도덕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회법 모두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합의하여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 즉 죄를 반대해야 합니다.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혹은, 이에 관한 한 그 누구라도]를 학대하는] ...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라고 경고합니다.²⁰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간악함과 중독으로 황폐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가 구주의 궁극적인 심판을 참으로 염려한다면, 회개를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더는 하나님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경전이나 선지자에게 돌이켜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죄의 결과를 심사숙고한다면, 대중들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과 외설물을 극렬히 반대할 것입니다.²¹ 물론경에서 엘마가 아들 코리엔톤에게 말한 바와 같이,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²²

단합과 관련하여, 구주께서는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³ 우리는 다투는 정신이 악마에게 속한다는 것을 압니다.²⁴

단합에 대해 경전에서 요구하는 바가 우리 시대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흔히 지위, 성별, 인종, 부에 기초한 집단주의를 중시합니다.²⁵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놓고 크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고수하고 가르치는 유일한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문화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단합은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²⁶

교회의 주요 목적을 살펴보면, 모두 **주님 앞의 평등**²⁷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문화를 따르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과 관련하여, 침례를 받기 위한 주된 자격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²⁸ 교육이나 부, 인종 또는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선교사들은 부름받는 곳에서 겸손하게 봉사합니다. 그들은 세상적 지위의 기준이나 미래의 직장을 염두에 두고 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명을 받은 곳이 어디이든,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선교사 동반자를 선택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계발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합니다.²⁹

경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에 관해 지침을 줍니다. 구주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입니다.³⁰

이에 덧붙여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³¹ 물론경은 무슨 무슨 인이라든지 인종, 또는 사회적 계층에 따른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³²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합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성스러운 의식과 신성한 책임은 이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여러분이 하신 경험이 제 경험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일상 생활을 뒤로 하고 오클랜드 성전에 도착하면, 사랑과 화평의 느낌이 저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런 느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더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집중한 것은 구원의 의식이었으나, 그 감미로운 느낌의 상당 부분은 성전에 깃든 평등과 단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흰색 옷을 입고 있으며, 부나 계급 또는 학벌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성스러운 인봉실에서 거행되는 영원한 결혼 의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배경의 부부와 가장 부유한 배경의 부부가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성전복을 입고, 같은 제단에서 같은 성약을 맺고 영원한 신권 축복도 똑같이 받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성스러운 집으로서 성도들의 십일조로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 앞에서의 의로움과 단합, 평등에 바탕을 두고 신성하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면 이 세상에서는 개인적인 행복과 평화를 느끼게 되며,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도록 준비하게 됩니다.³³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³⁴

저희는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각자 감독님과 상의하고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³⁵

저희는 더 많은 회원이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합당한 성인 성전 추천서 소지자의 수가 여러 해 동안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제한 사용 추천서를 받은 합당한 청소년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분명, 교회의 충실한 핵심 회원들은 더없이 굳건합니다.

끝으로, 신성하게 부여된 교회의 목적과 관련된 노력을 감리하는 교회의 상위 지도자들은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도는 영에게서 오며, 때로는 직접 구주에게서 오기도 하여 두 종류의 영적 인도가 주어집니다. 저는 그런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³⁶ 주님이 정하신 때, 곧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혼육하고자 신중히 택하시는”³⁷ 때에 주어집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인도는 그분의 선지자에게만 주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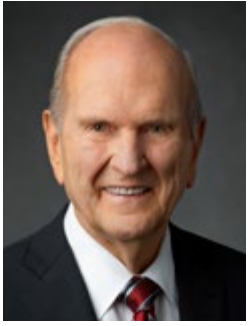
우리는 이 대회에서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을 우리의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십이사도가 벨슨 회장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이 대표로 그분을 교회 회장으로 성임하고 성별했을 때, 십이사도들은 다함께,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임된 분으로 온 생애를 준비하여 우리 시대를 위한 주님의 선지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Eliza R. Snow, in Janiece Johnson and Jennifer Reeder, *The Witness of Women: Firsthand Experiences and Testimonies from the Restoration* (2016), 124; see also Eliza R. Snow, in Edward Tullidge, *The Women of Mormondom* (1877), 65.
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2 참조.
3. 교리와 성약 109:4.
4. See Russell M. Nelson, “Epistles of the Lord” (address given at the seminar for new mission



- presidents, June 25, 2015), 1–2.
5. Stephen D. Ricks, “The Appearance of Elijah and Moses in the Kirtland Temple and the Jewish Passover,” *BYU Studies*, vol. 23, no. 4 (Fall 1983), 485.
6. 교리와 성약 112:30.
7. 교리와 성약 38:38; 또한 교리와 성약 43:16; 84:20~21 참조.
8. 지침서 제2권, 2.2 참조. 네 번째 책임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는 회복된 열쇠가 필요하지 않으나 하늘의 영감을 받은 교회 조직에 의존한다.
9. 선교사 집행 평의회가 신성하게 부여된 이 책임을 감독한다. 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10. 신권 및 가족 집행 평의회가 신성하게 부여된 이 책임을 감독한다. 교리와 성약 110:12 참조.
11. 러셀 엠 벨슨, “성약”,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9쪽.
12. 성전 및 가족 역사 집행 평의회가 신성하게 부여된 이 책임을 감독한다. 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13. 니파이전서 14:14; 또한 니파이전서 14:5, 7, 12 참조.
14. 모사이야서 18:9; 엘마서 6:1; 32:37 참조; 또한 제프리 알 홀랜드, “교회의 대표자”,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62, 67쪽 참조.
15. 교리와 성약 2:3.
16. 조셀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기 편(1955), 제2권, 132~133쪽.
17. 엘마서 34:32 참조.
18. 물론경에서 되풀이되는 주제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번성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는 것이다. 다른 성구 중에서도, 니파이후서 1:9; 4:4; 엘마서 9:13 참조.
19. 이런 일은 #MeToo(미투) 운동 중에 발생했다.
20.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21. See Ross Douthart, “Let’s Ban Porn,” *New York Times*, Feb. 11, 2018, SR11.
22. 엘마서 41:10.
23. 교리와 성약 38:27.
24. 제3니파이 11:29 참조.
25. See David Brooks, “The Retreat to Tribalism,” *New York Times*, Jan. 2, 2018, A15.
26. 요한복음 17:21~22 참조.
27. 니파이후서 26:33 참조: “검거나 회거나, 매일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를 포함하여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
28.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29.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제6장 참조.
30. 마태복음 22:36~39 참조.
31. 누가복음 10:29~37 참조.
32. 제4니파이 1:17 참조.
33. 교리와 성약 59:23 참조.
34. 엘마서 34:32 참조.
35. 성전 추천서 접견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게 된다.
36. 니파이후서 28:30; 교리와 성약 98:12; 128:21 참조.
37. Neal A. Maxwell, *All These Things Shall Give Thee Experience* (2007), 31.



러셀 엠 넬슨 회장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여러분이 지난 이틀 동안 느낀 것들을 기억하고 숙고하신다면 순종하려는 여러분의 소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대회의 폐회를 앞두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인도와 영감에 찬 영향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음악은 아름답고 영적이었습니다. 말씀들은 우리 마음을 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회에서 새로운 제일회장단을 지지했습니다. 새로운 두 분이 십이사도 정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칠십인 총관리 역원 여덟 분이 부름받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가 우리의 새로운 결심, 도전, 그리고 앞으로의 책임을 잘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이 세상 끝나면 보상 있으리니
의를 위해 창검을 휘두르세
힘찬 진리의 창검

적의 조롱 두려워 말고
악한 자의 말 듣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만 복종하리!

여러분께 다음 6개월 동안 이 대회 말씀들을 자주, 반복적으로 공부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밤에, 복음 교육에, 가족 및 친구와의 대화에, 그리고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의 토론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사랑을 담아 전한다면, 많은 선한 사람들이 이 대회에서 가르쳐진 진리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이틀 동안 느낀 것들을 기억하고 숙고하신다면 순종하려는 여러분의 소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연차 대회를 기점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성역을 베푸는 일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방법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새롭고 더욱 성스러운 방법으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 정원회가 강화되어 전 세계의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그들만의 독특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역을 베풀 것이며, 나이가 어린 자매들이 적절하게 임무를 받아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진실합니다. 우리는 휘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주께 나아와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느끼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권유합니다.²

결국 승영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과 받은 의식들에 완전히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159개의 성전이 운영 중에 있으며, 더 많은 성전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교회의 회원들 더 가까이 성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일곱 개의 성전이 더 건립될 예정임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성전은 다음 지역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살타, 인도 벵갈루루, 니카라과 마나과, 필리핀 카가안데오로, 유타 레이턴, 버지니아 리치먼드,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러시아의 대도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전들의 건축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덜 중요한 일들을 분별하여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화합과 사랑이 더 커지도록 축복하고 영원한 가족 관계를 돌보려는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고 그분의 참된 제자로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증대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목소리를 높여 간증함으로써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께서 성임된 종들을 통해 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2. 교리와 성약 14편 7절에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2017년 통계 보고서

교회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일회장단은 2017년 12월 31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교회의 성장 및 현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3,341
선교부	421
지방부	553
와드 및 지부	30,506

교회 회원

총 회원 수	16,118,169
기록상의 새로운 자녀	106,771
침례받은 개종자	233,729

선교사

전임 선교사	67,049
교회 봉사 선교사	36,172

성전

2017년에 헌납된 성전(프랑스 파리, 애리조나 투손, 아이다호 메리디안, 유타 시더시티 성전)	4
2017년에 재헌납된 성전	1
연말 기준 운영 중인 성전	159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이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낸다.

연사	일화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78쪽) 칠레, 페루, 멕시코, 미국의 후기 성도들이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도움을 준다.
닐 엘 앤더슨	(24쪽) 캐시 앤더슨이 러셀 엠 넬슨 회장이 하신 모든 연차 대회 말씀을 읽으며 그분이 받은 선지자 부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도록 기도하다.
엠 러셀 벨라드	(9쪽) 엠 러셀 벨라드가 예루살렘에서 거자씨를 보며 구주께서 신앙에 관해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30쪽) 러셀 엠 넬슨과 헨리 비 아이어링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권유를 따라 물문경을 연구하고 그 안에 실린 진리를 적용하다.
진 비 빙엄	(104쪽) 한 상호부조회의 자매가 “길을 잃고[고] 외로웠[던]” 나이 어린 어머니에게 성역을 베푼다. 아프리카의 한 자매가 구타와 갈취를 당한 어느 자매에게 성역을 베푼다. 와드 회원들이 암 투병중인 자매를 돌보다. 청년들이 이웃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다.
제럴드 코세	(111쪽) 프랑스 파리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가하기 전에 지역 시의원들이 성찬식에 참석하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제럴드 코세가 구주에 대한 스테이크 회원들의 충성심과 신앙이 커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다. 제럴드 코세가 친구에게 모든 가정에는 신권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55쪽) 장로 정원회가 유행성 독감으로 가족 몇 명을 잃은 어느 농부의 농작물을 수확해 준다.
쿠엔틴 엘 쿡	(114쪽)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하늘의 나타내심을 본 회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다. 쿠엔틴 엘 쿡이 캘리포니아 오콜랜드 성전에서 사랑과 평온을 느낀다.
마시모 데 페오	(81쪽) 마시모 데 페오의 아들이 반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우주의 지배자”라고 말하다. 마시모 데 페오의 죽어 가는 어머니가 아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함을 보여 준다.
데브 지 듀란트	(42쪽) 데브 지 듀란트가 가정의 밤 게임을 통해 자신감을 얻다. 듀란트 가족이 성전 밖에서 사진을 찍다.
래리 제이 에코 호크	(15쪽) 에코 호크 가족이 래리 제이 에코 호크의 남동생과 그 아내를 죽게 한 음주 운전자의 부모에게 위안의 말을 건넨다.
헨리 비 아이어링	(61쪽) 헨리 비 아이어링의 조부모가 평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사랑을 빼지다. 신권 소유자들이 주님께 봉사하며 무엇을 완수할 수 있는지 한 청년이 이해하다. 어느 영감 받은 가정 복음 교사가 다급한 상황에 놓인 가족을 위해 봉사하다. (86쪽) 헨리 비 아이어링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버지가 성신을 통해 위안을 얻다.
테일러 지 고도이	(34쪽) 친구 아들의 죽음을 통해, 테일러 지 고도이는 인생의 “하루”를 현명하게 보내야겠다는 영감을 얻다. 페루 출신의 자매가 성전에 가기 위한 희생을 치른 후, 그녀의 성약을 진지하게 생각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치의학 공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른 후, 테일러 지 고도이가 최고의 학생이 되고 싶어 하다.
게릿 더블유 공	(97쪽) 게릿 더블유 공 장로가 잠자리에서 아들들에게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준다.
제프리 알 홀런드	(101쪽) 아내가 의식을 잃자, 한 형제가 무의식적으로 가정 복음 교사에게 전화하다.
더글러스 디 홈즈	(50쪽)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친구들에게 간증을 나누다. 제사 정원회 일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다.
러셀 엠 넬슨	(68쪽) 신권 소유자들이 가족이나 새로 부름받은 자매들에게 참된 축복을 주지 않다. 러셀 엠 넬슨이 한 남성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돕다. (93쪽) 소년이었다던 러셀 엠 넬슨이 복음을 배우는 것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인봉되기를 열망하다. 부모님이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기를 원했던 어린 러셀 엠 넬슨이 술병들을 던져 깨뜨려 버리다.
델린 에이치 옥스	(65쪽) 어느 장로 정원회 회장이 한 정원회 일원에게 대학을 그만두지 말도록 권고하다.
보니 엘 오스카슨	(36쪽) 보니 엘 오스카슨은 청년였을 때 성인들이 수행하는 임무와 부름을 말도록 부탁받다.
데일 지 켈런드	(46쪽) 팔리와 올슨 프랫이 조상에 대한 사랑 덕분에 반목을 치유하다. 죽은 아들의 심장을 기증한 어느 가족이 성전 축복을 통해 치유를 얻다.
린 지 로빈스	(21쪽) 린 지 로빈스의 대학교수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98쪽) 울리세스 소아레스와 그의 아내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신앙을 보인 후 신속히 비자를 발급받다.
게리 이 스티븐슨	(17쪽) 게리 이 스티븐슨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의 선지자들에 대한 간증을 얻다. 러셀 엠 넬슨 박사의 옛 제자가 그의 수업 방식을 칭송하다.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	(12쪽)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가 인쇄심 많은 그의 초등회 교사들을 기억하다. 교통사고를 낸 청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평안을 찾다.
타니엘라 비 와콜로	(39쪽) 39년간 교회에 참석한 남성이 침례와 확인을 받고, 후에 성전에서 아내에게 인봉되다.
래리 와이 윌슨	(75쪽) 영의 인도를 통해 어느 후기 성도 소위가 태풍 속에서 배를 움직이고 선원들을 구하다.
클라우디오 디 지빅	(88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클라우디오 디 지빅과 그의 아내에게 “견디십시오. 그러면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다. 클라우디오 디 지빅의 카약에 금이 가서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되다.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부활절 안식일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알렐루야’라고 노래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된 게릿 더블유 공 장로가 연차 대회에서 한 말이다. “부활하신 구주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는 … 성약과,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조화를 찬미합니다.”

공 장로는 그런 조화 속에서 기뻐하며 일생을 보냈다. 그는 구주의 속죄와 더불어 우리가 맺는 성약의 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고결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둘은 행복을 가져오고, 우리를 지켜 주며, 성결하게 하고, 구속해 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있었던 한 결혼식에서 속죄와 연합한 성약의 힘이 성전의 거울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주후 837년에 태어난 시조 드래곤 공에서부터 36대를 거쳐 자신의 손주들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족 여러 세대가 양방향으로 영원히 뻗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저는 아내와 제가 부모님께서는 자녀이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부모이며, 조부모님께서는 손자 손녀이고, 저희 손주에게는 조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필멸의 삶에 관한 위대한 교훈은 자녀와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영원한 역할을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 영혼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공 장로는 2010년 4월부터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는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2018년 3월 31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은 그는 이 부름을 “주님으로부터 온 … 성스러운 부름”으로 묘사하며 “숨이 멎을 듯”했다고 말했다.

공 장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했으며, 지역 회장으로 봉사 임기를 마쳤다. 그는 대만 타이페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비롯해 고등평의원, 대제사 그룹 지도자,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 세미나리 교사, 감독, 스테이크 선교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 등의 부름에서 봉사했다.

공 장로는 1977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아시아학 및 대학교 연구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1981년에는 동 대학교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국제 관계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에 공 장로는 미국 국무부의 특별 차관보로 일했으며, 1987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미국 대사의 특별 보좌관으로 재직했다. 1989년부터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여러 직위를 역임했고, 2010년 4월까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기획 및 평가 담당 부처장으로 재직했다.

공 장로의 조부모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공 장로는 195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티에서 태어났다. 그는 1980년 1월에 수잔 린지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네 자녀와 세 손주를 두었다.

“합당하고 영원한 모든 것은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실재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신이 그것을 증거합니다.”라고 공 장로는 이 대회에서 말했다. “저는 …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시작부터 함께하셨고, 끝까지 함께하실 것입니다.” ■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을 포함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를 따르려 하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 참으로 위안을 줍니다.”

사도 부름이 자신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여겼지만 넬슨 회장님의 “말씀과 부드러운 눈빛을 통해 저를 감싸 안는 듯한 구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라고 소아레스 장로는 말했다.

2018년 3월 31일에 지지를 받은 소아레스 장로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첫 사도가 되었다. 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 2013년 1월 6일부터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이었으며,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감리 감독단을 위한 특별 임무를 맡고 있었다.

소아레스 장로는 2005년 4월 2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다. 그 부름으로 그는 아프리카 남동 지역 및 브라질 남 지역 회장단 보좌와 브라질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다.

이외에도 소아레스 장로는 여러 교회 부름에서 봉사했다. 그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비롯해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단 보좌,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집행 서기, 지역 복지 책임자, 스테이크 회장,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포르투갈 포르투 선교부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부름 중 하나는 15세 때 주어졌는데, 당시에 감독이 그에게 한시적으로 주일학교 청소년반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어린 울리세스는 간증을 얻는 법에 관한 공과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이 참되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 복음이 참된지 간구하였을 때 마음속에 매우 좋은 느낌, 즉 계속 복음 안에 머무르라는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5년에 그는 상파울루 가톨릭 대학교 경제 대학에서 회계 및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브라질 소재의 다국적 기업에서 회계사 및 감사로 일했으며, 상파울루에 있는 교회 지역 사무실에서 실무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다.

1958년 10월 2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난 울리세스 소아레스는 1982년 10월에 로사나 페르난디스 자매와 결혼했다. 소아레스 장로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아내에게 찬사를 보냈다.

세 자녀와 세 손주를 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선함과 사랑, 그리고 주님과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온전한 헌신의 모범이 됩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며, 아내가 우리 가족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





칼 비 쿡 장로

칠십인 회장단

칼 비 쿡 장로는 봉사하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는 부름을 받아들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안다.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은 쿡 장로는 지부, 와드, 정원회, 보조 조직에서 봉사하는 교회 회원들을 더 큰 회전력을 일으키는 자동차의 “복합 기어”에 비유한다.

그는 201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운전자가 복합 기어와 사륜구동을 이용하여 “기어를 내리고 동력을 끌어올려서 차를 움직인다”고 말했다. “각각의 기어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며 더 강한 힘을 내듯, 우리도 함께 일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서로 봉사할 때,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주님의 사업에서 봉사하고 도움을 줄 때 함께 참여하고 단합하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쿡 장로는 2011년 4월 2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이 새로운 임무를 받기 전에 쿡 장로는 교회 본부에서 봉사하며 북미 서 지역을 관할하는 일을 돕는 등 여러 직무를 수행했다. 그 이전에는 아프리카 남동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다.

쿡 장로는 후기 성도들에게 교회 부름이 하나님에게서 지명된 종들을 통해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권고했다.

“우리가 부름과 책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으로 버틴다면 축복이 올 것입니다.”

쿡 장로는 유타 위버스테이트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칠십인 정원회로 부름받기 전에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했다.

쿡 장로가 봉사한 부름에는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전임 선교사, 감독,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 회장이 포함된다.

그는 1957년 10월 15일에 미국 유타주 옥든에서 태어났다. 1979년 12월에 리넷 헨슨과 결혼하여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



로버트 시 게이 장로

칠십인 회장단

로버트 시 게이 장로는 가나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 어느 날 가던 길을 멈추고 울고 있는 소년을 도우라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 느낌을 무시했으나 나중에 교회 회원을 보내 그 소년을 찾아서 데려오도록 부탁했다.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은 게이 장로는 그 소년이 자신의 관리인을 위해 말린 생선을 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그 소년은 호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생선 판 돈을 모두 잃었다.

그 일에 대해 게이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소년이 돈 없이 돌아가면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필시 매를 맞을 것이며, 그 후 거리로 쫓겨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소년을 안심시키고 잃어버린 돈만큼을 쥐여 준 뒤, 관리인이 있는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201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설명했듯이 게이 장로는 그 경험으로 두 가지 큰 진리를 배웠다. “첫째, 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시며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전에 없이 분명히 배웠습니다. 둘째, 저는 우리에게 임하는 영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우리의 염려나 불편에 관계없이 ‘곧’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이 장로는 2012년 3월 31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칠십인 회장단에 부름받을 당시 그는 북 아시아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 전에는 교회 본부에서 자립 서비스/영구 교육 기금 위원회 의장으로 봉사하며 전 세계의 자립 서비스를 총괄했다.

칠십인 정원회로 부름받기 전에는 자신이 창업한 투자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다. 또한, 몇몇 국제 인도주의 단체를 공동 창립하고 그 책임자로 봉사했으며 윌스트리트의 투자 은행에서 종사하고,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경제학 강사로 일했다.

게이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통계학 전공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게이 장로는 스페인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비롯해 대제사 그룹 지도자, 와드 청남 회장, 고등평의원, 감독단 보좌, 지역 칠십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1951년 9월 1일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1974년 4월에 리넷 닐슨과 결혼해 슬하에 일곱 자녀를 두었다. ■



터렌스 엠 빈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터렌스 엠 빈슨 장로는 구주께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는 201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을 때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때때로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한번은 빈슨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길을 걸어가는 중에 홀런드 장로가 빈슨 장로의 어깨에 팔을 두드리며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실제로 구주와 함께 걸을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어깨를 감싸는 주님의 팔을 느끼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빈슨 장로는 말했다.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은 빈슨 장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만큼 행복감을 주는 것은” 없다고 표현한다.

2018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부름을 시작하게 될 빈슨 장로는 2013년 4월 6일에 교회의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그 부름을 받을 당시 그는 태평양 지역에서 칠십인 제팔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현재 그는 아프리카 서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빈슨 장로는 수학 및 통계학 학사 학위, 교육 및 교수 과정 수료증, 응용 재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여러 대학에서 교육과 훈련 및 강의를 했으며, 주로 투자 자문역을 맡거나 펀드 매니저로 종사했다.

청년 성인 시절에 이 교회에 대해 알아보던 빈슨 장로는 강한 영적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발전하고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래서 그는 그다음 주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았으며, 또한 저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1974년에 침례를 받은 이후로 빈슨 장로는 감독단 보좌,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지역 대표, 선교부 회장단 보좌, 성전 의식 봉사자, 지역 칠십인 등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그는 1951년 3월 12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태어났다. 1974년 5월에 케이 앤 카든과 결혼했으며, 함께 여섯 자녀를 키웠다. ■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칠십인 회장단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는 포르투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배운 교훈을 하나 떠올린다. 가족 모임을 하던 중에 그는 슬그머니 빠져나가 낚시를 하러 갔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가는지 부모님에게 알려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데 열중해 있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걱정이 된 부모님은 강둑에서 그를 찾았다. 그 일을 겪고 난 그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성신의 속삭임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때 이후로 테제이라 장로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었다. 포르투갈에 선교 사업의 문이 열린 후 1976년에 그와 그의 가족은 복음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16세 때 침례를 받았으며 포르투갈 리스본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테제이라 장로는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명백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대한 놀랄 만한 신뢰의 표시인 동시에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개인의 소중한 책임입니다.”라고 그는 200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가르쳤다.

테제이라 장로는 회계 및 경영학 학위를 받았으며 교회에서 국제 재무 책임자로 일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일환으로 포르투갈 공군에서 복무했다. 그 시기에 그는 교회의 포르투갈 지역 홍보 책임자로 부름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 마리아 필로메나 로페즈 테레스 그릴로를 만났다. 두 사람은 1984년에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결혼하여 세 자녀를 키웠다.

호세 아우구스토 테제이라 다실바는 1961년 2월 24일에 포르투갈 빌라레알에서 태어났다. 그는 감독단 보좌, 지방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루 남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2008년 4월 5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현재 그는 남미 남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1일부터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테제이라 장로는 201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런 권고를 했다. “구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합시다. ...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칠십인 회장단

19 80년대 후반에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는 감독에서 막 해임되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변장하는 회사에 다녔으므로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옛 친구가 찾아왔다.

그 친구는 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런 후에 던진 질문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친구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다. “자네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면, 자네 축복문에 약속된 축복들이 성취될 것 같은가?”

고도이 장로는 자신이 약속된 축복을 모두 받으려면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만족스런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소유물을 모두 팔았다. 그런 후 미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가족과 함께 아늑한 브라질을 떠났다.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호명된 고도이 장로는 자신이 그 경험에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꺼이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에 관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저는 이생과 관련하여, 주님께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도 아십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 있는지 이따금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도이 장로는 2008년 4월 5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그는 현재 남미 북서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1일부터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하게 된다.

칠십인으로 부름받기 전에 고도이 장로는 두 개의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했으며 그 후에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다. 그는 1987년에 상파울루 가톨릭 대학교에서 경제 및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4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조직행동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도이 장로는 브라질 상파울루 남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뒤, 감독, 고등평의원, 지역 복지 책임자, 지역 칠십인, 브라질 벨렝 선교부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1961년 2월 4일에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태어났다. 1984년 3월에 모니카 소아레스 브란다오와 결혼해 네 자녀를 두었다. ■



스티븐 알 뱅거터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스 티븐 알 뱅거터 장로는 어린 시절에 캠핑을 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 비포장 도로용 오토바이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그는 그만 길을 잃고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다.

그 오후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하자, 자신이 찾지 못한 그 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가 그 길로 들어섰을 때였다.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길의 꼭대기로 와서 저를 꺼안아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제 앞에서 달리며 어둠을 뚫고 야영지로 저를 안내해 주었죠.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일은 그가 어린 시절에 사랑받고 있다고 여기게 된 많은 경험 중 하나였다. “제 삶에서 제가 사랑받거나 관심받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긴 적은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라고 뱅거터 장로는 말했다.

뱅거터 장로는 1961년 7월 29일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맥스 이 뱅거터와 셀마 알 뱅거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타주 그레인저에서 성장했다.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에서 귀환하고 몇 주 지나지 않은 시점에 뱅거터 장로는 수웬 앨렉시스 휴즈를 만났다. 첫 데이트에서 그는 그녀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겸손한 소망이 있음을 느꼈으며, 그때문에 그는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1983년 3월 17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그들은 여섯 아들을 키웠다.

뱅거터 장로는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에서 종교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웨스턴 주립 대학교 법과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25년 동안 뱅거터 장로는 캘리포니아 남부와 유타 남부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며 교회와 종교 기반의 단체들을 대표했다. 그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Cooksey, Toolen, Gage, Duffy, Woog에서 동업을 했으며, 2004년에는 Bangerter, Frazier, Graff의 전무 이사가 되었다.

뱅거터 장로는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청남 회장 등으로 봉사했다. ■



매튜 엘 카펜터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매튜 엘 카펜터 장로는 자신이 성신의 느낌을 처음 인식했던 때를 기억한다. 그가 일곱 살 가량 되었을 때 초등학교에서 또래 아이들의 반에 앉아 있었다. 그 교실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는 이전에는 인식해 본 적이 없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마음속에서 어떤 꿈틀거림을 느꼈는데 몸이 따뜻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느꼈죠.”

그가 열한 살이 되자 아버지와 함께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에서 열린 연차 대회의 한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처음으로 선지자인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다.

“그분을 보았을 때 영이 저에게 그분이 선지자임을 증거해 주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어린 나이에 이런 단순한 영적 확인을 받게 되면서 그는 평생 영의 영향력을 지침으로 삼았다.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간증은 천사가 나타나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커졌습니다.”

매튜 레슬리 카펜터는 1959년 10월 21일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리온 이렉스 카펜터와 로버트 알리드 카펜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들의 여덟 자녀 중 막내이며, 누나가 다섯 명인 가정에서 성장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 그는 미셸 “셸리” 브라운을 만났다.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그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스위스 제네바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교계를 중단했다. 귀환 후에 두 사람은 1982년 7월 9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

카펜터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재무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Foundation Specialty Financing Fund의 상무 이사로 재직했다.

카펜터 장로는 감독, 감독단 보좌, 스테이크 청남 회장,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을 역임했다. ■



잭 엔 제라드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잭엔 제라드 장로는 어렸을 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젖소를 돌보는 일을 거들었다. 그는 미국 아이다호주 머드레이크 근방의 작은 농촌에서 성장하면서 근면과 책임감을 배우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니는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지위나 위상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개개인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그 교훈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은사가 되었다.

그는 국립 광업 협회(National Mining Association), 미국 화학 위원회(America Chemistry Council), 미국 석유 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등의 단체에서 주요 간부직을 맡는 것을 포함하여 직장 생활에 종사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제라드 장로는 1957년에 제임스 제라드와 세실 개서 제라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호주 시드니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에 아이다호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다호 국회의원의 인턴으로 일했고 이후에는 정규 직원이 되었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유타 상원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클로맷 네프를 만났다. “그녀에게서 복음의 빛이 발산되었죠.”라고 제라드 장로는 말했다. 두 사람은 1984년 4월 4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 사이에는 여덟 명의 자녀와 네 명의 손주가 있다.

제라드 장로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감독,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 복음 교리반 교사, 주일학교 회장을 역임했다.

제라드 장로는 자신과 아내의 공통된 소망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이기에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바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광이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집니다.” ■



마티아스 헬드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마티아스 헬드 장로와 그의 아내 아이린은 이 세계적인 교회의 화신이라고 부르기엔 적합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독일 조상을 둔 콜롬비아 사람이다. 그들은 직업과 학업을 위해 남미의 고국을 떠나 캐나다, 독일, 과테말라, 브라질에서 생활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콜롬비아로 돌아왔다. 각각의 나라에서 그들은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교회는 똑같았어요.”라고 말한 그는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그런 영적 “동일함”은 그들이 세 자녀를 키우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동안 굳건한 닻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에 콜롬비아 보고타의 고향에서 독일어 학교에 다닌 같은 반 친구 사이였다. 마티아스가 보고타에서 기계공학 학사 학위와 캐나다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두 사람은 1989년 6월 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그들은 독일 하노버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헬드 자매는 자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 한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죠.”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 하늘의 메시지는 1987년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도착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미국 억양의 독일말을 하는 물론 선교사들이었다.

이후 10개월 동안 그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공부하며 그 지역 후기 성도 집회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많은 기도 끝에 그들은 복음이 참되다는 영의 확인을 받고 1988년에 침례를 받았다.

헬드 장로는 25년이 넘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임러-벤츠(Daimler-Benz)에서 관리직에 종사하며 세계 여러 지역으로 출장을 다녔다. 헬드 부부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생활할 때마다 늘 주님께 의지했다.

“어떤 시련을 겪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늘과 교통만 하고 있다면 괜찮을 거예요.”

1960년 6월 5일에 마이클 헬드와 엘리자베스 헬드 사이에서 태어난 헬드 장로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감독단 보좌, 남미 북서 지역 지역 칠십인을 역임했다. ■



데이비드 피 호머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복음에 관하여 데이비드 피 호머 장로의 가장 초기 추억 중 하나는 열네 살 때 한 와드 회원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로 지명된 것이었다. 그 회원은 “독특한 방법으로 가정 복음 교육을 했어요.”라고 호머 장로는 말했다. “가정을 방문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 방법이 특이했죠.”

그들은 동반자로서 함께 담당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 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성인 대 청소년이 아닌 신권 봉사를 하는 동료로서 그렇게 했다. “영이 임하여 봉사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호머 장로는 말했다.

그 교훈은 평생 남아 이후에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던 유아반 지도자로 봉사하던 그의 교회 봉사에 영향을 주었다. 이른바 계시관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유아반 지도자는 그와 그의 아내가 호주 멜버른에서 생활할 때 수행한 부름이다.

데이비드 폴 호머는 1961년 4월 25일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프레드릭 호머와 필리스 레널라 호머 사이에서 태어났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 홍콩에서 선교 사업을 한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종교 교육원 노년의 모임에서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생인 낸시 드랜스필드를 만났다. 당시에 그녀는 그 도시에서 일하며 유타 대학교를 다녔다. 두 사람은 1984년 7월 31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딸 다섯과 아들 하나를 키웠다.

호머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너럴밀스(General Mills)의 임원으로 일하는 30년 동안 그와 그의 아내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캐나다 온타리오주 벌링턴, 스위스 보 생실피스에서 생활했다.

호머 장로는 스테이크 회장,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집행 서기 등의 부름에서 봉사했다. 그는 지역 칠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봉사를 시작하여 유럽에서도 그 부름을 이어 갔으며,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기 전까지 그곳에서 4년간 봉사했다. ■



카일 에스 맥케이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카일 에스 맥케이 장로가 가족과 교회를 제외하고 가장 열정을 쏟는 것은 말을 타고 산속을 다니는 것이다.

“그것이 종교는 아니지만 분명히 제 신앙을 강화해 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번갈아서 주님이 지으신 산에도 가고 주님의 집이라는 산에도 갑니다. 그 두 곳에서 저는 그분을 만나죠.”

맥케이 장로는 미국 유타주 헨츠빌 위쪽에 있는 산을 물몬의 물과 숲,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엘마 백성에게 갖는 중요성에 비유한다. 바로 그 산에서 그는 어릴 적에 구속주에 대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맥케이 장로는 1960년 2월 14일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배리 건 맥케이와 일레인 스틸러드 맥케이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이 현재의 모습에 이른 것은 부모님의 양육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1979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일본 고베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귀환하고 영어학 전공에 복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맥케이 장로는 영국 브리스틀 선교부에서 최근에 귀환한 제니퍼 스톤을 만났다. 그녀의 전공도 영어였다. 두 사람은 1984년 6월 12일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에서 결혼했다.

가족을 삶의 중심에 둔 맥케이 장로는 자신과 맥케이 자매가 후손에게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다고 말한다. 맥케이 부부는 미국 유타주 케이스빌에서 거주하는 동안 아홉 자녀와 함께 자주 헨츠빌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이 맥케이 장로의 선조들이 1860년대 초반에 정착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맥케이 장로는 1987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대형 법률회사에서 들어온 채용 제의를 곧바로 수락했다. 이후에 그는 유타로 돌아가서 또 다른 법률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찾다가 크로거(Kroger Company) 회사의 직책을 받아들였다. 그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유타와 애리조나에 있는 크로거사의 두 계열사인 Smith's와 Fry's에서 각각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맥케이 장로는 이전에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



후안 파블로 비야르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후안 파블로 비야르 장로가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이 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형 이반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침례를 받았다고 가족에게 알릴 때였으며, 이후에 이반은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반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털어놓았다.

당시 17세였던 비야르 장로는 “그 말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어요.”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형은 제 마음속에 씨앗을 심은 셈이었죠.”

형이 자신을 선교사들에게 소개하면서부터 그 씨앗이 자랄 기회가 열렸다. 첫 토론을 하던 중에 비야르 장로는 물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선교사들이 간증을 나누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라고 그는 말했다. “그걸 알게 되자 나머지 모든 것은 당연히 참된 것이었어요.”

바로 이웃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이반은 1988년에 허락을 받아 비야르 장로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후에 그들의 어머니와 다른 형제 클라우디오도 교회에 가입했다.

침례를 받고 1년이 지난 후에 비야르 장로는 칠레 비냐델마르 선교부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봉사의 삶은 그 이후로 스테이크 회장, 감독, 감독단 보좌, 칠레 산티아고 동 선교부 보좌, 남미 남 지역의 지역 칠십인 등으로 이어졌다. 그는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비야르 장로는 1969년 9월 11일에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세르지오 비야르 베라와 웨노베라 사베르드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94년 3월 31일에 칠레 산티아고 성전에서 카를로라 크리스티나 바리오스와 결혼했다.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는 사회 통신 및 홍보 학사 학위와 마케팅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에서 종사했다. 2007년에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도 취득했다. 그런 후에 칠레로 돌아와서 광업 서비스 회사인 오리카에서 일하며 고위 간부직에까지 올랐다. ■



다카시 와다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어느 추운 11월에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 달라는 한 미국인 선교사의 갑작스런 부탁에 다카시 와다는 화들짝 놀랐다.

그 15세 소년은 평소에 아버지에게서 물몬들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물몬들은 자신의 집에서 불과 3분 거리인 일본 나가노 길거리에서 늘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다카시는 그 미국인 장로가 사용한 일본어에 감명을 받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선교사가 다카시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선교사였다. 형편없는 일본어로 그는 조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썼다.

다카시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들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토론을 가르쳤다. 그는 교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회원들의 간증에 감동을 받았다. 불교 집안이라는 제약 때문에 다카시는 선교사들에게 즐기차게 말했다. “이 교회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2년이 지난 후, 17세이던 다카시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교회에 가입했다.

1965년 2월 5일에 겐조 와다와 가주코 와다 사이에서 태어난 와다 장로는 1990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언어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6년에는 동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북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1994년 6월 18일에 일본 도쿄 성전에서 나오미 우에노와 결혼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아 키웠다.

와다 장로는 미국과 일본 소재의 다국적 기업에서 몇몇 직책에 종사했으며, 북미 서 지역, 북미 북서 지역, 북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 실무 책임자 직책을 맡기도 했다.

와다 장로는 감독, 고등평의원, 세미나리 교사 등의 부름을 수행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도쿄 남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2018년 3월 31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



보니 에이치 코든

본부 청년 회장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가 아주 좋아하는 성구는 교리와 성약 123편 17절이다.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녀가 평생 배운 교훈은 이 성구에 요약되어 있다. 2018년 3월 31일에 신임 본부 청년 회장으로 지지받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힘든 일을 할 수 있으며, 그것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은 아이다호 남동 지역의 작은 농장에서 일을 하며 “동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에게 스며들었으며, 이후 포르투갈에서 선교 사업을 하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느라 애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또한 브라질 쿠리치바 선교부를 감리하던 남편과 함께 봉사하는 동안에도 선교사들에게 종종 반복해서 전했던 메시지가기도 했다. 이제 그것은 그녀가 전 세계의 청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그녀는 오늘날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 주님의 일을 진척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보니 힐럼 코든은 1964년 3월 11일에 미국 아이다호주 아이다호폴스에서 해럴드 힐럼과 캐럴 라스무센 힐럼 사이에서 태어났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테릭 레인 코든을 만났다. 두 사람은 1986년 4월 25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네 명의 자녀와 네 명의 손주가 있다.

그녀가 평생 교회에서 했던 봉사 중에는 유아반 지도자와 세미나리 교사도 포함된다. 2년 전에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보좌로 부름받기 전에는 스테이크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 부름에서 해임된 후에도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전 세계의 청년들과 열렬히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



미셸 디 크레이그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는 열여섯 살이었을 때 자신의 가족이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로 이사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족과 계속 함께 지낸다는 사실에 기뻐지만, 그 이사로 인해 어린 미셸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다.

“그때는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말이죠.”라고 크레이그 자매는 말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대신에 가족과 제 간증에 의지했고, 교회는 일종의 생명줄이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구주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미셸 데인즈 크레이그는 1963년 7월 13일에 유타주 프로보에서 태어났으며, 제넷 룬드그렌 데인즈와 로버트 헨리 데인즈 삼세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자녀 중 맏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가족과 함께 펜실베이니아로 이사가기 전까지 줄곧 프로보에서 살았다. 2년 후에 크레이그 자매는 프로보로 돌아와서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재학했으며, 그곳에서 초등교육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2018년 3월 31일에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로 지지받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언제나 신앙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제가 선교사였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간증을 할 때마다 영을 느꼈어요. 저는 영적 확인을 받았기에 제 간증은 확고했습니다.”

그녀가 귀환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오빠는 자신의 선교사 시절 친구였던 보이드 크레이그와 데이트를 하라고 말했다. 8개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약혼했다. 두 사람은 1986년 12월 19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세 명의 자녀와 여섯 명의 손주가 있다.

그녀는 프로보 성전에서 성전 의식 봉사자와 복음 교리반 교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부름에서 봉사했다. 본부 청년 회장단으로 부름받을 당시에 그녀는 본부 초등회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



베키 크레이븐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베키 크레이븐 자매가 선교사였던 시기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죠. 옷차림에서부터 말씨, 걸음으로 드러나는 모습, 참여하는 활동까지도 달라집니다.”라고 말한 크레이븐 자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인 남편 로널드 엘 크레이븐과 함께 봉사했다.

크레이븐 자매는 2018년 3월 31일에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를 받았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자신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레베카 린 크레이븐은 1959년 10월 26일에 미국 오하이오주 차든에서 콜리스 윌터 미첼과 린다 루이스 카즈수크 미첼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랑스럽게 자신을 “군인의 자녀”로 부르는 그녀는 성장기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생활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살 때는 가족이 교회에 가입했고, 독일에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 스위스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영국에서도 살았다. 미국 유타에서 살 때는 아버지가 베트남에 참전한 동안에 그녀가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메릴랜드, 켄터키, 미주리, 캔자스주에서도 거주했다.

1980년 8월 5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한 크레이븐 부부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

새로운 부름으로 지지받기 전에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와 유타 바운티폴 성전의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또한 와드 청년 회장,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임원회 일원, 스테이크 선교사, 스카우트 지도자로 봉사하기도 했다.

크레이븐 자매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실내디자인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육상 자문 위원회 활동도 했다. 또한 유타 기반의 국제 자선 단체인 초이스 인도주의의 이사회 임원으로도 봉사했다.

그녀는 하이킹, 수상 스포츠, 스노우슈잉, 여행, 그림 그리기, 쿼트 및 여러 가족 활동을 즐긴다. ■



리사 엘 하크니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

리사 엘 하크니스는 늘 배움과 주변 세계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 이런 특성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그녀는 교내 생명과학관(Monte L. Bean Life Science Museum)에서 일하면서 파충류 다루는 법도 배웠다. 물론 거기에는 뱀도 포함되어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뱀에게도 개성이란 게 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매번 제가 붙잡을 때마다 저를 알아보는 녀석이 있죠.” 그녀가 생명과학관을 찾아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안 붉은 꼬리의 보아뱀 하워드가 그녀의 어깨 위로 기어올라와 그녀의 목을 휘감고 머리를 그녀의 머리에 기대는 경우도 있었다.

요즘도 그녀는 자신에게 쉬익 하는 소리만 내지 않으면 다양한 뱀을 집어 들어 어떤 뱀인지를 알아맞힌다.

하크니스 자매는 1965년 1월 1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널드 룡과 라래 룡 사이에서 태어났다. 다섯 자녀 중 맏이인 그녀는 가족과 함께 “언제나 모험을 하고, 야외에서 보내며, 세상을 탐험”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든지 부모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가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완전히 믿었어요.”라고 말했다.

하크니스 자매는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선교부에서 스페인어 선교사로 봉사한 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와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녀는 1988년 4월 22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데이비드 에스 하크니스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다섯 자녀와 두 명의 손주를 두었다.

하크니스 자매는 2018년 3월 31일에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제1보좌로 부름받았으며, 지금까지 본부 초등회 임원회 일원, 스테이크 청년 회장,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와드 청년 회장단 보좌, 장미반 고문, 청년 야영 책임자, 스테이크 가족 역사 책임자,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 복음 교리반 교사 등의 부름에서 봉사했다.

그녀는 또한 학부모회, 지역 평의회, Utah Symphony[유타 심포니], Timpanogos Storytelling Festival[팀퍼노고스 스토리텔링 축제] 및 지방 정부의 여러 직책에도 참여했다. ■



성역에 역점을 두다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이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보살피는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인 “성역”은
회원들의 영적 및 현세적 필요 사항을 채워
주기 위해 협동의 노력을 제공하게 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진 비 빙엄
자매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방식으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가
구주께서 하셨듯이 성역을 베푸는 데 더욱
집중하게 될지를 말씀했다.(101, 104쪽 참조)

월계반과 장미반은 이제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성역 동반자로 봉사할 수 있다.
분기별 접견에서 형제 및 자매 성역자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과
강점을 지도자들과 협의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것은 지도자가 한 분기
동안 실시했던 접견 횟수이다. 가능하다면
방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역은 매달
연락을 해야 하는 규정된 방식이 아니다.

“구원 사업에서 성인들과 나란히 봉사할
때, 청소년은 자신의 독특한 은사를 나눌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빙엄 자매는 말했다. 청소년을 참여시키면
다른 이들을 돌보는 회원의 수가 늘어날
것이며, 청소년들이 “교회와 지역 사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
본부에 있는 저희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성역을 베풀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저 여러분이 성역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했는지입니다.”

제일회장단의 서한에 따르면, 이 성역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급적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Ministering.Ids.org에서 볼 수 있다. 훈련
비디오와 기타 자료들은 몇 주에 걸쳐서 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다.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지를
알도록 6월부터 *리아호나*에 “성역의
원리”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매달 실릴
것이다. ■



정원회 개편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와드(또는 지부) 대제사 그룹과 장로 정원회가 이제 하나의 장로 정원회로 통합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크 회장단은 스테이크 대제사 정원회 회장단으로 계속 봉사하게 되지만, 이 정원회에는 현재 스테이크 회장단, 감독단, 고등평의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대제사들과 임무 수행 중인 축복사만 포함된다.

장로 정원회는 장로와 대제사로 구성될 회장단이 이끌게 된다. 장로 정원회 회장은 스테이크 회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과 정기적으로 만난다. 신권 직분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현재의 와드(또는 지부) 장로 정원회 회장단과 대제사 그룹 지도자는 해임될 것이며, 스테이크 회장이 새로운 장로 정원회 회장단을 부를 것이다. ■

새로운 성전 일곱 곳이 발표되다

성전이 세워질 예정지는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살타, 인도 벵갈루루, 니카라과 마나과, 필리핀 카가안데오로, 미국 유타 레이턴,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러시아의 대도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연차 대회의 일요일 오후 모임을 마감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대회 직전에 제일회장단은 이탈리아 로마 성전이 2019년 3월 10일 일요일부터 2019년 3월 17일 일요일에 걸쳐 헌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회에서는 또한 태국 방콕 성전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2017년 10월에는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성전의 기공식이 있었으며, 2017년 11월에는 아이다호 머리디언 성전이 헌납되었고, 2017년 11월에는 (미국) 유타 시더시티 성전이

헌납되었다.

다음 두 성전은 재헌납될 예정이다. 텍사스 휴스턴 성전은 홍수로 인한 수리가 끝나면 2018년 4월 22일 일요일에 헌납되고, 유타 조던리버 성전은 보수 공사가 끝나면 2018년 5월 20일에 헌납된다. 올해 후반에는 다음 두 개의 성전이 추가로 헌납될 예정이다. 칠레 콘셉시온 성전은 2018년 10월 28일 일요일에, 콜롬비아 바랑키야 성전은 2018년 12월 9일 일요일에 헌납된다.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은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위해 2018년 7월에 문을 닫게 되며, 2021년에 재헌납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159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며,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인 성전은 30곳이다. ■

이탈리아 로마 성전



태국 방콕 성전 이미지





가족 역사: 찾고, 모으고, 연결하다

현 지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는 교회 회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조상을 찾고, 기록을 수집하여 조상들을 연결하는 기쁨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고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가 말했다. 그는 교회 가족 역사부의 집행 책임자이자 칠십인 총관리 직원이다.

누구든 가족 역사를 하면서 가족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올해의 목표는 회원들이 이런 경험을 하도록 돕는 상담자들의 역할을 상담자 자신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라고 포스터 장로는 말했다. “우리는 한 사람씩 돕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죠. 특히 12세가 되는 어린이들과 새로운 개종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두 그룹은 성전 사업이 어떻게 영원토록 가족을 강화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쉽사리 유익을 얻으며, 친구와 가족들에게 열의를 불어넣는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5,000개가 넘는 FamilySearch 가족 역사 센터 중 한 곳에서 일대일 도움을 받아, 가족을 찾고, 모으고, 연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선교 사업 활성화

지 난 6개월 동안 교회에서는 선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취했다.

표준 질문. 제일회장단은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이 예비 선교사를 접견할 때 사용할 일련의 표준 질문을 소개하고 지도자, 부모,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숙지하도록 권고했다.

이런 질문에서 나타나는 표준들은 변경되거나 전임 선교사 요건에 추가되지는 않으나, 예비 선교사와 부모가 이를 자주 검토할 때 여러 원리를 배우고 추가로 더 준비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이용. 휴대 기기를 사용하는 선교부 수는 87개에서 162개로 늘어날 것이며, 태블릿은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다. 선교사들은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찾고, 가르치게 된다.

기술은 또한 종교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도 쓰인다. 교회에서는 6년 전부터 온라인 교육 센터를 사용해 왔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20개의 온라인 교육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친구를 선교사들에게 소개하는 회원들은 기술을 통해 자신의 친구를 가르치는 선교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필요 사항을 의논하고 인터넷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lds.org/referrals에서 알아본다.

현재의 필요 사항을 충족함. 2018년 7월부터는 19개 선교부의 경계가 조정되고 5개의 선교부가 신설된다. 따라서 선교부 수는 421개에서 407개로 변경된다. 새로운 선교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남, 코트디부아르 야무스크로, 나이지리아 이바단, 필리핀 카바나투안, 짐바브웨 블아와요 선교부가 될 것이다. 합쳐지는 선교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선교부 회장이 선교사 부모들에게 보내는 향후 통신문에 기재될 것이다.

2012년에 선교사 봉사의 연령 변경이 발표된 이후로 교회에서는 58,000명에서 88,000명으로 급증한 선교사들을 수용하기 위해 76개의 선교부를 신설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선교사 수의 급격한 증가는 점차 찾아들어, 현재 약 68,000명의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필요한 선교부 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또한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서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선교사 훈련원. 미국 유타에 있는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과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을 모두 확장하여 헌납했으며, 가나에 있는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도 헌납되었다. 스페인과 칠레에 있는 훈련원은 2019년 1월에 폐쇄된다. 따라서 이들 훈련원 중 한 곳에 입소할 예정인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 있는 나머지 13개 선교사 훈련원 중 한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

새로운 정책, 절차, 제작물

청 소년과 성전 사업. 제일회장단은 청남 청년에게 성전 사업에 참여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초등학교 어린이가 성전에 봉사할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해 변경된 성전 정책을 발표했다.

학대에 대한 예방, 파악 및 대응. 지도자들에게 학대에 대한 예방, 파악 및 대응 방안을 권고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제일회장단은 2018년 3월 26일,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서한과 문서를 발송했다. 이 문서에는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단이 성적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권고하는 법과 교회 회원들과 접견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갱신된 지침이 실려 있다.

청녀 야영의 변경 사항. 교회의 청녀 야영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에는 증서를

없애고 청소년 지도자를 강조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사항이 실린 새로운 야영 지도서가 몇 달 내로 배부될 것이다.

세계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녀 야영 지도서**는 현재 영어(와 최종적으로 23개 언어)로 이용 가능하며, 청녀 회장단과 야영 전문가 및 청소년 야영 지도자는 youngwomen.lds.org에서 이 자료를 볼 수 있다.

음악 제출. 최근에 교회 음악 제출 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제 회원들은 성스러운 음악 원곡을 쉽고 빠르게 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음악 제출은 apps.lds.org/artcomp에서 할 수 있다.

“How To” 동영상 채널. 교회에서는 유튜브에 “How To”라고 하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여,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 채널은 “필요한 도움을 찾을 수 있는 종합 채널”이며, 현재 600여개의 동영상이 9개의 범주로 나뉘어 있다. 각 범주에는 관련 주제에 관하여 다수의 동영상 재생 목록이 있으며, 영어로 제공된다. 일부 콘텐츠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도 볼 수 있다. HowTo.lds.org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경전 번역. 교회에서는 34개 언어 추가 번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과정이 도입되어, 개개인은 최종 번역본이 출판되기 전에 번역 초고를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즉, 회원들은 더 빨리 모국어로 된 경전을 볼 수 있게 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news.lds.org에 나와 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이 자료들은 복음 자료실 앱과
comefollowme.lds.org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정원회 모임과 상호부조회 모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후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업을 성취하시고자 신권을 회복하시고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주 일요일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만나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토론하고 계획한다. 이 모임들이 효과적이려면, 공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모임들은 구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 사업에 대해 함께 배우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계획하고 조직할 기회이다.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

매달 첫째 일요일에 하는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에는 교사가 가르치는 공과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대신,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평의회 모임을 이끈다. 이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에서, 각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해당 와드/지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기회 및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통찰과 경험을 통해 배우며, 영의 느낌에 따라 행동할 방법을 계획한다. 이러한 토론은 관련 성구와 살아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평의회 모임은 매번 같은 모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회장단이 성공적인 평의회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침이다.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평의회 모임에서 어떤 토론 주제를 다루어야 할지는 회장단 모임이나 와드 평의회 모임, 지역 계획, 회원들을 보살피는 가운데 지도자들이 받은 영감, 그리고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정한다. 아래 제시된 주제들은 예시일 뿐이다. 지도자들은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다른 필요 사항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모사야서 23:18 참조)
- 여러 가지 책임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 친구와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앨마서 17장 참조)
- 부적절한 미디어와 외설물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 우리 자녀들과 와드/지부의 청소년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주고 그들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복음에 관한 질문에 답을 구하고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주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고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자립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평의회 모임 전

해야 할 사항:

- 해당 지부/와드가 가진 필요 사항과 기회,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기도하는 가운데 토론할 주제를 선정한다.
- 정원회 구성원들이나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모임에 오기 전에 생각과 경험을 나눌 준비를 해 달라고 권유한다.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공과를 준비한다.
-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행동 계획을 염두에 두고 모임에 참석한다.

평의회 모임 동안

해야 할 사항:

- 회원들에게 지난번 모임에서 받은 느낌이나 지난 번 모임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행동한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 모임의 주제를 소개한 다음, 회원들에게 경전,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성신으로부터 해결책과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그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도록 격려한다.
- 토론된 사항에 따라 실천에 옮길 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계획은 그룹이 함께 실천할 계획이나 개인이 세운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대화를 지배하려고 한다.
-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 한다.
- 민감한 사항이나 기밀 사항에 대해 논한다.
- 공과를 가르친다.
- 참여하도록 누군가를 압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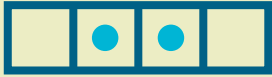
평의회 모임 후

해야 할 사항:

- 평의회 모임 동안 세운 계획이나 임무에 대해 확인한다.
- 부름이나 기타 이유로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그들에게 알려 준다.
- 회원들에게 향후 모임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나눌 기회를 준다.

“이 평의회 모임에서 가장 훌륭한 것 중의 하나는, 모임이 끝날 때 실제로 실행 계획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 비 빙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둘째 및 셋째 일요일

모임

매달 둘째 및 셋째 일요일에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서는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 나온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된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의 말씀을 주로 다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와드/지부의 필요 사항이나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따라 선택된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이라면 어느 말씀이든 토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장로 정원회 회장단이나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각 조직의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대회 말씀을 선정하여 토론하게 된다, 하지만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이 의견을 낼 수도 있다. 회장단은 최근에 열린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에서 토론한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따라 다른 주제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장단과 교사들은, 선정한 말씀을 회원들이 미리 읽어 보고 그 안에 담긴 복음 진리와 그에 맞는 실천 방안을 나눌 준비를 해 오도록 격려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아래 제안된 학습 활동들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 나오는 원리들에 바탕을 둔 것**이며, 회원들은 이 활동들을 통해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차 대회]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밤에, 복음 교육에, 가족 및 친구와의 대화에 ...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18쪽.

쉐런 유뱅크, “너희 빛을 밝히라”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의롭고 충실한 여성을 통해 그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회원들에게 자신이 생각한 그 여성의 특성이 유뱅크 자매가 이야기한 의로운 여성의 특성들 중 어떤 점에 부합하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권유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유뱅크 자매로부터 “마지막 날에 교회가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엠 러셀 블라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9~11쪽

블라드 회장은 말씀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선지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성찬식, 그리고 봉사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따라서 여러분의 정원회 혹은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회원들에게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블라드 회장의 말씀에 나온 권유 혹은 약속된 축복은 무엇인가? 적절하다면, 회원들에게 이 토론을 통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는지 몇 분 동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제리 이 스티븐슨, “선지자의 마음”, 17~20쪽

새로운 선지자의 부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 이해”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스티븐슨 장로의 말씀 가운데서 이 신성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스러운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와 통찰을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적절하다면, 회원들에게 넬슨 회장이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받았던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또한, 칠판에 하트 모양을 그리고, 회원들에게 그 안에 넬슨 회장의 마음과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나 어구를 적어 넣어 보라고 할 수도 있다. 그가 가르친 말씀 중에 우리를 축복한 말씀은 어떤 것인가?

닐 엘 앤더슨, “하나님의 선지자”, 24~27쪽

앤더슨 장로의 말씀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회원들은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한 신앙을 강화할 수 있다. 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선지자를 두시는 이유와 우리가 그들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회원들에게 권유한다. 선지자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 왔는가? 회원들은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주님의 선지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이라는 간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나눌 수 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30~33쪽

베드나 장로의 말씀에 대한 토론을 격려하기 위해 칠판에 ‘온유함이란 ... 이다’라는 문장과 ‘온유함이란 ... 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적는다. 그런 다음 회원들은 베드나 장로의 말씀 가운데서

이 문장들을 완성하는 어구를 찾아 칠판에 적는다.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더 온유하게 되도록 고무하는가? 어느 온유함의 모범이 생각나는가? 더욱 온유해지기 위해 베드나 장로의 권고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보니 엘 오스카슨, "구원 사업에서 청년의 역할", 36~38쪽

질문을 던지는 것은 회원들에게 깊이 생각하도록 권유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적절하다면, 오스카슨 자매의 말씀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 '주님의 사업에 청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 그 예이다. 회원들에게 오스카슨 자매의 말씀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배운 것에 대해 토론해 보라고 권유한다. 청년들이 성역에 참여한다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반원들은 청년들과 함께 성역을 행한 경험에 대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토론을 통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영감이 떠올랐는가?

데일 지 렌랜드,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 인봉과 치유", 46~49쪽

렌랜드 장로는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시현에 관해 말씀했다.(에스겔 47:8~9 참조)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의 회원 한 명이 칠판에 이 시현을 그림으로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데 따르는 축복은 어떤 면에서 에스겔의 시현에 나온 물과 같은가? 반원들에게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달라고 권유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더 정기적으로 행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정원회", 55~58쪽

장로 정원회에서는 정원회 회원들에게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 중 "이러한 변화의 목적"이라는 소제목 부분을 읽어 보라고 권유할 수 있다. 이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상호부조회에서는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묘사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에 생긴 변화를 요약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자매들은 이 변화에 내포된 원리들 중 상호부조회가 일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다.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에서 회원들은 고초 형제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들이 일하는 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토론해 볼 수 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보라! 당당한 군대", 58~61쪽

"보라 당당한 군대"(찬송가, 169장)를 함께 부르거나, 듣거나, 가사를 읽어 본다. 래스번드 장로의 말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어떤 점에서 이 당당한 군대와 비슷한가? 회원들은 신권 정원회를 재조직함으로써 오게 될 "크나큰 축복"에 대해 래스번드 장로가 언급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이 변화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는 또 어떤 축복들을 받았거나 받기를 소망하는가? 어떻게 하면 상호부조회 회원들도 "은사의 다양성"과 "조언"과 같은 축복을 더욱 완전히 받을 수 있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영감받은 성역", 61~64쪽

아이어링 회장은 성역에 관한,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성찬식 말씀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회원의 절반은 열네 살 소년의 말씀을, 나머지 절반은 가정 복음 교사의 이야기를 읽어 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읽는 동안, 회원들은 누군가를 보살피도록 새롭게 임무를 지명받은 청년이나 청년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역을 베풀 때 더욱 영감 받고 큰 사랑을 지닐 수

있[는]가"?

델린 에이치 옥스, "신권의 권능", 65~68쪽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옥스 회장의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소주제를 칠판에 적는다. 그런 다음 각 회원에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조용히 읽어 보고 그 부분의 주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칠판에 적어 보라고 권유한다. 그런 다음, 회원들은 그 부분을 읽고 무엇을 해야겠다고 영감 받게 되었는지 나눌 수 있다. 옥스 회장의 말씀에 담긴 가르침을 적용할 때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혹은 상호부조회 자매들로서 어떻게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68~75쪽

넬슨 회장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일어나!" 신권을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권유한다.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의 회원들에게 넬슨 회장이 든 예를 찾아보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해하는 데 그 예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해 보라고 권유한다. 신권 권능을 통해 축복을 받았던, 함께 나눌 만한 경험이 있는가? "그분의 이름으로 ... 성역을 행[하기]"위해 하나님의 신권을 사용할 신앙을 갖도록 우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마음을 같이하여", 78~80쪽

모임 진행 방식

1. (회장단의 일원이 진행) 지난 신권회 모임이나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받은 느낌과 권유에 따라 행했던 **경험을 나눈다.**

2. (부름받은 교사가 진행) **함께 배운다.**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유하면 도움이 될 때가 많다.

가. 연차 대화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본다.(어떤 질문에 대한 답, 영감을 주는 문단, 혹은 어떤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 등)

나. 찾은 내용을 나누고 토론한다.

다. 말씀이 회원들의 삶과 경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숙고한다.

3. (회장단 일원이 진행) 개인으로 혹은 그룹으로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

아부르토 자매의 말씀을 통해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얼마나 잘 단합하여 일하고 있는지 평가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회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왕알록나비의 사진과,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신 구주의 사진(복음 그림책, 82, 83, 84쪽 참조), 또한 교회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한 사진(LDS.org 참조)을 보여 줄 수 있다. 회원들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단합하여 일하는 목적과 축복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아부르토 자매가 이 예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그분의 영광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86~89쪽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성신을 받는 능력과 성신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키우도록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아이어링 회장의 경험을 살펴본 후, 정원회 혹은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성신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거나 진리를 확인해 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떠올려 본다. 그 경험들 중 나눌 만한 것이 있는가? 회원들은 아이어링 회장이 “영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게]” 우리에게 준 지침을 칠판에 열거해 볼 수 있다. 아이어링 회장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속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작고 단순한 일”, 89~92쪽

옥스 회장의 말씀에는 어떻게 작고 단순한 일이 선과 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쳐 주는 비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 비유에는 나무 뿌리, 노를 젓는 팀, 밭줄을 구성하는 섬유질, 떨어지는 물방울 등이 포함된다. 회원들은 이 비유들을 읽고, 작고 단순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에 관해 이 비유들이 가르치는 바를 토론할 수 있다. 성신의 영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작고 단순한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회원들에게 옥스 회장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고 느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93~96쪽

넬슨 회장은 말씀에서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라고 간청한다. 회원들이 넬슨 회장의 권고를 따르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칠판에 적을 수 있다: 우리는 왜 계시가 필요한가?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 함께 의논하며 계시를 받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넬슨 회장은 우리가 계시를 구할 때 어떤 축복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는가? 회원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게릿 더블유 공, “주님 부활하셨네”, 97~98쪽

정원회 혹은 상호부조회의 회원들은 우리가 맺은 성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공장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말씀 가운데서 구주의 속죄와 우리가 맺은 성약 두 가지가 연합하여 가져다주는 축복을 찾아보라고 회원들에게 권유한다. 그런 다음, 적절하다면 그들이 찾은 것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우리가 맺은 성약과 속죄는 어떻게 연합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고결하게” 하는가? 그것들은 우리가 무엇에 충실하도록,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와주는가?

울리세스 소아레스, “선지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합니다”, 98~99쪽

소아레스 장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때 신앙으로 행하겠다는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소아레스 장로는 사도로 새롭게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위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는가? 소아레스 장로는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그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께서 회원들이 하기 원하셨던 일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경험을 나눌 시간을 준다. 회원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앙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제프리 알 홀런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101~103쪽

정원회 혹은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신권 및 상호부조회 성역의 개념”에 생긴 변화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질문을 갖게 되었는가? 홀런드 장로의 말씀에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겨 있을 수 있다. 회원들은 홀런드 장로가 이 변화의 기초가 된다고 가르친 복음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홀런드 장로의 말씀에서 어떤 권유들을



찾을 수 있는가? 홀랜드 장로는 어떤 축복들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는가? 성역을 베푸는 이 새로운 방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진 비 빙엄,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풀”, 104~107쪽

빙엄 자매는 말씀에서, 우리가 성역을 베풀 때 인도를 얻도록 스스로 질문하라고 권유한다. 회원들은 성역을 베풀 때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해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 토론하고, 빙엄 자매의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성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시간을 조금 할애하여 빙엄 자매가 말씀한, 성역을 베풀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고, 회원들에게 자신의 예를 나누어 달라고 권유할 수 있다. 빙엄 자매의 말씀에서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해 주는 부분은 어디인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보라 이 사람이로다!”, 107~110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과 부활이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가? 회원들에게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이 사건들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 토론한 다음, 회원들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 사람”을 “보”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쿠엔틴 엘 쿡,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114~117쪽

쿡 장로의 말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때, 회원 한 명에게 커틀랜드 성전에서 신권 열쇠들이 회복된 일을 요약해 달라고 권유할 수 있다. 쿡 장로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이 열쇠들과 관련된 어떤 책임들을 갖는가? 이 책임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의로움, 단합, 그리고 평등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적고 회원들에게 쿡 장로의 말씀에 나오는 이 각각의 원리들에 대한 통찰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이 원리들은 우리가 교회에 신성하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넷째 일요일

모임

매달 넷째 일요일에,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선정한 주제를 토론한다. 이 넷째 일요일 주제는 매 연차 대회 후에 갱신될 것이다. 지금부터 다음 연차 대회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행함”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다. 매달 회장단 혹은 교사는 성역과 관련된 다음 원리들 중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이끈다.

성역에 관한 토론에 도움이 될 추가적인 자료는 ministering.lds.org와 향후 발행될 리아호나 기사 중 “성역의 원리”를 참고한다.

성역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의 와드 또는 지부의 회원들에게 성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성역이라고 칠판에 적고 회원들에게 성역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것들을 그 주위에 적어 보라고 권유할 수 있다.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경전 구절에서 단어나 어구를 찾아 거기에 더 적어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5:34~40; 누가복음 10:25~37; 니파이후서 25:26; 모사이야서 18:8~9; 제3니파이 18:25; 교리와 성약 81:5. 성역에 관한 이 성구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회원들에게 성역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행하는 성역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성역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구주께서는 성역을 행하는 완전한 본보기가 되신다.

더 효과적으로 성역을 베푸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회원들은 구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이야기를 경전에서

찾아 나눌 수 있다. 요한복음 4~6장과 마가복음 2장 1~12절에서 몇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다. 회원들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인상적이었는지, 또한 성역에 관한 어떤 원리들을 배웠는지 나눌 수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구주께서는 어떻게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다른 사람을 도우셨는가? 그분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현재적인 필요 사항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사항까지도 충족시켜 주셨는가? 회원들은 다른 이들이 성역을 베풀 때 이 원리들을 사용하는 것을 본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통해 성역을 베풀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촉발된 성역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칠판에 적고 회원들에게 빈칸을 어떻게 채울지 제안해 보라고 권유할 수 있다. *내가 봉사를 베푸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는_____.*
내가 다른 이유로 봉사를 베풀 때, 나는_____.
 _____,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동기로 지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역을 베풀도록 임무를 지명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모로나이서 7:45~48 참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고무되어 성역을 베풀 예로 회원들이 알고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가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신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구별 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9쪽) 넬슨 회장은, 교회는 어떤 “조직화되고 일치된” 방법으로 회원들이 개개인을 더 잘 보살피도록 돕는다고 가르치는가? 이 노력이 “주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구별 짓는 특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모사이야서 18:21~22과 모로나이서 6:4~6을 참조하여 답을 찾아본다.) 회원들이 교회에서 받은 부름이나 임무의 일환으로 성역을 행했을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축복이 찾아왔는가?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크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경험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그들에게 성역을 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을 바라본 방식과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레이맨인들을 바라본 방식을 칠판에 적는다. 그런 다음, 회원들에게 모사이야서 28장 1~3절과 엘마서 26장 23~26절에서 이 각각의 어구들 밑에 적을 단어나 구를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그들에게 성역을 행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더욱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듯 사람들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리와 성약 18:10~16 참조)

참된 성역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집중한다.

성역을 행할 때 다른 이들의 필요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회원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성역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누군가로부터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성역은 어떤 점에서 사려 깊은 선물을 주는 것과 비슷한가? 적절하다면,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필요 사항에 맞게 성역을 베풀 예로 찾아 토론한다.(예를 들어, 2018년 5월호 *리아호나*에 나온 진 비 영업 자매의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풀”을 참조한다.) 회원들은 이 원리를 설명하는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회원들에게 각자 성역을 베푸는 대상을 열거해 보라고 권유한다. 회원들은 각 이름 옆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쓸 수 있다. 적절한 경우에는 개개인이 받아야 하는 의식도 적어 보도록 한다. 회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영감을 구하라고 권유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베푸는 성역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신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복음 계획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 때때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혼자 처리하겠어’, …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 부유한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할 정도로 … 빈곤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친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벗*, 1976년 2월호, 91, 93쪽) 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주저하는가? 우리가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성역에 마음을 더 잘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조금 준다. 고린도전서 12장 13~21절에는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오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역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성역을 행할 수 있는지 회원들이 생각해 보도록 돕기 위해,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복돋아 주며”라는 말씀과(*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1~103쪽) 향후 발행될 *리아호나*에서 “성역을 행할 때 적용할 원리들”이란 기사를 읽어 보라고 권유한다. 회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러면 회원들은 그 상황에 있는 개인의 영적인 필요 사항과 현재적인 필요 사항에 대해 성역을 행할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는 한 많이, 또 자유롭게 생각해낸다. 그룹들에게, 그들이 생각해 낸 여러 방법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 방법 중 어떤 것이 성역을 받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





십이사도 정위원회

왼쪽부터 앉은 순서대로 : 엠 리셴 벨라드 회장,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디이더 에프 우흐토도르프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쿠엔틴 엘 쿡 장로, 왼쪽부터 서 있는 순서대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닐 엘 앤더슨 장로,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게리 이 스티븐스 장로, 데일 지 렌던드 장로, 케릿 더블유 공 장로,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제188차 연차대회 마지막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덜 중요한 일들을 분별하여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화합과 사랑이 더 커지도록 축복하고 영원한 가족 관계를 돌보려는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고 그분의 참된 제자로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목소리를 높여 간증함으로써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께서 성임된 종을 통해 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